

1-20-2003

구조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비전

Bog Yong Eom 엄복용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엄복용, "구조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비전."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3.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VISION OF MISSION TO FOREIGN WORKERS THROUGH SMALL GROUP MOVEMENT

written by

BOG YONG EO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Nam Hyuck Jang

Moon Sang Kwon

Seyoon Kim

January 20, 2003

**A VISION OF MISSION TO FOREIGN WORKERS
THROUGH SMALL GROUP MOVEMENT**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BOG YONG EOM

JANUARY 2003

구조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비전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장 남 혁 교수

엄 복 용

2003년 1월

Abstract

A Vision for Mission To Foreign Workers through Small Group Move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Ju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Bog Yong Eom

Doctor of Ministry

2003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attempt to discuss the vision of mission to foreign workers through small group structure. In 1980's Korea brought the growing of industry rapidly, from that time on, we need more workers for 3Ds, that is, dirty work, dangerous work, and difficult work and such workers invited from the poor countries. These areas are the unreached people, so called, 10/40 window. In this paper, I try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through foreign small group structure in Juan Central Church and send them to their own countries for the kingdom of God.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chapter 1-3), I have discussed to the significance about general leadership that find to the best model of leadership in the Bible. That is to say that this is very important to lead to the small group for extension of the kingdom of God. Finally I emphasis that only multi-leadership is very good for foreign worker small group ministry. In the second part(chapter 4-6), I observe to the problems of small group ministry in Juan Central Church and foreign workers on Sunday English Worship. This observation is easy to find new leader among them and could train by prayer meeting, bible study, gift inventory, discipleship, and so on.

In result, this one will be contributed for a way of new mission project in 10/40 window areas through foreign workers worship service in Korea.

Theological Mentors: Nam Hyuck Jang, Ph.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쉬지 않고 걸어 온 것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박사 학위를 얻는 영광을 갖습니다. 10년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 주셔서 캐나다에 6년간 유학을 할 때도 동남아시아 지역 밀림속에 들어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외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동안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학문적으로 영향을 주신 틴데일 신학대학원에 셸비로 박사님, 실천 목회 청사진을 가르쳐주신 홀러 신학대학원에 밥 로간 박사님 그리고 나의 목회와 선교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과 확신을 주신 김세윤 박사님 그리고 헌신적으로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장남혁 박사님과 모든 심사위원 교수님 또한 눈물의 기도와 물질로 도움을 주신 팔십 여생을 살면서 목사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기도하여 주신 아버님(엄기홍 조사님) 어머님(김복순 집사님)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며 남편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조하여 준 아내 주재순 사모와 14년만에 태어난 아들 태림 그리고 처음 동남아 선교의 문을 열어 준 수원 새중앙교회 동역자 박성국 목사님과 예향교회 성일경 목사님 그리고 이 논문을 쓰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인천 주안중앙교회 박응순 목사님 그리고 영어 예배팀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홀러신학교 서울 사무실에서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인내하며 수고하여 주신 김태석 목사님과 주종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영광스러운 학위가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2003년 1월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사는 종

엄복용 목사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글	iii
그림 목차	x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 2 장 소그룹 리더십의 신학적 이해	8
제 1 절 성경적 리더십	8
1. 리더십의 이해	9
2. 리더십의 목적	9
3. 성경적 리더십의 배경	11
제 2 절 성경적 리더십의 모델	13
1. 예수님의 리더십	13
2. 바울의 리더십	16
3. 바나바의 리더십	18
제 3 장 소그룹 리더십의 유형	21
제 1 절 감독형 리더십	23
1. 진정한 권위	23
2. 농촌교회 리더십	24
3. 부흥회 스타일	25
제 2 절 관리형 리더십	26
1. 리더의 자질	27

2 리더의 영향력	30
3 성숙한 리더십	31
제 3 절 참여형 리더십	32
1 커뮤니케이션	32
2 그리스도 중심	33
3 능동적 리더십	34
제 4 절 위임형 리더십	34
1 위기 극복	35
2 물질 사용권	35
3 자유방임형	36
제 5 절 멀티형 리더십	37
1 성서적 배경	38
2 21세기 리더십	40
3 비전 있는 리더십	40
제 4 장 주안 증앙 교회와 외국인 소그룹 리더들의 문제점	42
제 1 절 경제적인 문제점	43
1. 리더와 직업	44
2. 리더와 선교	45
3. 리더와 공동체	46
제 2 절 지식적인 문제점	48
1. 리더의 자질	48
2. 리더와 신앙	50
3. 리더와 말씀 연구	51
제 3 절 신앙적인 문제점	52
1. 리더와 은사	53
2. 리더와 영성	54
3. 리더와 전도	55

4. 리더와 예배	56
제 4 절 지역적인 문제점	57
1. 교회 주변의 인구	57
2. 교통 수단	59
3. 교회와 주차장	60
4. 교회와 새신자	61
제 5 장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구조를 통한 선교	63
제 1 절 외국인 소그룹의 비전	63
1. 외국인 소그룹의 목적	64
2. 예수님의 지상 명령	65
3. 소그룹의 십계명	66
4. 외국인 소그룹 선교 실현	70
제 2 절 외국인 소그룹 리더의 자격	71
1. 선교의 소명이 있는 자	71
2.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72
3. 다양한 은사가 있는 자	72
4. 선교의 전문가로부터 추천된 자	73
제 3 절 외국인 소그룹 리더의 선교 프로젝트	74
1. 예배	74
2. 전도	75
3. 선교	78
4. 제자 양성	82
제 4 절 외국인 소그룹 설립 이해	84
1. 선교적 동기부여	84
2. 주민의 반응	85
3. 외국인 소그룹	86
제 5 절 외국인 소그룹 성장과정	88

1. 수태단계	89
가. 추진팀 조직	89
나. 증보기도팀 운영	90
다. 교통비 보조	90
라. 직장알선	91
2. 임신단계	91
가. 전도지 인쇄	91
나. 안내문 게시	92
다. 문화교실 운영	92
라. 예배 준비와 행정	93
마. 정기적 모임	94
바. 예배 도구들	94
3. 설립 단계	96
가. 장소, 시간, 초청	97
나. 소그룹 리더교육	98
다. 증보기도	99
라. 이름짓기	100
마. 리허설	100
4. 성장단계	101
가. 예배 사역	101
나. 전도 및 선교 사역	103
다. 기도 사역	104
라. 조직 사역	105
마. 훈련 사역	106
바. 사도 사역	107
5. 재생산 단계	108
가. 재생산의 시기	108
나. 개척자 인터뷰	109

다. 모교회의 역할	109
라. 선교하는 이유	110
마. 지 교회 개척	110
바. 원주민 교회 개척	111
제 6 절 외국인 소그룹을 통한 선교의 결실	113
1. 외국인과의 접촉점	113
가. 이미용선교회를 통하여	114
나. 외국인 한글 학교를 통하여	114
다. 여름 영어 학교를 통하여	115
라. 성경 공부를 통하여	115
마. 외국인 후원을 통하여	117
2. 훈련받은 외국인 리더의 선교 실제	117
가. 미얀마	118
나. 필리핀	120
다. 태국	123
제 7 절 평가	126
제 6 장 소그룹을 통한 원주민 부족 선교의 방향	128
제 1 절 파송하는 목회	129
제 2 절 선교하는 목회	130
1. 국내 선교	130
2. 해외 선교	131
3. 외국인 근로자 선교	132
가. 타문화 선교	132
나. 이중 계명 실천	133
다. 복음의 네트워크	133
라. 복음 전도	134
제 3 절 효과적인 선교 후원	136

1. 교회 예산으로	136
2. 개인적인 헌금으로	137
3. 교회 소그룹 연보로	137
제 7 장 요약과 결론	139
제 1 절 소그룹 리더의 필요성	139
제 2 절 연구 결과 및 과제	140
부록	144
1. NCD(자연적교회성장) 조사 결과표	144
2. 은사 발견 설문지	145
3. 은사 발견 설문 문답지	152
4. 외국인 소그룹 리더 교육 교안(How to be become a Christian?)	153
참고문헌	157
Vita	164

그림 목 차

<그림 1> 북위 10/40 창문	23
<그림 2> 인천광역시 전체지도	58
<그림 3> 주안 증양 교회 주변지도	6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

오늘날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¹⁾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옛 전통만을 고집하는 목회자와 교회는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집단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의 교회들이다.²⁾ 한 마디로 이 시대는 유행의 시대이다. 따라서 유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으로 분류된다. 요즘은 사회도 교회도 유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때로 교회에서 유행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한다. TV 드라마도 유행을 따라야 높은 시청률을 올릴 수 있다. 교회나 목회자가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등한시한다면 교회 성장은 정체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도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변화해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근본적인 신앙과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가 유행을 창조하고 리드해 나간다면 사회 전반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조직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소그룹을 통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어떠한 유행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내부는 항상 소그룹 모임이 있다. 소그룹 모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시대의 교회는 안전한 부흥을 추구

1) 김동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도전략," 기독교 대학, 1997년 12월호, 2-5. 두란노 목회시사 정보 스크랩, 1998년 1월호 (통권 87), 71에서 재인용.

2) Ibid., 71.

하기에 소그룹 모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는 당연히 리더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을 리드하기 위하여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존 스타트(John R.W. Stott)는 '크리스찬 리더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리더십은 비전, 근면, 인내, 봉사, 훈련 등이며, 크리스찬 리더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다.³⁾ 모든 모임이 그러하듯이 교회 안의 소그룹 모임에서도 그룹을 이끌어 가야 하는 리더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리더십 중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영적인 리더십과 예수님이 보여준 종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케네드 간젤(Kenneth O. Gangel)은 "영성이 없는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이 없고, 종의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리더십이 없다"⁴⁾ 고 했다.

따라서, 한국 교회들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교회 부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모임에서 서로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부흥되었습니까?" "지금 출석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인사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지금의 한국 교회를 외부에서 진단하여 본다면 두 가지 면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좋은 리더십으로 부흥하는 교회이고, 둘째는 리더십 부족으로 정체하고 있는 교회이다. 이러한 원인의 근원은 대부분 담임 목회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소그룹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인천 주안 중앙 교회를 배경으로 외국인 영어 예배 소그룹 모임이 새로운 원주민 선교의 방향을 개척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그룹 리더들의 활동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와 정체하고 있는 교회의 이면에는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십이 정체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확인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선교의 확장 역시 소그룹의 리더의 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성공한 교회들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⁵⁾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양육하는 것 (제자 양육)

3) Kenneth O. Gangel, Feeding & Leading: A Practical Handbook on Administration in Christian Organizations (Wheaton: Victor Books, 1994), 31.

4) Ibid., 31.

5) Carl F. George,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박종훈, 정종훈 역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1997), 17-19.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다른 사람을 전도나 선교하는 것 (전도와 선교)

셋째는 원주민 선교를 위해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하는 것 (리더 훈련)

첫째와 둘째는 오늘날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 번째 사역은 거의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안 중앙 교회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소그룹이라 할 수 있는 구역은 대부분 교인 관리 면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들의 리더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과 전달 수업이 전부이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하여 세우고 보내는 일이다. 이것은 바로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이다. 앞으로 교회들의 잠재력은 소그룹에 달려 있다. 많은 소그룹을 가진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소그룹 리더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전도 성공의 열쇠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소그룹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⁶⁾ 그레이스 교회(Grace Community Church) 데스머(Thesmor)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소그룹 리더들이라고 믿는다”고 했다.⁷⁾ 께로웨이(Dale Galloway) 목사가 설립한 새 소망 교회(New Hope Community Church)의 소그룹 공동체의 운영 원리는 “첫째, 나눔의 공동체, 둘째, 합심 기도, 셋째, 철저한 말씀의 적용이다. 이러한 원리로 운영되는 소그룹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핵심도 이 소그룹의 리더들이다”고 했다.⁸⁾

칼 죠지(Carl F. George)는 초대형 교회를 쥐 유형의 그룹들로 이루어진 대도시 규모의 집회로 생각한다. 쥐는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적응력과 번식력이 강한 생명체이다. 이처럼 소그룹 모임은 가정에 기초를 둔 작은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⁹⁾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John Wesley)로부터 시작한 소그룹 모임은 오늘날 감리교라는 대 교단을 탄생시켰다. 이처럼 요한 웨슬레의 클래스 모임(Holy Club)은 실제적으로 교회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¹⁰⁾ 이것은 요한 웨슬레 한

6) Carl F. George,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25.

7) Ibid., 308.

8)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도서출판 규장, 1998), 128-129.

9)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79.

10) 정주채, “소그룹 목회,” 기독교연합신문, 1997년 2월 9일자, 7면. 두란노 목회시사정보 스크랩, 1997년 3월호에서재인용.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소그룹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렌스 콩(Lawrence Khong)목사는 1986년 셀그룹 교회를 세웠고 약 4년 만에 신도가 4500명으로 증가했다. 그의 교회는 사무용 건물의 두 개 층을 이용하여 셀그룹 사역자들의 지도와 훈련을 담당하는 사역 간부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수는 유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¹¹⁾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는 리더십은 있지만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권한을 부여하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의 경영학도 여러 가지 이론을 거쳐서 21세기는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 혹은 “변혁적인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고수하고 있다.¹²⁾ 한국 교회를 외관상으로 보면 이 권위적인 리더십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것처럼 보는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주안 중앙 교회 성도들의 소그룹 리더의 문제점과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소그룹 구조 속에서의 리더십의 필요성과 소그룹 리더십의 효과적인 방안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루고 외국인 소그룹 리더들의 힘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소그룹을 통하여 새 신자들이 전도되고 이들이 자라서 다시 소그룹 리더가 되어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만약 전도된 새 신자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소그룹 리더로 세우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 리더들의 관심사인 성장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세계 선교를 외치는 것도 헛된 수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주안 중앙 교회 교회성장 연구소 실무자(부소장)로, 외국인 근로자 사역과 주일 영어 목회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 또한 동남 아시아 지역 선교 전략 코디네이터(Strategy Coordinator) 즉 SC선교사¹³⁾로 199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주안 중앙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 정통) 인천 중앙 노회에

11) Ralph W. Neibour,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33.

12) 오태균, “21세기 교회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목회와 신학, 2000년 1월호, 97.

13) SC선교사(Strategy Coordinator)라는 개념은 1986년 미국 남침례교회 해외선교부(IBM: International Mission Board)의 선교연구팀에 의해 제시된 ‘비거주선교사(NRM: Nonresidential Missionary)’에서 유래한 말이다. 비거주 선교사는 ‘직접적인 현장사역보다는 현지의 영적 필요를 조사하고 선교자원의 활용을 도우며 현지 자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국가나 지역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동원시켜 현지에 공급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전략적 동원 사역자를 뜻한다 (국민일보, 2002년 7월 2일자, 33 [“미션”]).

소속된 교회이며 현재 교회의 역사는 18년으로 1984년 1월 1일에 설립된 교회이다. 전통적인 장년 소그룹은 200개로 장년 1300명 출석과 주일학교 700여명 등 총 2000여명이 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안 중앙 교회는 거대 교회(1000이상-3000이하¹⁴)로 성장하였지만 5-6년 전부터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정체된 것을 볼 수 있다. 매 주일 교역자 회의에서 보고된 교회 자체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도가 미흡하고 이동 인구가 많고 보수 세력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4월 NCD(자연적 교회 성장)설문 조사(부록 참조)로 나타난 것은 전인적 소그룹이 가장 작은 최소치로 나타났다. 그 동안 많은 원인을 가지고 의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그룹 리더들의 부족과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설문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안 중앙 교회에 소그룹 발전을 정체된 상태로 만들었고 더 이상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체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소그룹 리더들의 역할 인식과 훈련 그리고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소그룹 모임은 대부분 교회 밖에서 활동하기에 많은 소그룹 리더들에게 질적인 교육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은사 발견 설문지를 통하여 찾아 주고(부록 참조) 힘을 부여하여 준다면 주안 중앙 교회는 자연스럽게 정체된 교회에서 역동적인 교회로 변하여 갈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 역시 자신의 은사를 알게 되면 정적인 활동에서 동적인 활동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주안 중앙 교회의 현실에 근거하여 현재의

14) Carl F. George는 교회의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 놓았다. 쥐 유형의 홈그룹(3-35), 고양이 유형의 소교회(37-75), 애완견 유형의 중간교회(75-200), 마당개 유형의 대교회(200-1,000), 말 유형의 거대교회(1,000-3,000), 코끼리 유형의 초거대교회(3,000-10,000), 쥐무리 유형 즉 공룡 유형의 초대형교회(10,000 이상)이다. 마지막 초대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메타동물로서는 쥐무리들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소그룹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소그룹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65-84.

소그룹 형태 즉 정제된 소그룹 속에서 리더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역동적인 소그룹 속에는 항상 훌륭한 소그룹 리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회의 양적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흥을 찾고 더 나아가 주안 중앙 교회 안에 있는 외국인 소그룹 교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리더를 선발하고 훈련하여 북위 10/40차문 지역 즉 북음의 불모지 동남아시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공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서론에서 결론까지 전체 7장에 이른다. 먼저 1장 서론에 이어 2장은 소그룹 리더십의 신학적 이해를 다루었다. 시대에 따라 전해지는 많은 리더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델을 찾으며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말할 것이다. 3장은 소그룹 리더의 유형을 살펴보게 된다. 21세기에 참다운 리더십은 상황적 리더십(situational leadership) 즉 멀티형 리더십(multi-leadership)으로 한국 교회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난하게 인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4장은 주안 중앙 교회 소그룹 문제점과 외국인 소그룹 리더들의 문제점들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5장은 주안 중앙 교회 소그룹 구조 모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원주민 선교의 방향을 찾고 터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신학생이나 근로자로 들어온 외국인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 소그룹 영어 예배는 원주민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고 외국인 소그룹 성장 과정의 마지막 목표는 재생산임을 강조하게 된다. 여기서 2가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먼저 현재 소그룹 리더들의 은사 확인을 위하여 존 로담의 은사 개발(Gift Inventory by John Roddam) 설문지¹⁵⁾를 통하여 소그룹 리더들의 리더십을 더 강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NCD(자연적 교회 성장)설문지¹⁶⁾를 통하여 주안 중앙 교회를 진단함으로써 NCD 8가지 특성 중에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발견하여 소그룹 리더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모든 배경은 주안 중앙 교회 안에서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소그룹 교회의 리더 사역은 원주민 선교지 개척에 있다. 그리고 6장은 소그룹을 통한 원주민 부족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부족 선교를 위한 준비 단계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가장 효과적인 선교가 무엇인가를 언급할 것이다. 이것

15) David Sherbino, Foundations of Christian Living (Toronto: Church Material, 1997), A9-A19.

16) NCD란 Natural Church Development(자연적 교회 성장)의 약자로 독일의 Christian A. Schwarz가 세계 6대주 32개국의 1000개 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견한 건강한 교회 성장의 진단 척도이다.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idem.,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북위 10/40차문 지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소그룹 리더들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 7장은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결실 그리고 삶을 제시하고 21세기 선교 비전을 말하게 된다.

제 2 장

소그룹 리더십의 신학적 이해

소그룹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소그룹 리더십의 성경적 이해는 필요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소그룹 리더십의 원리를 모세에게 설명했기에 수십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 할 수 있었다. 리더십의 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십은 소그룹부터 대그룹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으로부터 소그룹 리더들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그들의 가정, 부족, 그리고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다.

예수님 또한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였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의 소그룹 형태를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다(마 4:18-22 눅 6:13-16). 특히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¹⁷⁾ 소그룹과 대그룹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의 중요성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 절 성경적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일이다. 수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의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 이행이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리더십을 이해하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열정적인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17) Neal F. McBride, How To Lead Small Groups (Colorado Springs: NAV PRESS, 1990), 16.

1. 리더십의 이해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변화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마디로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경에서는 좋은 리더도 찾아 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리더들도 많이 있다. 명성훈 교수는 “인식(Awareness), 신념(Belief), 그리고 행동(Conduct)은 모든 리더십의 ABC이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다”¹⁸⁾고 했다. 리더십의 성품에 좀더 추가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 리더를 완전한 리더라고 본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21세기에 진정한 리더십은 인내, 온유가 필요하며, 미움, 자랑, 교만, 무례함, 자신의 유익, 분노, 악함, 불의 등을 금하는 것이다.

2. 리더십의 목적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살리는 일이다. 따라서 리더십의 목적은 첫째로 전도이다. 전도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기에 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은 누구나 동참하는 것이며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초기부터 모든 시간을 전도하는데 할애하였다 (마 4:17; 11:1; 12:41; 막 1:38-39; 3:14; 눅 3:23; 11:32; 4:44).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

18) 명성훈, 성경 속의 리더십 마스터키 (서울: 국민일보, 2000), 5.

계시록까지가 다 전도할 동기를 제공하여 주는 책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다. 전도는 시간을 내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거리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둘째는 목양(牧羊)이다. 소그룹 리더는 전도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목양해야 한다. 양들은 돌봄이 없으면 다시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전도되어진 사람은 한 식구가 되었음으로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며 좀더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머니는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를 먹여야 한다. 이것이 부모의 의무이며 자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새신자에 대한 관심은 다시 먼 훗날 그들을 리더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목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돌보아 주어야 한다.

셋째는 제자 훈련이다. 소그룹에서 리더가 그룹 회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킬 때까지 인도하였으면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도된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다시 리더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 있는 한 제자 삼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했다. 소그룹에서 리더가 제자 삼는 일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이다.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에 많은 제자를 삼았지만 핵심 멤버 12명의 제자를 삼았다. 결국 12명의 제자 중 하나만 주님을 배반하고 나머지 11명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였다.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리더의 목적이다.

넷째는 봉사이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소그룹 리더로 훈련된 사람은 사역할 수 있

고 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목양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봉사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때때로 아픔도 있다.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조건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사도 은사나 사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갔다. 그 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몸을 굽혀 봉사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만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발을 씻기는 일까지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사흘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이다. 주님의 사람은 이처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봉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성경적 리더십의 배경

빌 도나휴(Bill Donahue)는 "성경적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역하여 세상을 복음화하도록 이끄는 임무를 말한다(엡 4:11-13; 마 28:18-20)"¹⁹⁾ 고 했다. 성경적 리더십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리더가 가져야 할 사명은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성숙한 관계 유지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요 15:5). 소그룹 리더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제하여야 한다. 소그룹 리더는 언제나 그룹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해변가 모래밭에서 자석을 굴리면 많은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다. 리더는 이 자석과 같은 힘이 있어야 한다. 소그룹 회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감을 받고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성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

19) Bill Donahue, 월로우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41.

들은 없다. 따라서 성공할 수 없다. 하여간에 소그룹 리더들은 항상 비전을 분명히 해야 소그룹 회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는 소명감과 열정이 넘쳐야 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소그룹 리더는 사람들을 이끄는 소명감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출 3:1-10; 요 21:15-17). 소그룹 리더의 기초는 소명감과 열정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부름 받았음을 믿고 자신의 삶을 불살라야 한다. 수많은 소그룹 모임에서 리더가 소명감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자리만 지키는 쓸모 없는 리더보다도 만인이 원하는 필요 있는 리더를 원하고 계신다.

셋째는 미래의 리더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리더는 지금보다도 미래의 리더들을 세우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딤후 2:2). 주안 중앙 교회는 소그룹 리더의 임기가 대개 1년으로 끝나는데 1년 후에 소그룹 리더를 찾지 못하면 교회 담임 목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은 주안 중앙 교회뿐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 목사들은 연말이 되면 기도원에 가서 새로운 리더를 찾기 위하여 기도를 한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국 기도원에서는 목사들이 머물고 있는 목사관의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담임 목회자들은 새로운 리더 즉 리더 후보들을 선택하고 훈련하여 차질이 없도록 소그룹 리더들을 늘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중 교육으로 예비 리더 학교를 개설하여 교육을 해야 한다. 항상 준비된 리더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용하신다. 따라서 좋은 리더는 미래의 리더를 만든다.

신약에서 소그룹 리더의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의 목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성경적 리더십은 무엇보다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공생애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였다(막 3:14; 눅 6:12-19).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님의 리더십을 늘 배우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사도 시대에 와서 제자들에게서 주님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 소그룹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리더십이 사도행전에서 소그룹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많은 이해를 주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따라서 소그룹 리더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바로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 13:1)”고 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제 2 절 성경적 리더십의 모델

성경에서는 다양한 리더십의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리더들의 리더십 스타일 속에서 그들의 성격을 알 수 있고 그 시대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신약은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준 예수님의 리더십과 아버지와 같은 리더십을 보여 준 바울의 리더십과 초대 교회의 리더의 대표자로서 항상 권면으로 대표되는 바나바의 친구로서의 리더십을 찾을 수 있다.

1.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인상 깊은 것은 종의 리더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요 5:37)고 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6-17). 따라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종의 리더십과 선생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종의 리더십을 보였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씩 소그룹 모임에서 삼강오륜 중에 하나인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른과 아이에게는 차례가 있다는 뜻이다.²⁰⁾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내 가족 내 민족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것은 윗사람만이 아닌 아랫사람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복음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왕으로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로 나타나고 있다. “...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26-27),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그의 모습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완전히 봉사하러 왔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본을 보여 주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의 종의 리더십은 그분의 사랑을 포함시키고 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요 13:3-5)라고 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20) 동아 출판사 백과 사전부, 동아 원색 세계 대 백과 사전, vol. 16 (서울: 동아출판사, 1993), 227.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 13:13-17). 예수님은 언제나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소그룹 리더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 최고이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선생의 리더십을 보였다. 예수님은 종의 리더십으로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끄시기도 하였지만 그의 리더십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리더십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에서 명성훈 교수는 예수님의 “리더십 십계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²¹⁾

첫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둘째, 시키지만 말고 함께 일하라(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셋째,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 하지 말라(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 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넷째, 특권 의식을 갖지 말라(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다섯째, 칭찬에 교만하지 말라(7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섯째, 직분의 명칭에 연연하지 말라(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일곱째, 영적인 관계를 계발시켜라(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여덟째,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홉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어라(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열째, 겸손의 삶을 살라(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가르치는 리더 즉 선생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 주

21) 동아 원색 세계 대 백과 사전, 16:61-62.

었다. 그는 선생의 위치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

2 바울의 리더십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가 초기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위하여 친구와 다투는 모습은 전혀 융통성이 없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삶을 관찰하여 볼 때 그의 전 생애 속에서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지를 알 수 있다.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리더십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다.

첫째로, 바울은 아버지의 리더십을 보였다.

바울의 삶에서 복음전도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얻은 결과이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바울은 아버지의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였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몬 1:10)고 했다. 세상 사람이 버린 사람을 구원시켜 주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참 아버지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바울의 아버지 같은 사랑은 그의 서신 여러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라고 했고,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아 교인들에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살전 2:7)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의 리더십은 아버지의 리더십 즉 부모의 리더십을 소유한 인정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리더십의 철학은 아버지의 마음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의 리더십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말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

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살전 2:11)라는 말이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리더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의 아픈 사람을 돌보아 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상황을 김세윤 교수는 말하기를, 바울이 갈라디아와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빌레몬에게 아버지 노릇하여 주겠다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하였다.²²⁾ 바울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리더십, 이것은 우리들이 습득하여야 할 과제이다.

둘째로, 바울은 용서의 리더십을 보였다.

바울의 리더십은 용서의 리더십이었다. 바울은 한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질타하며 나무랐지만 먼 훗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다시 그를 용서하고 믿음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딤후 4:9-11)고 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할 때 1차 선교 여행 때 실패한 사람을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였다(행 15:36-41). 하지만 먼 훗날 바울은 마가만이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고백하였다. 전에는 잘못을 지적하며 헤어졌지만 이제 그의 리더십은 용서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 바울의 용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제시한 용서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마 18:22).

바울은 다양한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리더십과 용서의 리더십은 그

22) 김세윤, 신약성경신학 I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18 (“부록: 크리스찬 리더십의 모델로서의 바울”).

의 삶에서 좋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리더십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였다. 바울의 강직한 모습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다.

3. 바나바의 리더십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행 11:24). 바나바는 그의 삶을 이름답게 살았다. 바울이 다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함께 일을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부르지 않았지만 바나바만이 바울을 불러 함께 동역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권면하여 새로운 용기를 준 것이다. 성경에서 바나바의 가문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행 4:36)라고 했다. 바나바는 21세기 목회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다. 남들이 소홀히 하는 사람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리더로 세우는 일을 하였던 위대한 리더이다.

첫째로, 바나바는 관대한 리더십을 보였다.

바나바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는 그의 주변에서 믿음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그의 리더십을 나타내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의 리더십의 모습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잘 묘사하여 주고 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꺾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다. 바나바의 헌신적인 리더십은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였다”(행 11:23). 그의 관대한 리더십의 기원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 이러한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상황들은 바나바의 리더십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둘째로, 바나바는 친구의 리더십을 보였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과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하였으나 모두가 바울을 의심하며 받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친구로 받아 주었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여 주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행 9:27).

결과적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출입을 허락받았다. 그것은 바나바가 그를 친구로 받아 주었고 바나바가 그를 보증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나바의 리더십은 버림받은 사람에게 관대함으로 영향을 주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다. 바나바의 리더십은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목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친구처럼 대하여 줌으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소그룹을 이끄는 모임에서 꼭 필요한 리더십이 될 것이다.

셋째로, 바나바는 협력하는 사람이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스테반의 죽음이 절정에 달하였다(행 7:59-60). 초대 교회의 소그룹 모임의 믿는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쉬지 않고 전파하였다. 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었다(행 11:19-22). 그것은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뜬 불뚝이 번지듯이 이방인들에게 퍼져 나아갔기 때문이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이 때 바나바는 너무 많은 무리들을 혼자 가르칠 수 없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 동안 함께 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 때 훈련받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행 11:24-26). 새로운 사역자를 찾고 만나 함께 협력하는 그들의 리더십의 모습은 아름답게 보인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바나바의 리더십 아래 있던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었다(행 11:27-30). 바나바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 용기를 주고 함께 사역하는 리더일 뿐 아니라 어려운 교회 사람들을 후원할 줄 아는 협력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바나바는 초대 교회 소그룹 모임을 이끌어 온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은 리더십에서 종합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상황적 리더십이다.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군중들을 이끄는 그의 리더십을 관찰하여 보면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 약하고 부드럽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 또한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 바나바 역시 쓸모 없는 사람을 쓸모 있는 리더로 만들고 있는 열정을 찾을 수 있다.

제 3 장

소그룹 리더십의 유형

오늘날 우리는 소그룹 리더십의 모델을 초대 교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초대 교회의 갑작스런 부흥의 배경에는 소그룹 리더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다. 초대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흥분된 리더십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리더십일 것이다. 역사적인 리더십의 크고 작은 영향을 살펴볼 때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장소의 지리적인 면을 관찰하고 그 리더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그 상황에 따라 혹은 따르는 무리들의 필요에 따라 리더십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상황적 리더십 (situational leadership)이라고 부른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원리를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23절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크리스찬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화를 잘 이해한 리더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리더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가 있다. 한 예를 들어 매주일마다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에 찾아오는 외국인 신학생과 근로자들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외국인들의 문화를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적 리더십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보여 주었다. 그 분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찾아 오셔서 징계보다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 주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바로 상황화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전해 주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성육신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은 허시(Hersy)와 블랜차드(Blanchard)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 동안 리더 이론에 의하면, 리더의 자질과 성향이 우수하면 그룹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의 이론은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상황 여건에 알맞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²³⁾ 다시 말해서,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장소에 따라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이 제일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르는 무리들의 수준이 다르면 리더 역시 그 수준에 맞추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서울에 있는 훌륭한 목회자의 리더십을 본받아 강원도 산골 농사일로 여생을 보낸 노인들에게 맞추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훌륭한 서양 목회자의 리더십을 배워서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리더십은 사역과 인간관계 그리고 따르는 자의 수준 등에 의해 4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3) Gareth Weldon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onal Approach (Illinois: InterVarsity Ptrss, 1994), 86.

24) 명성훈, 성경 속의 리더십 마스터키, 222.

제 1 절 감독형 리더십

감독형 리더십은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의 한국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리더십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민족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때때로 여자들을 수준이 낮은 상태로 보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양 선교사들을 보내 주심으로 남녀평등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아직도 남존여비 시대에 전통적인 목회를 하였던 선배들의 감독형 목회를 그대로 답습하기를 원하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있다. 이들은 모든 교인들이 항상 자신의 말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다. 이것은 앞서간 선배들의 감독형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에서는 때때로 이러한 감독형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북위 10/40창문²⁵⁾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은 다양한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였고 어떤 이들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친구도 있다. 그러므로 10/40창문 지역에서 온 근로자들은 그 상황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 진정한 권위

오늘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기 위하여 몸 관리를

25) 북위 10/40 창문이란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未)전도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북위 10/40 창문(10/40 Window)이라 함은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의 사각형 지역 즉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일본까지 포함시킨다. 세계에서 가장 미(未)복음화된 55개 국가, 30억 인구 중 97퍼센트의 인구가 바로 이 '10/40 창'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 따라서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이 지역을 복음의 전투 지역으로 선포하고 매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 부족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아이디어는 1989년의 마닐라 로잔 대회에서 언급한 것이다.

<그림1>



Online: <http://www.mission1040.net/1040.htm>.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자가 4년 전에 한국에 와서 평상복 차림으로 교회를 갔더니 모든 목회자는 정장 차림의 양복을 입고 있었다. 예배 시간도 아니고 자유롭게 만나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본 연구자 혼자만이 양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 함께 있는 교인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편안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할 수 있으면 정장 차림의 옷을 입고 교회를 갔다. 하지만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만남이 있을 때는 늘 입고 다니던 평상복 차림으로 미팅을 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인도에서 유학 온 한 목사님이 귀뜸으로 본 연구자에게 다른 한국 목사님들처럼 정장 차림을 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하다고 했다. 그들에게는 정장보다 평상복이 더 편안하였던 것이다.

진정한 권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동양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하며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 가서는 명예도 잃고 목숨도 잃는다. 우리의 진정한 권위는 우리 마음 속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 외모가 권위 있게 보인다고 다 훌륭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권위는 우리가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2. 농촌 교회 리더십

감독형 리더는 사역이 중심이 되는 평신도 리더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적당한 상급을 통하여 수준이 낮은 평신도 리더들을 이끌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감독형 리더십이다. 이러한 유형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또는 학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서민 목회를 하는 리더들에게 필요하다. 그들은 방향과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리더는 지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가야 하는 것이 상급과 칭찬이다. 불행한 것은 이러한 스타일은 따르는 무리들과 리더는 인간관계가 거의 없는 유형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인 군대의 명령 체계에서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때때로

따르는 무리가 리더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주안 중앙 교회는 매년 두 차례씩 새 생명 전도 대회를 한다. 그 때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냉장고, 텔레비전, 오디오 등 많은 상품들을 준비하지만 상품을 타려고 애써서 전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은 리더가 군중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실수이다. 이미 도시 교회들은 감독형 리더십을 배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감독형 목회를 좋아하게 되면 많은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시 교회에는 정치인, 사업가, 대학 교수, 공무원, 기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대 사회로부터 명령형의 리더십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형 리더십은 지식층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식층이 없는 농촌 교회에 적당한 것이다. 도시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리더가 독재하여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 때 갈등은 사라지게 된다. 리더를 따르는 그룹 회원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룹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만들어 지시하는 것은 리더 자신이 스스로 갈등을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많은 스트레스를 얻기 때문에 스스로 번아웃(burn out)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감독형 리더십은 많은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중요시하는 소그룹 모임에는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다.

3. 부흥회 스타일

명령형 리더십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동시에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 단순 노동을 하는 지식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지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대도시에는 적당하지 않는 리더십이다.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많은 전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명령형 리더십은 한마디로 따르는 무리를 짐승처럼 다루게 된다. 짐승을 부리는 주인은 짐승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명령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우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령형 리더십은 21세기에 사용하기 어려운 리더십이다. 하지만 지금도 종종 종교계에서는 명령 한마디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부흥회를 인도하는 대부분의 강사들이 교회 성도들을 짐승처럼 대우 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치지 않으면 설교를 하지 않고 동물들을 훈련시키듯이 연습을 한다. 물론 지식인들이 다니는 도시 교회에서는 이런 강사들이 부흥회를 인도하기에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는 상대를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리더 자신도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 분간하기 힘든 상태에 있게 된다.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 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박수치는 것만 가르치고 간다. 이러한 리더십은 과거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 온 리더십이다. 한번은 교회 헌신 예배를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였다. 강사에게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며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여 본문과 제목을 부탁드렸더니 은혜 되는 대로 그 때 가서 설교를 할 테니 본문과 제목을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잘라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리더들은 과거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대체적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리더십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감독형 리더십과 모든 의견을 들어주고 동등하게 결정할 수 있는 민주형 리더십, 그리고 의견 충돌이나 상대방과의 대결을 피하는 수동적인 자유방임형을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민주형 리더십을 선호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감독형 리더십은 인기를 잃어 버렸고 민주형 리더십은 깊은 뿌리를 내렸다. 오늘날 모든 모임은 민주형 리더십을 선호하고 있다.

제 2 절 관리형 리더십

관리형 리더십은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구역 관리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 교육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 한국 교회에 있었던 대부분의 소그룹 리더십의 예이다. 훈련되지 않은 소그룹 리더가 오랜 신앙 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권위를 담임 목사로부터 받아 자신의 교구나 지역 또는 구역을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리더십에서 필요한 것은 소그룹

26) Neal F. McBride, How To Lead Small Groups, 36-37.

리더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목회자들이 열심히 심방하여 돌보아 주며 관리한 결과로 오늘날 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밤에도 넥타이를 풀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군대로 말하면 비상시를 대비한 5분 대기조이다. 사건이 터지면 즉시 달려간다는 것이다. 관리형 리더십을 가진 한국 목회자들은 사설 경비 업체 직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리더의 자질

관리형 리더의 자질은 매우 높아야 한다. 소그룹을 통한 교회 성장은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소그룹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들은 첫째,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모든 모임의 리더는 사명감이 투철하여야 한다. 사명감이 없는 리더는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회원들을 픽업(pick up)하는 일에 은사가 없다면 얼마 가지 않아 싫증을 느끼고 그만두게 된다.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에 피아노 반주를 하는 자매가 3개월 후에 말없이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외국인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하지만 어떤 형제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외국인 소그룹 예배를 돕고 외국인을 섬기는 것을 보았다. 배가 고파하는 외국인을 만나면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은 물질, 시간, 그리고 생명까지도 바쳐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다.

둘째,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리더들에게 꿈과 비전이 없으면 소그룹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래를 내다 볼 수 없으면 남들보다 먼저 갈 수 없다. 잠언 29장 18절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다. 꿈과 비전이 소그룹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비전이 없는 리더는 따르는 무리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부흥되는 교회, 부흥되는 소그룹들의 리더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이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본 연

구자가 유학하게 된 동기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다. 199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천에서 개척을 하여 5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는지 부천시 의료보험 신우회 회원들이 본 연구자가 담임하는 교회에 등록을 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비전이 없는 목사임을 인정하고 유학을 떠났던 것이다. 외국인 소그룹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몰려오고 있다. 외국인도 한국인도 많이 오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소그룹 영어 예배에서 많은 비전을 경험하고 간다. 꿈과 비전이 있는 모임과 리더들은 그들이 사역하는 장소가 부흥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셋째, 사랑이 넘쳐야 한다. 주 안에 있는 소그룹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의 소그룹 모임에서 많은 사랑을 보여 주었다. 결국 그가 마지막 기도를 위하여 겻세마네 동산으로 떠나는 날 밤까지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의 모습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소그룹 회원들이 편하게 따를 수 있게 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 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넷째, 모범을 보여야 한다. 리더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소그룹 모임이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는 항상 자신이 24시간 동안 사각으로 만든 유리 박스 안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모든 소그룹 회원들은 리더의 영향을 받고 또한 배우게 된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하였다. 리더가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리더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기 때문이다. 브라더 로렌스(Brother Lawrence)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30년 이상을 하였다고 했다.²⁷⁾ 본을 보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소그룹 리더는 새로 오는 회원들의 모델이 된다. 외국인들이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 리더가 헌금을 봉헌하니깐 다른 친구들도 다 함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다. 리더의 기도가 능력 있음을 인정한 그룹 회원들은 리더를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의 일거수 일투족을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듯이 리더는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움직여야 한다.

다섯째,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그룹 리더는 일방적인 것보다 쌍방향으로 서로 의논하며 협력하는 것이 매우 좋다. 협력 없는 그룹, 의논 없는 그룹은 결국에 가서 서로를 불신하고 그룹을 폐하게 만든다. 서로를 불신하면 모이기를 싫어한다. 반면에 신뢰하면 서로 만나기를 고대한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고 했다. 사람은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 협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돕는 것이다. 큰 행사를 치를 때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는 서로 협력하는 일을 할 때 많은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든 기도를 할 때든 선교를 할 때든 무슨 일을 하든지 협력하는 일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여섯째, 재생산을 필요로 한다. 소그룹의 발전을 위하여 제 2의 리더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 2의 리더는 가정으로 말하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다. 리더를 한 사람 세우면 한 소그룹을 탄생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고 하여도 새로운 리더를 생산하지 못하면 리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온전한 리더이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병든 리더가 되는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리고 선교사 바울이 디모데를 후계

27) Brother Lawrence,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Springdale: Whitaker House, 1982), 37.

자로 만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임에서도 항상 후계자를 생산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떠나갈 때를 알고 좋은 후계자를 세워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일곱째,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리더의 자세는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연구는 리더 자신의 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연구가 없는 설교, 성경공부, 그리고 기도 인도는 매일처럼 틀에 박힌 일만 하게 될 것이다.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리더는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민하는 것은 바로 연구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연구는 자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2 리더의 영향력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가 좋으면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리더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으면 많은 친구를 만들지 못한다. 인간관계가 없으면 일시적인 리더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리더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때 예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리더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작용하는 가를 알 수 있다. 이 기적은 모인 무리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특히 관리형 리더십은 높은 사역 중심과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예를 든다면 교회가 이웃을 위해 하는 봉사는 헌신적이어야 한다. 가난한 이웃에 장례가 나서 그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교회가 찾아가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며 도와 주고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외국인들을 돌보는 우리의 선교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고 맺는 인간관계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인간관계는 리더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때 무리들이 가까이 오게 된다.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아닌 사람은

적은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미얀마에 7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한국에 근로자로 와 있는 미얀마 친구들에게 했을 때 그들은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서로를 많이 알게 될 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주님에게서 배우며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

3. 성숙한 리더십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관리형 리더십의 특징은 높은 사역 중심과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이다. 오늘날 리더십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윈윈전략(Win/Win)이다. 코헨(H. Cohen)은 성공적인 공동적 윈윈협상은 다른 편이 진심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윈윈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편을 신뢰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가설이 있다.²⁸⁾

첫째, 사람들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둘째, 사람들은 상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한다.

넷째, 사람들은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다섯째, 사람들은 서로의 능력을 존중한다.

여섯째, 같은 집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단의 공동 목표를 공유한다.

성숙한 리더십을 평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관리형 리더십을 지속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속적인 관리는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관리형 리더십 즉 성숙한 리더십은 상업적인 말로 판매형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객에게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고장나면 즉각적으로 서비스도 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환도 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

28) 조병창, 목회지도자론 (안양: 성결대학교 출판부, 1997), 164.

은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일이지 귀찮은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 인천 주안 중앙 교회 박응순 목사는 관리형 리더십으로 오늘날 출석 성도 2000명이란 성도를 관리하고 있다. 수천 명을 관리하는 담임 목사의 신조는 '가슴으로 무릎으로 두발로'이다. 그는 쉬지 않고 심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전형적인 관리형 리더이다. 물론 여기에 장단점은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다.

오늘날 회사들마다 관리형 리더십을 선호하고 있다. 그것은 성장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이다.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성숙한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헌신의 봉사를 하는 관리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많은 교인들이 집에서 심방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시험 때가 되면 축복의 안수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무리들 편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리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리더십이다.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적인 리더십 같지만 너무나 지치고 곧 번아웃(burn out)되는 리더십이다. 따라서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제 3 절 참여형 리더십

참여형 리더십은 따르는 무리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다. 성숙한 리더들에게는 능력은 있지만 자신감이나 열정이 부족한 무리들이다. 배운 것이 많지만 행동으로 취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다. 이 무리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1.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중요하다.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도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하기 위해 성육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일은 대화를 통하여 용기를 주어 일하게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하여 야고보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약 3:2-6).

커뮤니케이션은 건전한 인간관계, 건전한 가정, 건전한 교회를 육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나님과 그룹 사이 리더와 그룹 회원들 사이에 적절한 의사 소통이 없으면 소그룹이 침체되거나 피상적인 모임이 되고 말 것이다.²⁹⁾ 따라서 소그룹 모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 중심

참여형 리더십의 약점은 말만 많이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벳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5-17).” 이러한 리더십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리더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것은 실수를 하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므로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게 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썸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약 3:10-12).

소그룹 모임에서는 그 무엇보다 영성이 있어야 한다. 영성은 바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그룹 회원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뻐하며 있느니라”고 했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29) Bill Donahue, 월로우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102.

이나라"라고 했다.

따라서, 높은 영성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힘은 나 자신에게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3. 능동적 리더십

참여형 리더십은 능동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능동적 리더십을 가진 소그룹 리더는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 이것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명령만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늘 대화를 통하여 의논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단지 인간관계만을 위해 일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대하여 일할 수 있게 만든다. 인간은 항상 완전할 수 없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완전을 경험할 수 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움직이는 일을 하고 그룹 회원들에게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참여형 리더십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한 능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서로를 존경하고 인정하여 주고 함께 가는 것이다.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것이다.

제 4 절 위임형 리더십

위임형은 간섭받기 싫어하는 무리들을 위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모로 수준 높은 무리들이기에 이러한 그룹은 리더로부터 지시나 지원이 필요 없는 무리들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임형은 아주 적은 인간관계와 적은 사역이므로 외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리더십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다. 목적으로부터 관심을 벗어난 리더십이다.

1. 위기 극복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때때로 리더들이 그룹을 이끌어 갈 때 위기가 올 때가 종종 있다.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때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결하여야 한다. 성급한 결정은 복음 전파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위임형 리더십은 마지막 결산을 할 때 만족하지 않게 되면 서로간의 불편함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리더가 당면하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세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넘겼다. 리더보다 무리들이 더 많은 정보와 빠른 성장을 보일 때 리더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어떤 목회자는 고백하기를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그룹은 목사들이 모인 장소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문 광고란에 보면 종종 패키지 상품이 많이 나온다. 동남아 관광, 북미 관광, 중국 관광 등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다. 어떤 상품은 비행기 왕복 요금보다도 더 가격이 저렴하다. 이러한 이유를 여행을 갔다 온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인도하는 안내원보다 여행객들이 현지 물가를 비롯하여 그 곳에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안내원과 여행객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위임은 서로를 잘 모를 때가 적합하며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면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하여간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40일 광야 기도에서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쳤다(마 4장).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어떠한 위기에 직면할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2. 물질 사용권

위임형 리더십 아래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물질 관리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아무에게도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그룹이다. 필요할 때 적당하게 쓰고 절약하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물질에 대한 관리를 못하면 소그룹을 이끌어 가는

데 힘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종교적 리더가 물질에 대한 청렴결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주위 사람들이 일단 물질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 더 이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고 했다.

모든 문제는 내 것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하게 생각되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총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시 50:9-12). 분명한 것은 리더는 물질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관리권과 사용권을 가진 것이다. 물질을 잘 관리하는 리더는 물질을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2002년 7월에 태풍 루사가 경상도와 강원도를 지나간 후로 너무나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은 물질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잘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선교지에서 물질의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과 사용권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3. 자유방임형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위임형 리더십은 “가장 수준이 높은 추종자들에게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리더십은 자유방임형 스타일이다. 주님이 보여준 섬기는 리더십의 반대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했다. 오늘날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30) 명성훈, 성경 속의 리더십 마스터 키, 224.

서 인간을 섬겼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모두 섬기는 삶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임형 리더십을 보이지 않았고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그분이 보여준 섬김은 너무나 감동적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하기를 원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겸손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닥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 우편인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곳에 올려 주셨다. 크리스찬들의 섬기는 리더십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제 5 절 멀티형 리더십

멀티형 리더십은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리더십이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상황적 리더십에 가깝다. 21세기는 종합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것은 종합형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4 가지 리더십 유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감독형 리더십이다. 이것은 모든 일에 명령 또는 지시를 하며 감독하는 리더이다. 소그룹 리더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에 소그룹 회원들은 관심도 없고 의욕도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룹에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감독형 리더십은 너무 고전적이어서 흥미가 없는 것이다. 다음은 관리형 리더십이다. 리더가 모든 것에 관여하

여 확인하는 스타일이다. 소그룹 회원들은 리더가 무관심할 때 가끔씩 불만을 표하기도 하다. 여기서의 단점은 그룹 회원들이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참여형이다. 이것은 리더와 회원들이 서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고 나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회원들의 의욕을 상실했을 때 참여시켜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위임형이다. 이것은 리더가 소그룹 회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형이다. 회원들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는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 시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제부터는 멀티 리더십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1. 성서적 배경

성경적으로 멀티 리더십 즉 상황적 리더십을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그들의 리더십이 바뀌어져 간 것을 볼 수 있다.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서 배가 고프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었다. 복음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썩절 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막 2:25-26)고 했다. 우리가 소그룹을 인도하여 가는 데 중요한 것은 환경과 문화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리더 이시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마가복음에서 멀티 리더십 즉 상황적 리더십을 보여준 31 가지 그룹 리더 스타일에서 이해할 수 있다.³¹⁾

- (1) 예수님은 강하고 선교를 외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1:11,15).
- (2) 예수님은 시험받았던 소그룹 리더였다(막 1:12-13).
- (3)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내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1:16-20).
- (4) 예수님은 권위적인 소그룹 리더였다(막 1:21-28).

31) Gareth W.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onal Approach, 169.

- (5) 예수님은 교육적인 소그룹 리더였다(막 1:21).
 - (6)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1:35).
 - (7) 예수님은 전도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1:38).
 - (8) 예수님은 용서와 치료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2:9).
 - (9) 예수님은 식별력이 있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2:8).
 - (10) 예수님은 위험도 감수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2:13-17).
 - (11) 예수님은 축제를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2:18-22).
 - (12) 예수님은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2:27).
 - (13) 예수님은 인기 있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3:7).
 - (14)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을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3:31-35).
 - (15) 예수님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4:40).
 - (16) 예수님은 그룹으로 활동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5:37).
 - (17) 예수님은 소그룹들과 함께 다니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6:1).
 - (18) 예수님은 권위를 위임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6:7).
 - (19) 예수님은 그룹 회원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6:7-11).
 - (20)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소그룹 리더였다(막 6:31-42).
 - (21) 예수님은 그룹들을 불러오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6:37).
 - (22) 예수님은 논리적인 소그룹 리더였다(막 8:27-30).
 - (23) 예수님은 사탄과 대립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8:33).
 - (24) 예수님은 인내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9:14-19).
 - (25) 예수님은 종의 리더십을 보인 소그룹 리더였다(막 9:33-37).
 - (26) 예수님은 능동적인 리더십을 보인 소그룹 리더였다(막 11:15-18).
 - (27)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12:17).
 - (28)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12:28-34).
 - (29) 예수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여 주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14:3-9).
 - (30) 예수님은 그룹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14:22-24).
 - (31) 예수님은 자신의 목회를 위임하는 소그룹 리더였다(막 16:15-18).
- 바울 또한 그의 서신에서(고전 9:22-23; 10:31-33; 빌 4:12)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

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고 하였다. 이것은 바울이 멀티 리더십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2. 21세기 리더십

21세기 시대는 너무나 변화된 시대이기에 상황적 리더십을 가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21세기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고집하여도 안 된다. 얼마 전에 우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를 치루었다. 온 국민이 응원하며 하나가 되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오른 일은 과거 월드컵 역사상 없었다. 그 당시 한국 대표팀 감독 거스 히딩크(Guss Hiddink)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 그래서 거스 히딩크 리더십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의 리더십의 원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모든 선입관과 기득권, 학연, 지연, 혈연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질병을 완전히 도려낸 백지상태에서 공정한 선발과 기초 훈련 강화, 장기적 안목에 따른 일관된 팀 운영, 적절한 유머와 신뢰감 등으로 되어 있다.³²⁾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도하는 주안 증양 교회 소그룹의 리더십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 선에서 움직이면 된다. 우리는 감독형, 관리형, 참여형, 위임형 그 어느 곳으로도 치우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성서적인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다. 최고의 성서적 리더십은 예수님이 보여준 멀티 리더십이 되는 것이다. 때때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위치에서 그의 사랑과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 왕의 위치에서 높은 권위와 겸손 그리고 종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는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리더십을 보였다. 이것을 소위 멀티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3. 비전 있는 리더십

비전이란 시력, 통찰력, 그리고 관찰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³³⁾ 릭 워렌(Rick Warren)은 비전이란 “당신의 현재의 상

32) Online: <http://columnist.org/ynhp> 또는 웹진 인재제일, 2002년 7-8월호.

33) 이원설, 문영식 공저,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기독교사관의 한 견해 (서울: 신앙애

태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다”³⁴⁾고 했다. 바울은 그의 비전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아가노라”고 했다. 위대한 리더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주안 중앙 교회를 담임하는 박응순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500명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 개척팀은 가족을 다 합쳐야 20여명 안팎이었지만 그의 꿈과 비전은 컸다. 결국 5년 만에 500명을 초과했고 올해는 18주년으로 주일 출석 성도만 2000명이 넘는다. 리더는 꿈과 비전은 있어야 한다. 꿈과 비전이 없는 리더는 승리할 수 없다.

1989년 본 연구자는 경기도 부천시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초창기에는 열심히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였다. 교회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성대학교 기독교 모임도 지도하였고 부천시 국민 의료보험 신우회 성경 공부도 인도하였다. 개척한 지 4년쯤 되었을 때 한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천에 취업을 한 학생은 본 연구자가 담임하는 교회에 자연스럽게 출석하였다. 또한 국민 의료보험 신우회 성경 공부 모임에 전도되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주일마다 출석하여 세례도 받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 온 젊은이들은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것은 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리더와 소그룹 모임은 비전이 있어야 한다. 비전 없는 사람, 비전 없는 모임은 집을 건축할 때 기초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복위 10/40창문 지역과 그 곳에서 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멀티 리더십을 활용할 것이다.

출판사, 2002), 126.

34) Rick Warren, The Purpose Driven Church: Growth Without Compromising Your Message & Miss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5), 28.

제 4 장

주안 중앙 교회와 외국인 소그룹 리더들의 문제점

오래 전에 한국의 산업 발전으로 노동 인력이 필요하여 정부 차원에서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산업 연수생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 전도를 받고 한국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근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북위 10/40차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약 60만 정도라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2001년에 약 31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고, 노동부에서 조사한 불법 체류자들의 통계는 약 22만여 명이라고 하지만 거의 60만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이다.³⁵⁾

그 동안 본 연구자는 약 4년 동안 동남 아시아를 오가며 많은 원주민 리더들과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선교사 가족들을 현지에서 만나 이야기하며 그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가 보았다. 이원설 박사는 한국 교회가 세계 130여 개국에 10,0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놓고 있다고 하였다.³⁶⁾ 매달마다 그들의 생활비를 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보내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이 매달 사용되는 금액은 4인 기준으로 선교사 한 가정당 약 3백만 원³⁷⁾ 정도는 후원하여야 현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

35)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외국 노동자 의료백서 (서울: 청년의사, 2001), 103-105.

36) 이원설, 박종구, 21세기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서울: 신망애 출판사, 2001), 158.

37) 동남아시아 지역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4인 가족을 위한 선교 비용은 최소한 매달 3백만 원 정도가 지원되어야 무난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그들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자녀 교육 문제이다. 선교사 자녀가 현지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학교를 다닐 경우 학비는 1인당 1백만 원을 요한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 될 경우 2백만 원을 필요로 하고 생활비 50십만 원과 선교 활동비 50십만 원을 포함하게 되면 총 3백만 원의 경비가 된다.

는 여건이 된다. 놀라운 것은 10여명의 선교사를 만나 보았지만 매달 3백만 원을 지원 받고 있는 선교사 가정은 찾아보지 못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근로자 소그룹 모임에서 새로운 선교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북위 10/40차문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선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지금도 전과 같이 계속 현지에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지에 후원금을 보내 주고 있다. 이러한 선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리더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교에 대해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인천은 서울보다는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는 곳이라 경제적인 면과 지식적인 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신앙 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다.

제 1 절 경제적인 문제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훈련하고 리더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경제적인 면이 큰 힘이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이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많이 선교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따라서 리더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소그룹의 방향의 키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적인 풍성함은 국경선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1. 리더와 직업

인천 주안 중앙 교회는 인천과 부천 그리고 안산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서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출퇴근하는 성도가 절반 정도이다. 따라서 직업 때문에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의 책임은 불구하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도 어렵다. 리더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대부분 건축업, 요식업, 무역업, 통신 기기, 부동산업, 운송업으로 영세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기업 사장이나 간부 또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많이 있지 않다. 따라서 담임 목사는 실업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거부가 나오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십일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여 달라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사람의 숫자는 좀 모이기는 하나 거부로 활동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조그마한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들과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주안 중앙 교회 2001년 실업인 선교회 요람을 통하여 본 실업인 선교회의 통계는 자영업 40 퍼센트이고, 식당 및 가게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 25 퍼센트이고, 공무원 5 퍼센트이고, 회사원 20 퍼센트이고, 학원 강사 5 퍼센트이고, 기타 5 퍼센트이었다.³⁸⁾

따라서 많은 소그룹의 리더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음으로 교구에서 일하는 여전도사들이나 교구 목사들은 심방을 함께 갈 심방 대원들을 찾는 일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소그룹 모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근로자 그룹을 맡은 리더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외국인들의 아픔을 서로 상담하기 위하여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교를 위해 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 대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외국인 선교를 위하여 희망하는 직업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물질적인 넉넉함이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 현재로서 대학생과 주부들 그리고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으로 외국인 소그룹 리더를 만들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외국인 신학생들을 리더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 때때로 소그룹 모임이 리더들의 의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리더들 역시 가난한

38) 박응순, 주안 중앙 교회 실업인선교회 요람 (인천: 청림인쇄, 2001), 10-59.

사람들이라 교회에게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소그룹을 인도하는 한국인 리더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 사업 소개를 하여 주고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시간제 영어반을 만들어 줌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여 나아가고 있다.

2 리더와 선교

일반적으로, 리더가 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신앙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신앙과 물질 그리고 명예가 없으면 성공적인 교회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교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물질이 선교하는 데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선교 현장을 방문하는 일도, 선교지를 방문하여 원주민에게 필요한 학용품 하나 사주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과 찬송가를 공급하는 일도 다 물질에 바탕을 둔 것이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회원들이 동참해서 많은 선교를 하고 있고 교회 리더들의 헌신적인 역할은 외국인 근로자 소그룹 회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5년 전에 미얀마에서 온 토마스는 근로자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교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인천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그의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 주안 중앙 교회 선교사 숙소에서 머물게 하였는데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교회 000선교 위원장 되시는 집사님이 본 연구자를 만나자고 하여 만났더니 전화 요금, 가스 요금,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다른 곳으로 내어 보내야 하겠다고 하였다. 선교를 지향해야 하는 선교 위원장은 선교 후원금을 매달 한국 선교사들에게 송금하는 일은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었다. 많은 교회의 리더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배우고 조언을 듣고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며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절대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주안 중앙 교회의 외국인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은 토요일 오후 7시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영어 예배가 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소예배실(벤엘실)에서 드려지고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도 있다. 여기에는 선교의 열정이 있는 사람,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인 신학생들(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토치 트리리티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 정말로 외국인들을 이해하고 선교하고자 열심을 보이는 참된 리더들은 찾아보기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매 시간마다 자원하는 한국인 리더들을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며 외국인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 사람의 리더의 발걸음은 한 교회를 얻는 일이고 한 민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교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리더를 훈련하고 찾아야 한다.

3. 리더와 공동체

리더의 마음은 항상 초대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배와 기도회를 갖고 깊은 친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없으면 리더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만을 알고 남을 위해 배려할 수 없다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그룹에서 리더와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관계이다. 소그룹 리더의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위의 본문을 통하여 본 초대 교회의 모델은 주안 중앙 교회의 외국인 소그룹 모임에서 본받아야 할 과제이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에서 나타난 사건들의 내용은 9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대 교회의 소그룹은 리더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둘째, 초대 교회의 소그룹은 친교를 경험하였다.

셋째, 초대 교회의 소그룹은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넷째, 초대 교회의 소그룹은 함께 기도를 하였다.

다섯째, 초대 교회의 소그룹은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

여섯째, 초대 교회의 소그룹은 동료간의 기쁨이 가득했다.

일곱째, 초대 교회의 소그룹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덟째, 초대 교회의 소그룹은 예루살렘 근교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다.

아홉째, 초대 교회의 소그룹은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초대 교회의 이러한 소그룹의 결과는 엄청난 부흥의 결과를 가져왔다. 골든 모이스(Golden Moyes)는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회의 성장 과정을 점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³⁹⁾

①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모인 무리의 수가 한 일백 이십 명이나 되더라.”

②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③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④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39) Golden Moyes, How to Grow an Australian Church (Sipringrale: Vital Publication, 1982), 16.

⑥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⑦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⑧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 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소그룹 리더가 인도하는 공동체의 삶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매 순간마다 배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소그룹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초대 교회에서 보여준 원리를 따라가는 길이다. 이러한 우리의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 2 절 지식적인 문제점

소그룹 리더로 선택되는 사람은 무엇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좋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은 출신, 학교, 그리고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리더의 선정은 1차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지식 있는 사람을 리더로 택하게 된다. 성공적인 소그룹 발전을 위하여 리더의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리더는 소그룹 리더의 선배들로부터 자질과 신앙과 태도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1. 리더의 자질

보통 리더들은 많은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 좋다. 한국의 선거철에 돌아다니는 팜플렛을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군수 후보들을 보면 경험과 학력이 아주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이다. 신앙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경험과 학력 그리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소그룹 리더로 선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따르기 때문이다. 모든 조건

이 주어지고 물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그 소그룹이 아주 잘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리더는 무엇보다도 자질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의 문제는 리더의 자질 문제이다. 소그룹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을 리더십 (Leadership)의 영어 머리 글자 "LEADERSHIP"에서 하나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⁰⁾

① Loyalty(충성심) -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② Enthusiasm(열정) - 소그룹의 발전은 리더의 비전과 열정에 비례한다.

③ Availablity(시간) - 소그룹 모임에 우선 순위에 두고 시간을 내야 한다.

④ Dependability(신뢰성) - 하나님도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딤후 2:2)"을 좋아한다.

⑤ Evangelism(복음전도) - 영원을 구원하여 열매를 맺는 일은 소그룹의 귀한 열매이다.

⑥ Respectability(존경심) -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⑦ Servanthood(종의 마음) - 종의 도는 가장 최상의 리더십 모델이다.

⑧ Hunger(영적 갈망) - 계속해서 배우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⑨ Integrity(성실성) -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

⑩ Perseverance(인내) - 소그룹의 성장에는 시간과 리더의 인내가 필요하다.

소그룹 리더의 자질은 소그룹을 이끌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의 자질을 정리하면 신앙이 성숙한 자이며(벧전 5:3), 사랑을 베푸는 자며(롬 13:10; 고전12:25), 겸손히 배우는 자이며(대하 1:10; 시 119:66; 잠 21), 의사 소통을 잘하는 자이며(엡 4:29; 약 1:19), 권한을 위임하는 자(출 18:24-26; 딤후 2:2)이어야 한다.⁴¹⁾

리더의 자질은 리더십을 배제할 수 없다. 21세기 너무나 복잡한 사회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섬김의 리더십, 목자의 리더십 그리고 부모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다. 분명한 것은 다문화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상황적 리더십 즉 멀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다. 김세윤 교수는 이민 교회의 리더십의 최고의 방법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에너지

40) 명성훈, 소그룹 리더학교: 평신도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 13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2002), 40.

41) Ibid., 41.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였다.⁴²⁾ 세계 선교를 위하여 소그룹을 통한 최선의 방법은 멀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세계는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라인으로 세계의 정세를 이해하고 있다. 세계의 환율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리더의 자질은 멀티 리더십이 결정하여 줄 것이다.

2 리더와 신앙

소그룹 리더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앙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여도 주님 안에 있는 소그룹 영혼을 지도할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를 다 가진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도 하여 보았지만 진정으로 리더의 지식과 신앙이 젓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느꼈다. 리더에게 있어서 지식과 신앙은 함께 성장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지식과 신앙을 겸비한 리더였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행 22:3)고 했다. 결국,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의 리더십은 지식 있는 신앙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지식과 신앙을 겸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선교를 한 사람이고 또한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이다. 우리 소그룹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많은 리더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만약 리더가 성경을 가르칠 지식이 없어 기도와 찬양만 매주 한다면 소그룹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는가? 이러한 소그룹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라고 했다. 신앙은 곧 믿음이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히브리서 13장은 믿음 장이다. 믿음은 만사형통을 이루고 있다. 믿음이 있는 리더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믿음 없는

42) 김세윤, 신약성경신학 I, 12 (“부록: 크리스찬 리더십의 모델로서의 바울”).

리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 11:6).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리더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 앞선다. 우리의 소그룹 리더 중에 미얀마에서 온 한 목사는 늘 물질을 따라가는 일을 하였다. 주일마다 교회들의 초청에 재미를 얻어 설교를 하러 간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초청하는 곳이 없으면 다시 우리 소그룹에 찾아온다. 소그룹 회원들은 그를 따르지 않는다. 결국은 그는 자신의 소그룹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제일 우선하여야 한다. 소그룹 리더에게 있어서 물질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다.

3. 리더와 말씀 연구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다. 이 시대는 물질적인 것에 목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다. 주안 중앙 교회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원을 처음 개원하고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35명이 순식간에 등록을 했고 계속하여 등록을 하겠다는 성도들이 있었다. 어떤 남전도회 회원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회원을 확보하여 리더를 초빙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가르치는 리더가 말씀을 은혜롭게 가르치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리더는 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라고 했기 때문이다.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모든 지식과 예언은 없어지고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모든 것은 들에 풀과 꽃처럼 시드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시 119:89)라고 했다. 진정으로 리더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

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찌니라”(신 6:6-9).

리더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리더의 양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단지 리더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 리더가 인도하는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 공부는 적어도 5가지 정도의 유익을 준다.⁴³⁾

- ① 소그룹 회원들로 하여금 규칙적인 성경 공부의 습관을 갖게 한다.
- ② 개인적인 깨달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해 준다.
- ③ 서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 ④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루어 준다.
- ⑤ 그리스도인을 무장시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한다.

성경 공부를 통한 소그룹 리더의 활동적인 움직임은 소그룹 회원들의 삶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방향을 제시하여 줌으로 갈등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년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최선의 무기가 된다. 오스왈드 스미스(Oswald Smith) 목사는 어린 아기는 매일 우유가 필요하듯이 크리스찬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06년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나서 일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읽었다고 했다.⁴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등불이다.

제 3 절 신앙적인 문제점

오늘날 소그룹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그룹 리더들의 신앙 문제 때문이다. 소그룹 리더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중심 생활을 하여야 한다.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내적으로는 예수가 없는 생활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43) 한국대학생 선교회, 순모임, 이렇게 한다: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법 (서울: 순출판사, 1988), 12-13.

44) Oswald J. Smith, The Man God Uses (Ontario: Welch Publishing Company Inc., 1984), 70.

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 있는 사람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기도, 영성, 전도, 예배가 있어야 한다.

1. 리더와 은사

주안 중앙 교회 소그룹 리더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담임 목사가 개척 초기부터 은사자들의 모임인 은사 기도회를 만들었다. 권사와 집사 그리고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은사 기도회는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다할 때 소그룹의 부흥은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소그룹 리더는 많은 통찰력을 소그룹 회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빠른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은사 없는 리더들은 원칙만을 주장하기에 소그룹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 개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는 신앙 성숙에 큰 힘으로 작용한다. 특히, 일 년에 한 차례씩 은사 테스트⁴⁵⁾를 통하여 숨어 있는 은사들을 찾아주면 리더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안 중앙 교회 교역자 리더로서 활동하는 목회자들도 개인적으로 교회 성장 연구소⁴⁶⁾에 찾아와서 이러한 테스트를 하고 나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외국인 리더 또한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면 각종 기도회를 참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은사 확인이 된 리더들은 은사를 확인하기 전보다 두 배 이상 열심히 일한다. 은사는 리더 자신들에게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의 은사이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사랑의 은사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랑의 은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

45) David Sherbino, *Foundations Of Christian Living*, A-9 ~ A-19.

46) 교회 성장 연구소는 2001년 8월부터 본 연구자가 주안 중앙 교회 교회성장 연구소 실무자로 부임하면서 교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교역자 관리 및 상담, 문서 관리, 그리고 교육의 방향 설정을 돕고 있는 교회 조직 속에 있는 부서이다.

2. 리더와 영성

주안 중앙 교회 소그룹 리더들은 많은 기도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여도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주안 중앙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성 발전을 위하여 하는 프로그램은 기도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은사 기도회, 매일 영시 기도회, 매일 저녁 9시 실업인 기도회, 담임 목사를 위한 목양 기도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철야 기도회이다.

특히 금요 철야 기도회는 담임 목사가 일년 52주 내내 설교를 하고 안수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금요 기도회의 뜨거운 찬양과 설교 그리고 기도회 순으로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이 때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리더들은 문제의 해결과 영적인 힘을 이 기도회로부터 얻는다.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모두 토하여 넘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성경 공부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많은 힘을 얻지만 주위 성도들이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을 따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 속에서 새 힘이 솟는 것을 느낀다. 한 주간 쌓인 많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금요 철야 기도회 시간은 약 300-400여 명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개인적인 문제, 소그룹의 문제, 그리고 가정과 나라의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다.

소그룹 리더들의 영성을 위하여 외국인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영성 훈련을 한다.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이 훈련은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⁴⁷⁾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단계는 지적인 면에서 정적인 면으로 전환하도록 도움을 준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성경 본문 내

47) 엄복용, 꿈에서 주님을 만나라, 19-20.

용을 그림으로 그려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성경 본문의 그림으로 들어가는 단계이다. 본문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림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야 한다. 자신과 동일시하는 과정이다. 말씀으로 흠뻑 젖어버리는 것이다. 우산 없는 아이가 비 내리는 운동장에 서서 비를 맞으며 빗물의 느낌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만약 비 오는 그림책이나 비 오는 장면을 영화에서만 보고 있다면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직접 들어가서 느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본문의 그림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정하는 단계이다. 삶 그 자체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하셨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대화를 시도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영성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주님에게 반응을 보이는 대화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위의 4단계를 이해하고 연습하면 리더의 영적 생활은 만족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을 우리 소그룹 경건회 모임에서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리더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 영성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이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은 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 외국인 소그룹 모임에서 축제의 순간이 되는 것이다.

3. 리더와 전도

주안 중앙 교회의 외국인 리더들은 항상 전도에 관심을 가진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전국을 다니며 자식을 찾듯이 소그룹 리더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그룹 부흥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또한 전도는 지상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소그룹 리더들이 일 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모임은 한 달에 한번씩 전철역이나 버

스 터미널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도지와 직업소개 카드 그리고 음료수를 준비하여 길거리를 헤메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서로 마시며 친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나눈다. 결국 이들을 주일 소그룹 모임에 초청을 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 때때로 개인 명함을 전해주는 데 명함에 있는 내용은 교회 이름 및 소그룹 리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업 알선, 숙소 제공, 해외 전화 및 우편물 서비스, 의료 상담을 도와 줌으로 북위 10/40창문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전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소그룹 리더들은 항상 국경일이 언제인지 알아 그들이 가보지 못한 지역, 즉 용인 에버랜드, 서울 롯데월드, 서울대공원, 인천 월미도, 인천 영종도, 일산 호수 공원, 강원도 설악산 등과 같은 지역을 데려가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보여 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안에 하나됨을 알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

4 리더와 예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였다고 하여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분명한 것은 리더는 곧 소그룹 예배의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가 예배를 인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소그룹들을 이끌어가는 데 많은 힘이 든다. 소그룹 리더의 예배 인도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소그룹 리더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여전도사는 교인들이 예배를 인도할 줄 몰라 소그룹 예배를 혼자서 수십 집을 돌면서 인도한다고 실토하는 것을 보았다.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할 수 있다. 그 중에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이다. 소그룹 리더가 정성을 다하여 소그룹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 그 무엇보다도 낫다. 소그룹에서 말하는 예배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있다.⁴⁸⁾ 전자는 주일 대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적인 예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교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소그

48) Obaja Tanto Setiawan, 세계 교회는 G-12로 간다, 임종혁 역 (서울: NCD 출판사, 2000), 28-29.

룹 예배는 교회 밖 지역에서 소그룹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인 친교를 가질 수 있다. 이 때 소그룹 리더는 인생의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 형제와 자매로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대그룹에서 얻지 못한 것을 소그룹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리더는 두 종류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대그룹 예배는 담임 목사님의 소관이 고 소그룹 예배는 소그룹의 리더의 소관이지만 이 모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두 종류의 예배는 독수리의 양 날개와 같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강력한 두 날개가 없다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⁴⁹⁾ 하나님의 교회 역시 두 그룹이 예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기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 부흥은 소그룹 리더를 통한 소그룹 예배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 4 절 지역적인 문제점

주안 중앙 교회는 약 250만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지역적인 문제로 장애가 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 수단과 주차장 문제이다. 노년층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위하여서는 교통 수단을 마련하여 주어야 하고 젊은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족과 함께 교회 오고 싶지만 주차장 부족이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소그룹 목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 교회 주변의 인구

주안 중앙 교회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위하여 많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02년 3월말 인천광역시의 지역별 지도⁵⁰⁾를 통하여 보는 인구는⁵¹⁾ 총 2,573,200이며 구별로 보면 계양구/340,855 서구/349,655 부평구/555,802 남동구/408,344 연수구/260,659 동구/75,306 중구/74,106 강화군/66,609

49) Obaja Tanto Setiawan, 세계 교회는 G-12로 간다, 28.

50) Online: http://www.chosun.com/feature/2002/local_name/inchon.

51) Online: http://www.yestelkorea.com/submain02_06_map003.htm.

용진군/14,045 등이다.⁵²⁾ 외부적으로는 남동구가 부평구 남구에 이어 인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하지만 교회의 주변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안 공단 지대와 도로에 즐비한 상가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석하는 성도들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은 편이다.

주안 중앙 교회 교회 출석 성도의 70퍼센트인 1400명 성도는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안 중앙 교회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구부터 기록하여 보면 남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서구, 중구, 동구, 기타 순이다. 특히 새벽기도 교인은 남동구 관할인 간석동과 주안동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70퍼센트이다. 주안 중앙 교회 전도 특공대의 설 새 없는 전도로 교회 옆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와 우성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 차량 운행으로 참여하고 있다. 장년 1300명 교구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30, 40대가 제일 많지만 주일 예배를 제외한 교회 예배 출석률은 전체 성도 중에서 노인들(50대 이상)의 출석률이 가장 높다. 그들이 50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40대, 30대 20대인 청년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안 중앙 교회의 새벽 기도의 경우 노인층이 대부분 자리잡고 있다. 그 이유는 담임 목사가 개척 초기부터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설

52) Online : <http://www.inpia.net:8181/INPIA2000/statistics/main/pdf/2.pdf>.

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30대이다. 30대의 성도들 중 남성은 과중한 일과에서 오는 피곤으로, 여성들은 아기들 때문에 새벽기도를 거의 못한다. 몇몇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결혼 문제 장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는 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교회를 자주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50대가 넘는 노년층 성도들이다. 이들은 언어의 문제가 있음으로 외국인과 접촉을 꺼리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주일예배만을 출석하니 외국인 소그룹 모임을 후원할 수도 없고 후원의 동기를 갖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2 교통 수단

주안 중앙 교회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4동 617-10이다. 아래 지역 지도에서 보듯이 누구든지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는 교통 지역 안에 있다. 대중 교통 지역으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첫째, 교회는 간석 역에서 2분 거리에 있다. 이것은 장거리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전철을 이용할 경우 정확한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올 수 있는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경인 고속도로 가좌 인터체인지와 도화 인터체인지가 10분 이내 거리에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및 수인 산업 도로와 경인 산업 도로 역시 15분 이내에 교회 앞 도로로 잘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누구나 쉽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다. 또한 여러 버스 노선이 함께 있어서 대중 교통 수단으로는 쉽게 올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 교회를 방문할 때 어려움 없이 쉽게 찾아온다. 서울에서 오는 외국인들도 간석 역에서 2분 거리에 있음으로 불편함이 없이 쉽게 찾아온다.

둘째, 교회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인천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교회의 크고 작은 버스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정기적인 예배와 특별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특별한 세미나 기간은 전 지역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 모든 교인들의 70 퍼센트가 아래 지도⁵³⁾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로부터 2.4km 반경 안에

53) Online: http://www.knto.or.kr/cgi-bin/LEGEND/korea_i.cgi?CITY=인천광역시.

있기 때문에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나 예배 출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가 얼마만큼 역할을 다하느냐가 교회의 부흥을 좌우한다. 뿐만 아니라 대그룹을 이끄는 담임 목사의 메시지 가운데 비전 심어 주기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3. 교회와 주차장

한국의 도시 교회들은 주차장 문제로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주안 중앙 교회 역시 주차장 문제가 없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간석역 앞 개천을 인천광역시에서 공사를 하여 새로운 길과 주차장 공간이 많이 생겼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여 교회에서 500미터 떨어진 석정 여자 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교회 옆에 주차장이 없으니 교인들이 늘 불편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으로 인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5-6분 걷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와 주차장은 이동이 편리할수록 처음 온 성도들이 다시 오고 싶어한다. 따라서 기존 신자들에게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니



<그림3>

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도록 늘 홍보를 한다. 하지만 여성 성도나 초신자들은 교회 앞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

교회에서 지원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교인은 500여 명이 되고 있다. 이 인구는 출석 교인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운전 봉사자들이 부족하여 예배 시간마다 교역자들이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소그룹 모임을 위한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차량 운행은 특별한 모임이나 약속을 하였을 때 임시 수송 차량 담당 교역자가 운행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예배 전에는 스스로 오고 예배 후에는 운행을 하여 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5,000원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4 교회와 새신자

주안 중앙 교회는 매주 전도 특공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매 주일 평균적으로 새신자가 보통 10명씩 등록하고 있다. 특히 새신자부 7대교구는 교구 담임 목사, 교구 여전도사, 훈련된 전도대가 협력하여 새신자 양육과 전도 그리고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7대교구가 새로 활동하기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되었는데 이미 8개의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7대교구는 일정한 지역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 오는 신자는 모두 7대교구 그룹에서 정착을 시킴으로 지역의 한계를 넘어 활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교구들은 지역의 경계를 정하였지만 새신자 그룹은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전도 특공대의 활동은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때때로 전도하는 데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핸드폰으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전도 특공대는 다양한 전도지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들을 위한 전도지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외국인 소그룹 지역의 한계를 넘어 활동하고 있다. 주안 중앙 교회에 나오는 외국인은 여러 지역에서 오고 있다. 양평, 의정부, 광명, 수원, 서울과 인천 지역은 부평, 동암, 주안, 남동 공단 등이다. 어떤 외국인들은 3시간 이상 시간을 소비하며 4번 이상 전철과 버스를 바꾸어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 친구된 우리의 관계성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주안 중앙 교회는 해외 선교부를 만들어 해외에 선교지와 국내에서 교회에 나오는 외국인 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선교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주일 11시 대예배에 초청된 외국인은 2층 외국인 자리에 앉아 헤드셋을 통하여 담임 목사의 영어 설교를 들을 수 있다. 1000명의 성도들과 함께 경건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예배 후에 그들 스스로 간증하기를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했다.

제 5 장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구조를 통한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소그룹의 개척은 “기존의 한 교회가 다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누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회중을 형성하는 행위이다.”⁵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서양 사회에서 6년 동안 유학과 이민 목회를 경험하고 1999년 1월에 한국에 와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소그룹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보였을 때 동료 목사님의 인도로 외국인 소그룹 모임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불신 근로자들을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둘째로는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신세대들에게 지속적인 영어 교육을 하여 좋은 리더를 찾는 데 있고, 셋째는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켜 원주민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다.

제 1 절 외국인 소그룹의 비전

외국인 소그룹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지상 명령과 새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일이다.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것에 대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수업에 대한 인내는 선교를 통하여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54) Charles L. Chaney, Church Planting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Wheaton: Tyndale, 1991), 55.

1. 외국인 소그룹의 목적

외국인 소그룹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21세기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할 선교사들 즉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북위 10/40차문 지역의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에 순종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 추수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마 9:38)고 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발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아무리 자랑해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 받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상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추수할 일꾼이 되지 못하면 추수할 일꾼을 돕는 사람이라도 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근로자들의 숫자가 2001년 4월까지 51만 3700명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⁵⁵⁾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다 합하면 약 60만의 외국인들이 매주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찾아가는 나라와 지역의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근로자로 또는 유학생으로 들어와 상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선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 외국인 소그룹 교회 설립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는 세계화의 추세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순수 단일민족으로 하나의 언어, 문화, 민족으로 외부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근로자들이 몰려왔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터에 우리의 형제들을 보내 피를 흘리며 달러를 벌어들였다. 더 말해 본다면, 뜨거운 증동의 나라에 우리의 선배가 근로자로 갔다. 남미에는 농사꾼으로, 독일에는 광부로 간호원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가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근로자로 들어오고 있다. IMF로 어려운 경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기

55) 국민일보, 2001년 5월 29일자, 화요일.

때문이다. 이러한 무리들은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들이어서 교회에서 보호하여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년 전부터 많은 교회들이 세계화의 움직임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모든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예배와 영어 성경 공부를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21세기 선교 영어 프로그램으로 교회 안에서는 Christian Mission School(CMS) 또는 English Mission School(EMS)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조기 영어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 있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인 예배 참석자들을 위한 영어 동시 통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시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국인 소그룹 교회를 통하여 영어 예배를 설립하는 성서적 이해는 2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 주시는 철학적 교훈이다. 첫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이행하는 일이고, 둘째는 주님의 대 계명(the great commandment)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 즉 지상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주신 권세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했다(마 28:18-20).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과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라 했다(눅 24:46-48).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증인이 되리라고 했다(행 1:8). 소그룹 교회 개척자의 마음과 자세는 항상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의 대 계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일 것이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웃을 돌아보는 선

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상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리더는 모세처럼 수십만의 대군을 이끄는 리더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갈 리더를 찾는 것이다.

3. 소그룹의 십계명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10계명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명을 지키면 잘되고 거역하면 어려움을 당하였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이 계명을 지켰다.⁵⁶⁾ 소그룹의 십계명 또한 리더로부터 그룹 회원들에게 심어 주는 비전은 엄청난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다음 소그룹 십계명은 세자르 카스텔라노스(Cesar Castellanos)의 소그룹 십계명에 근거를 두고 있다.⁵⁷⁾

첫 번째 계명: 소그룹 비전을 사랑할 것이다. 소그룹 비전을 사랑하는 것은 리더와 소그룹 회원들에게 꼭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으로 소그룹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2-3). 이처럼 사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랑은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두 번째 계명: 소그룹의 비전으로부터 벗어나지 말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각 교회들은 자신들의 지역적 특성과 교육 수준 그리고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받아들여 교회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특히 소그룹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프로그램과 접목을 시키지 말고 한 시스템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좋다.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하면 성도들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 본 연구자가 함께 일하고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뜨거운 기도회 인도가 교회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다.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회는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가정의 문제를 가진 사람, 피곤한 사람 등 여러 종

56) Cesar Castellanos, G-12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295-6.

57) Ibid., 296-306.

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간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단순 하기에 기도회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그룹의 지속적인 사역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담임 목사님은 언제나 한 가지 찬양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를 매주 반복하여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경험한다.

세 번째 계명: 소그룹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지 말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셨다. 그는 다락방 강론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였다. 소그룹은 수고하는 만큼 결과가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가 포도나무에 많은 과실을 기대하였다. 훈련되지 않은 농부는 적당한 “과실을 맺게(bear fruit)” 되는 것이다(요 15:2). 하지만 농부가 체계적으로 포도 농법을 잘 알고 실천한다면 “더 과실을 얻게(more fruitful)” 될 것이다(요 15:2).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조직적이고 말씀의 지식과 비전을 소그룹에 제시한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한 포도나무가 아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조직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과실을 많이 맺게(bear much fruit)”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요 15:5).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좀더 체계적으로 모든 소그룹 회원들을 총동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네 번째 계명: 매주에 한번 이상 모이기이다. 소그룹의 가장 강한 특징은 주일 외에 자주 모여 서로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그룹의 모임은 개인적인 정보 교환이 자유롭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협력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된다. 사도 행전 10장에 소그룹 리더인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소그룹 부흥회를 하였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행 10:44-46)고 했다. 소그룹의 활동은 교회가 살아 있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계명: 소그룹은 가정의 회복을 도와야 할 것이다. 소그룹의 모임은 배움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정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성도들 즉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부모와의 관계, 형제간의 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그룹 회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을 얻고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은 정보를 얻는 것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여 줌으로 성령의 역사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소그룹 모임의 이점은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치료받고 나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가정의 회복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계명: 소그룹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그룹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소그룹 회원 모두가 리더가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훈련이 힘들다고 군 하부 조직의 리더인 소위가 되지 않고 평생 동안 훈련생이나 병사로 남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소그룹 회원 전원을 리더로 바꾸어야 한다.

일곱 번째 계명: 소그룹의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소그룹의 지속적인 모임을 위하여 거룩함은 아주 중요하다. 거룩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고 그 다음은 소그룹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지켜져야 한다.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짓는 일이 일어나면 소그룹의 생명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죄를 아니 질 수도 없으나 만약 죄가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야 한다. 죄에 무던 감각을 가진다면 아간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수 7장).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에게 말하고 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증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증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수 7:13). 하나님은 성결을 좋아하신다. 따라서 소그룹은 항상 성결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여덟 번째 계명: 다른 사람이 세운 터에서 일하지 말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롬 15:20). 3년 전에 태국 북쪽 지역에 있는 치앙마이 근교에 5000명 규모의 리조트 건물 8동을 임대하여 원주민 신학교를 세웠다. 이 때 원주민들을 지도할 리더가 필요하여 사람이 부족하여 한국 목회자 한 분을 책임자로 보내었다. 본 연구자가 6개월 간 복음의 황무지에 복음의 씨를 원주민 청소년들에게 심어 놓은 곳을 나중에 도착한 목회자가 모든 것을

방해하고 리더 훈련소인 신학교까지 폐쇄하고 말았다.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리더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터에 가면 방해가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발전하는 소그룹은 타 교인을 불러오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로 조직하고 외부에서 리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소그룹 내에서 리더를 생산하는 것이 낫다.

아홉 번째 계명: 소그룹 안에서 험담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이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다. 항상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소그룹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 소그룹 안에서 험담이 오고가면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리더와 소그룹은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도와 주는 것이 최고이다. 험담과 불평은 아니할 수 없겠지만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보고 험담하기보다는 감싸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리더 자신이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때 대그룹과 소그룹을 이끌어 갈 비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열 번째 계명: 전략적 목표를 발전시킬 것이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소그룹 리더와 막연하게 일하는 소그룹 리더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리더는 일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수적인 목표 인원까지 세울 때 소그룹 회원들은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계획이 없는 소그룹 모임은 더 발전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회원들이 모여야 할 필요성도 상실하게 된다. 소그룹 몇 가지 규정을 정하여 매주 점검하고 실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① 소그룹의 비전이 유지되고 있는가?
- ② 육체적, 영적, 정신적 상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③ 소그룹 활동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 ④ 새로운 회원 영입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가?
- ⑤ 충분히 새로운 소그룹 분가를 고통 없이 할 수 있는가?

이상과 같은 소그룹 십계명은 외국인 소그룹 모임에서 단단한 체계를 세우는 기초가 되고 있다. 한 나라가 있으면 법이 있듯이 가장 작은 공동체의 모임이라도 규칙이 있으면 모든 회원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4 외국인 소그룹 선교 실현

우리의 비전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근로 소득이 낮은 동남 아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국가의 외국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외국인 소그룹 교회의 비전이 실현된 것이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리더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의 비전 둘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 주신 각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돕고 섬기며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세례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우리의 비전 셋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하여 현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그들의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여 그들을 리더로 만들어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들의 나라 즉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한다.

우리의 비전 넷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장파 체불된 임금 그리고 건강을 돌보아 주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약 60만(불법 체류자 포함)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다수가 그들의 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직장, 임금,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는 중보 기도 회원들에게 이러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들에게도 이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요청한다. 모든 비전은 혼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한다. 설립 예배에 임박해서는 이 모든 비전이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제 2 절 외국인 소그룹 리더의 자격

소그룹 리더 선택은 소그룹 모임 발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을 뽑는 일은 국민들이 신중하여야 한다. 그것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훌륭한 소그룹 리더 선택에 앞서 우리는 리더가 선교의 소명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교의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아 확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

1. 선교의 소명이 있는 자

외국인 소그룹 교회의 새로운 리더는 제일 먼저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언어의 소통이 가능하여야 한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리더를 임명하기 전에 자격 조건을 철저히 심사한다. 먼저 본 교회에서 충실히 봉사하고 있다는 교회 기관 및 지역 담당 목회자로부터 추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

초대 교회는 제비로 리더를 뽑았다.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본인 스스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다가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으면 소그룹 리더 학교를 입학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한다. 주안 중앙 교회는 늘 소그룹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구장 및 순장 학교란 이름으로 매년 전반기 후반기에 리더 후보 교육을 한다. 외국인은 매주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교육을 통하여 좋은 인재를 찾아 리더로 세운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 리더를 지망하는 사람은 토요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여 최소한 6개월 간은 함께 소그룹 운영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세계 선교의 열정이 넘쳐 나야 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여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외국인 소그룹 리더는 신앙 면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고 이것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양들을 맡길 수 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리더로 불렀지만 그가 주를 부인하고 갔을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결국에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내 양을 먹이라”고 했다. 구원은 무엇보다도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리더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교지 파송되어 간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원주민들을 시켜서 보석을 찾아 세공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 본국에서 보내는 선교 헌금을 받아 금은 세공하는 기계를 5백만 원을 주고 사서 공장을 세운 것을 보았다. 그 선교사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물질보다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

3 다양한 은사가 있는 자

소그룹 교회 리더는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리더의 능력은 각양각색의 은사에서 나타난다. 다양한 은사는 때때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은사가 있는 리더가 소그룹을 다 빨리 성장시킬 수 있다. 다양한 은사는 소그룹 리더에게 필요하다. 교회에서 리더가 된 사람은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소그룹 성도들을 돌보아 줄 수 있다. 일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은사를 가진 분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소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고전 9:16)” 라고 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 정부는 징병제보다 자원병 제도가 훨씬 더 나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한 과업을 위해 자원할 때 더 큰 지구력, 더 큰 실행과 우수성으로 더 큰 소유 의식을 갖는다.”⁵⁸⁾ 얼마 전에 미국은 9.11 테러 일주기를 맞이했다. 미국인들은 저마다 그 날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테러 이후 미국은 9.11 테러 용의자인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찾기 위해 많은 자원병을 받았다. 그들은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 미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크리스찬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하게 된다. 자원하는 것은 소그룹을 인도하여 가는 데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된다. 자원하는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4 선교의 전문가로부터 추천된 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짧은 기간에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나 선교 일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의 추천이 필요하다. 교회의 리더를 선출할 때 교회에 덕을 세우며 리더의 자질이 나타날 때 주위 사람들은 추천을 하게 되고 담임 목사는 그를 리더로 선출한다. 교회의 많은 소그룹 리더는 본인의 마음과 관계없이 리더로 선정될 때가 많이 있다. 교인들의 본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 리더로 추천을 함으로 이를 허락하여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해외 선교는 리더를 잘못 선정하면 막대한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된다. 따라서 리더 선출은 먼저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필리핀 선교의 경험과 그 문화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전문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리더 선발을 고려하여야 한다.

IMHA(International Mission Help Association)는⁵⁹⁾ 여러 나라를 선교하는 가운

58) George G. Hunter,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홍용표 역 (서울: 서로 사랑, 1998), 226.

59) IMHA(International Mission Help Association)는 먼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동남 아시아 지역(미얀마,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등) 주로 10/40창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교회에 초청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동남 아시아 신학생을 후

데 리더 선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함께 일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을 인터뷰하여 보면 신분에 대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을 더러 보았다. 함께 앉아서 다양한 방향으로 인터뷰하여 보면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에서 그의 미래를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번은 태국 선교 훈련 센터에 들어올 수많은 젊은이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본 연구자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본 태국인 동역자 키티퐁 전도사는 당신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자세히 인터뷰를 하느냐고 했다. 그는 태국 사회에서 인터뷰다운 인터뷰를 해 본 일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태국은 지금 복음을 전할 리더가 많지 않다. 그 동안 참다운 리더를 찾지도 않았고 훈련시키지도 않았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선교 현장에 있지만 리더들을 길러 내지 못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리더를 찾고 훈련하고 보내는 일을 쉬지 말고 하여야 한다.

제 3 절 외국인 소그룹 리더의 선교 프로젝트

소그룹 리더의 자격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 리더가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가 바로 소그룹 회원들과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각자가 맡은 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신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의 특성은 연합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앞당기는 일이다.

1. 예배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예배는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수동적인 예배에서 능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⁶⁰⁾ 예배는 소그룹 리더가 의무적으로 그룹 회원들과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정기적인 공중 예배는 담임 목사를 통하여 인도되고 이 때에 모든 교인들은 비전과 가르침을 받게 된

원하고 단기 선교사 언어 훈련 및 문화 체험 학교를 개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단체이다.

60) Robert E. Webber, Worship is a Verb (Peabody: Hendrikson Publishers, Inc., 1992), 2.

다. 이 때 얻은 영감과 감동은 다시 소그룹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 적용되고 실천된다.⁶¹⁾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는 교회에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골든 모이스(Golden Moyes)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부흥되는 비전을 발견한 것처럼⁶²⁾ 오늘날 소그룹을 통하여 드리는 외국인 예배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임의 성장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 예배는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자리가 된다.

초대 교회의 소그룹 활동의 힘은 120명부터 시작한 숫자가 10,000명(행 21:20) 이상의 성도들을 만들었다. 주안 중앙 교회 부흥의 불길이 최근 5년 전부터 정체된 것은 교회의 이전과 건축 그리고 담임 목사의 사회 활동으로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그룹 리더 훈련 학교를 통하여 제2 제3의 리더를 만들지 못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소그룹 리더는 훈련되어야 하고 훈련된 리더는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교회 안의 소그룹의 성공적 리더는 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잘 양육하여 리더로 세운다면 가까운 장래에 이슬람 지역, 불교 지역, 힌두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예배 인도자가 생산될 것이다.

한 사람의 리더 훈련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미얀마에 노으스 다곤(North Dogon) 지역에 안디옥 신학교를 운영하는 현지인 하우 목사는 만 3년만(1999년-2001년)에 80여명의 남녀 신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5년 동안 인천 남동 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야간에는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한 결과로 미얀마에 돌아가서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그는 본 연구자가 처음 만난 외국인 근로자였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2 전도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전도할 의무가 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등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상 명령

61) Obaja Tanto Setiawan, 세계교회는 G-12로 간다, 28.

62) Golden Moyes, How to Grow an Australian Church, 16.

임을 반복하여 말하였다. 특히 외국인 소그룹에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되 소가 음식물을 먹은 다음 다시 음식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하여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리더는 왜 복음을 전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늘 다음과 같은 성구를 기억하여야 한다.

(1)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 마태복음 28장 19절-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3) 누가복음 24장 47장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5)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안 중앙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매 주간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1년에 두 차례 전반기 후반기 한마음 전도 축제 기간을 정하고 전 교인이 태신자를 갖고 전도에 총력을 다 한다. 이 때 외국인 근로자들도 초청하여 교회를 알리고 선물도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물론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동시 통역 시스템을 사용한다. 한마음 전도 축제 기간은 안드레처럼 한 명 두 명을 개인적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물을 들어 올릴 때 수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왔듯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결단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따르고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는 성경에서 6가지 종류의 전도 유형을 찾아서 설명하였다.⁶³⁾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모임에서는 이 전도 유형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마다 복음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63) Bill Hybels and Mark Mittelberg,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한기웅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182-193.

(1) 베드로의 정면 대결형 접근법

베드로는 준비, 발사, 조준형의 사람이다. 베드로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는 때때로 예수님과 맞대결할 때도 있었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에도 칼을 휘둘렀다. 결국 오순절 강림 후 그의 설교 앞에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였고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는 누구도 말리기 어려운 사람이다. 하지만 베드로의 성격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을 그의 손에 맡겼다.

(2) 바울의 지성형 전도법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다. 바울이 쓴 편지가 다 그러했고 특히 그가 쓴 로마서는 지성인들이 아주 좋아할 정도로 논리적인 책이다. 따라서 학식 있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었다. 바울은 젊어서 훌륭한 가말리엘의 스승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학식은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 있는 것이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 전도는 무식한 사람들이 한다고 한지만 그렇지 않다.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3) 소경의 증거형 전도법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고 자신을 고쳐준 사람을 증거했다. 그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신학적 논쟁을 피하였다. 소경의 고백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고 단순한 언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소경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지만 복음을 들었고, 그 믿음이 이웃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고 있다.

(4) 마태의 대인 관계형 접근법

마태는 신중한 성품을 가졌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하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 마태는 직접적으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 친구들에게 그들 스스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여 많은 영향을 끼치려고 애를 썼다. 따라서 그는 오랫동안 음식과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하기를 좋아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음식을 나누는 친교의 자리가 중요하다. 소그룹에서 사람을 쉽게 부를 수 있는 자리는 음식을 준비한 잔치 자리이다.

(5) 사마리아 여인의 초대형 접근법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한 여인의 증거를 받고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무리를 예수께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췌가루를 당기는 자석의 힘이 있다. 전도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6) 도르가의 봉사형 접근법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힘든 봉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의 봉사를 많이 하였던 것 같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인이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죽어 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도법은 각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어느 것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에 따라, 자라온 환경에 따라, 세상에서 얻은 지식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멀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는 한 가지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도하는 멀티 리더가 되어야 한다.

3. 선교

소그룹 리더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자가 4년 전부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인 신학생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주일에 성경 공부를 통

하여 제자를 삼고 그들의 나라로 보내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후원한 것이 현재 까지 미얀마에 7교회를 세웠다. 미얀마 현지 교회의 이름은 바나바 선교 교회, 제자들의 교회, 신선한 교회, 별빛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새하늘의 교회, 미얀마 선교 교회 그리고 미얀마 안디옥 신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필리핀에 있는 1 교회는 바기오시로부터 4시간 정도 짜푸니를 타고 가는 곳인 라나스(Lanas) 마을에 건축을 하였다. 그리고 태국 방콕과 치앙마이 그리고 매썸 지역에 각각 올네이션스(All Nations) 교회를 건축하고 또한 캄보디아와 인도에 소그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준비가 진행 중에 있고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서 인도와 네팔에서 온 여러 명의 리더를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서 하는 선교는 국내의 외국인만 전도하고 교육하고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해외 원주민 마을에도 직접 찾아가 제자 삼아 리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첫째, 원주민 리더의 선별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리더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리더가 없는 곳에 무리하게 교회를 지으면 그 건물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외국 선교사들이 지어 준 교회 건물이 돼지 우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3년 전에 본 연구자는 필리핀 바기오 나나스 마을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마을 회당을 빌려 복음을 전한 일이 있다. 그 때 얼마나 산세가 험한지 동행하던 본 연구자의 아내는 가는 도중에 여러 번 포기를 했다. 결국 우리는 45도 경사진 산을 오르지 못하고 몸 하체에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고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숲이 우거진 밀림 지역을 빠져나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지역 칸카나이 부족 중에 한 사람 호제(Hose) 전도사는 우리가 외국인으로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다고 말하며 나나스 마을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3차에 걸쳐 이 마을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치며 리더들을 세우며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했다. 이 교회는 2001년 여름에 필리핀 바기오 지역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집과 농토를 잃은 마을 주민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였다.

매주일 외국인 근로자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친교는 소그룹 리더를 찾는 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사람은 서로 만날 때 서로를 알고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다. 10/40창문 지역에서 온 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들과의 접촉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에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기회이다. 현재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들을 잘 사귀면 현지 원주민들과 연결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리더를 1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둘째, 원주민 리더의 교육이다. 소그룹 리더 교육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만난 사람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하고 금가락지를 끼어 주는 것과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교육받은 리더는 소그룹을 인도할 때 친구처럼 성경을 가지고 서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원주민 리더 교육을 담당할 교사나 선교사는 선교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치앙마이 오천평 대지 위에 8동의 건물을 임대하여 선교 훈련소를 세우고 방콕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한 태국인 동역자 키티퐁 부부를 책임자로 세우고 일을 하였다. 그 때 키티퐁 전도사와 본 연구자 사이에 부자 관계로 활동을 하였다. 언제나 아들처럼 대하여 주었고 그들 부부 또한 본 연구자를 아버지처럼 대하여 주었다. 그들의 가정과 육신의 부모들도 만나 복음을 전하며 이들 부부는 여러분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한 일이 있다. 한 가족이 된 상황에서는 네 것 내 것이라는 개념 즉 소유 개념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사랑이 있고, 안전이 있고, 그리고 책임이 뒤따른다.

밥 로간(Bob Logan) 교수는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중에서 5가지 Show-How 훈련을 보여 주었다고 했다.⁶⁴⁾

- (1) 나는 한다(I Do) - 당신은 본다(You Watch)
- (2) 나는 한다(I Do) - 당신은 돕는다(You Help)
- (3) 당신이 한다(You Do) - 나는 돕는다(I Help)
- (4) 당신이 한다 (You Do) - 나는 본다(I Watch)
- (5) 당신이 한다 (You Do) - 다른 사람이 본다(Someone else Watch)

64) Robert Logan and Tomas T. Clegg, 교회의 NCD 잠재력을 풀어 놓아라, 정진우 역 (서울: NCD 도서출판, 2002), 59.

따라서 원주민들에게 재교육 즉 리더 교육을 할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선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언어는 최소한 영어를 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원주민 부족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원주민 리더들을 찾기 위하여 원주민 교육은 재교육을 포함하여 1년에 2번 전 후반기로 나누어 세미나를 한다. 이 때 강사는 선교 정책 선교사를 초청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한국 교회의 신실한 부흥 강사 목사를 초청하여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한다.

셋째, 원주민 교회 후원이다. 원주민 교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비용은 대부분 교회의 선교 헌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사업가들의 특별 선교 헌금을 통하여 또는 길거리 바자회에서 모은 이익금을 통하여 원주민 교회 건축과 생활비 그리고 항공료를 만든다. IMHA의 경우는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매 주일 저녁마다 외국인들을 데리고 선교 후원을 약속한 지역 교회를 돌면서 찬양과 간증 그리고 설교를 하였다. 이 때 많은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미얀마 교회를 세우는 데 협조하여 주었다. 모든 후원금은 선교의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따라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말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얀마 사람들의 보통 월급은 미화 20불이다. 우리들에게는 그리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큰 돈이다. 현지 소그룹 교회를 임대하여 세울 수 있는 비용은 한화 백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도시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보통 5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2층 규모의 건물은 1년 임대료가 200불이고 연간 목회자 생활비 200불 그리고 지역 전도를 위하여 사용할 경비 250불이면 충분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비 내역이지 현지에 파송된 미국인이나 한국인 선교사가 아니다. 아마 한국인 선교사와 외국인 선교사는 최소한 5배 내지 최대 10배가 더 들어야 선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지에 가기보다는 현지인들 가운데서 좋은 리더를 찾아 교육하여 지역의 책임자로 세운다면 30배, 60배, 100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제자 양성

소그룹 리더는 제자 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만약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 인구 60억 중에 33퍼센트에 해당하는 20억의 성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제자 양성은 바로 소그룹 리더를 길러 내는 것이다. 주안 중앙 교회는 이러한 점을 깨닫고 순장 학교를 실시하여 다음해 순장 즉 소그룹 리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한 명의 제자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의 사람을 회심시키고 있다. 한 명의 헌신된 제자 바울은 국경을 넘어 이방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다. 제자 양성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가르치는 일이다.

소그룹 리더의 책임 중에 하나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 윌로우크릭 교회(Willow Creek Church) 소그룹 생활의 4대 요소는 네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다.⁶⁵⁾ 사랑하라(Love), 배우라(Learn), 결정하라(Decide), 행하라(Do).

첫째, '사랑하라'이다. 사랑은 섬김의 기본 자세이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목회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다면 소그룹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다. 내 자녀처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잘 해 주어도 결국에 가서는 사랑보다도 미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 외국인 소그룹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구하여 주어 교회로 인도하지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25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5퍼센트는 상처를 주고 떠나간다. 2000년도에 일어난 일이다. 한국에 근로자로 온 미얀마 부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교회 당회측에 건의를 하여 부부가 살 수 있는 부엌이 붙은 방을 세를 내어 준비하여 주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직장도 소개하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척을 한국에 부르고 싶다고 간절히 사정을 하여 초청을 하는 보증까지 써 주었다.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보려고 최고의 봉사와 사랑을 주었다. 무엇보다

65) George G. Hunter,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172-173.

다 외국인 소그룹의 바람은 그들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 성경을 배우고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의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소그룹에 오지 않았다. 마침내 매달 지불해야 하는 많은 월세금을 남겨 두고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다. 교회 당회측은 본 연구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겼고 이러한 사건은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의 열정에 가속도를 내지 못한 예가 되었다.

둘째, '배우라'이다. 섬기는 자세는 다시 배우는 길이 된다. 본 연구자는 4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과 신학생들을 섬겨 왔다.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오고갔다.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을 배워서 선교지 방문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 외국인 소그룹에서 새 가족들에게 기초 성경을 가르칠 때 저들에게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

보통 주안 중앙 교회에 전도되어 온 새 가족들에게 매주일 2부 예배(오전 9:00) 후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 부서는 새 가족 관리부 담당 목사와 전도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10주로 하고 수료자는 새 가족 리더들과 1박 2일 동안 친목 수련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면 새 가족 교구인 7대교구에 편입되어 열심히 신앙 생활하게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목회 담당 목사가 교육을 하고 외국인 소그룹 회원으로 받아들여 양육하게 된다. 양육의 시간은 주로 매주 토요일 오후 7:00에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며 비전을 나눈다. 외국인 새 가족은 한 주에 한번씩은 전화를 걸어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가족처럼 상담하고 돌보아 준다.

셋째, '결정하라'이다. 섬기는 자세는 곧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단이 있어야 한다. 처음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인들이 그들을 섬길 줄 몰랐다. 명절이 되어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도 선물 하나 준비하여 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회 앞에 결정을 요청하였을 때 담임 목사와 많은 선교 위원들이 이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섬기는 자세는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2002년 6월 6일에 외국인 40여명을 데리고 용인 에버랜드에 다녀온 일이 있다. 북위 10/40창문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은 처음 보는 놀이 공원이라 모두가 좋아하

고 그들의 삶 속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담임 목사와 제직들이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와 같은 친교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된 것이다.

넷째, '행하라'이다. 모든 소그룹의 사람들은 함께 움직여 주어야 한다. 리더 혼자만이 모든 일을 다할 수 없다. 교회 일을 담임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소그룹 리더 혼자서 모든 외국인 회원들을 돌보아 줄 수 없다. 서로 서로 행동을 함께 하여야 한다. 야고보서 기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고 했다. 믿음 있는 기독교인은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행함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매년 식당에 가서 외국인들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하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번은 필리핀 형제가 더 이상 대접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말하며 자신이 대접하는 것을 보았다.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보여 주는 것이다.

제 4 절 외국인 소그룹 교회 설립 이해

오늘날 세계 경제의 힘은 국경을 초월하여 노동력을 움직이고 있다. 갑작스런 한국의 경제 발전은 노동 임금을 상승시켰고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을 동남 아시아로부터 들여와 국내 산업체에서 일하게 만들었다. 시작은 노동력 때문에 그들을 불러왔지만 결과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교의 기회를 준 것이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 설립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생명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이다.

1. 선교적 동기부여

외국인 소그룹 교회 설립은 영어 예배를 통하여 선교적 동기부여를 만드는 것이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의 영어 예배는 21세기의 일꾼들을 양성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세계화에 대

한 인식과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예배에 모여드는 전교인이 장 단기 선교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 자신이 고향에 돌아가면 지역의 리더로 복음의 추수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꿈을 갖게 한다.

2 주민의 반응

외국인 소그룹 교회가 실시하는 영어 예배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선교의 발판이 되도록 한다. 이웃 주민들의 호응은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서로를 알고 기도할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주님의 대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열심 있는 리더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서 드리는 영어 예배는 이웃과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도전 의식을 줄 수 있다. 일단 영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젊은이 그룹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때때로 서로를 알 수 있는 문화 교육으로 문화의 밤 행사를 준비하여 서로 다른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스포츠 행사로 운동회를 주최하여 서로의 친목을 가지며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는 공동체의 삶을 훈련시킨다. 이처럼 우리는 단지 영어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 스포츠 행사로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신앙으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육하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외국인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이 전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었는데 외국인 소그룹 교회 각종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하여 형제와 자매가 되어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에 참여하여 변화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참 크리스찬으로 교

육한다. 본 연구자가 인도하는 영어 성경 공부 그룹의 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지 못하는 데 영어로는 외울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이 예배는 선교의 꿈이 있는 젊은이들이 외국인들과 접촉을 통하여 각 나라별 문화적인 특징을 이해하여 앞으로 장 단기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외국인 소그룹

외국인 소그룹의 설립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인적 자원 확보와 선교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쉬지 않는 복음 전도이다. 외국인 소그룹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구하고, 현장에 달려 갈 것이다.

첫째,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서는 세계 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복위 10/40창문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연결하여 주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미래의 조직망을 만드는 일을 한다. 1999년 이후로 본 연구자가 만나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의 나라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러시아, 아프리카 콩고, 나이지리아, 중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고, 네팔,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호주, 파키스탄, 태국, 스리랑카 등이다. 국내에서 만난 사람이든 해외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을 다 친구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서로의 정보 교환을 가지고 우리가 현지를 방문할 때 도움을 받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 올 때 주일 소그룹 모임에 와서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본 연구자가 1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기 위하여 한 주간 기도하다가 외국인 소그룹 모임에 가끔씩 출석하는 필리핀 형제들을 만났다. 그리고 마닐라에 대한 사정을 묻고 안내할 사람을 요구하였다. 그 후 그들은 본 연구자가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현지에 살고 있는 그들의 친구들을 보내 처음부터 오는 날까지 잠자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안내하는 일까지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필자를 도와 주었

다. 과거 3년 동안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이 본 연구자가 필리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당시 본 연구자는 필리핀에서 그들의 집에 거할 때 아침저녁으로 성경을 가르치며 찬송을 하며 기도하였다. 그 결과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 주간 머물고 있는 동안에 소그룹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리더를 세워 모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완전한 소그룹 모임이 되진 않았지만 소그룹 모임을 통해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인적 자원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일이 되었다.

본 연구자가 또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안 중앙 교회 소그룹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 신앙이 있는 외국인은 소그룹을 인도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 회원이 되어 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소그룹 리더로 활동하는 회원은 해외 유학 및 자신의 나라의 선교사로 재 파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에게 소문이 나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신학생들은 주일이면 양평, 의정부, 서울, 수원, 광명 등에서 소그룹 영어 예배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둘째, 예산 확보이다.

인력 자원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우선 직장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시적 주거와 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보호하여 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다. 또한 제 2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하여 외국인 소그룹 교회 회원들의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준비는 기존 교회의 구성원들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 성도들은 외국인들을 섬겨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한두 번 봉사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끊임없는 홍보와 설득으로 주안 중앙 교회 당회원들과 집사들은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 외국인 선교를 위하여 기부를 하여 주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을 선교하고 돌보는 일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자는 주안 중앙 교회 아래서 외국인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나마 좋은 조건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동 공단 지역에

서 일하는 몇몇 선교 단체들은 교회의 후원을 받지 못해 선교를 담당한 책임자들의 봉급도 없는 무봉사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기존 교회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 많이 하여도 세상적으로 명분이 없는 행사에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적인 확보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해시켜서 교회로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담당 목회자의 비전이다.

소그룹 모임은 비전이 이끌어 가는 교회(vision-driven church)가 되어야 한다. 혹은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purpose-driven church)가 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구분 따라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조직하고 사역을 정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⁶⁶⁾ 자동차 운전수가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는 목적지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의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소그룹의 부흥, 교회의 부흥, 지역의 부흥, 나라의 부흥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소그룹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여 가는 데 있다.

제 5 절 외국인 소그룹 성장 과정

소그룹 성장 과정은 막 결혼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다가 세상으로 나온다. 그리고 발 대신 손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 발을 내딛는다. 후에는 걷기도 하고 나중에는 뛰기도 한다. 물론 자라는 동안에 안전을 위하여 부모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격려와 칭찬 그리고 지속적인 자극도 필요하다.⁶⁷⁾ 결국 성숙한 자녀들은 다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자연적 신체적 발전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끊임 없는 리더를 찾고 교육하고 보내어야 한다. 따라서 주안 증양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 성장 과정은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신체 발전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동시에 새로운 리더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6) 명성훈, 교회 개척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사, 2000), 46.

67) Cesar Castellabnos, G-12 리더십, 164.

1. 수태 단계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는 “글로벌 하베스트 선교회”(Global Harvest Ministry)라는 표어 아래서 기도하면서 GHM 즉 추진팀을 1차적으로 신앙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을 섞어서 리더 18명을 다음과 같이 모집을 하였다. 1차적 추진팀 구성은 적어도 설립 예배를 드리기 한달 전에는 모집을 완료하였다. 대상은 외국인 및 내국인 그리고 영어와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 모두이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신학생과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과 영어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가. 추진팀 조직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 추진팀을 조직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주안 중앙 교회 담임 목사와 의논을 하고 태국 선교지도 함께 다녀오고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토로했다.

GHM 고문 목사 : (1명) 주안 중앙 교회 당회장 박응순 목사

GHM 담당 교역자 부부: (2명) 다니엘 목사 죠이 사모

GHM 찬양팀(4명) : 리더 1명 토마스 형제

피아노 반주 1명 송진욱 자매

팀원 2명 키콩 목사 브라이언 형제

GHM 예배팀(5명) : 기도(1명) 콜로킴

헌금(2명) 신은경 집사 홍성구 집사

안내(2명) 한금지 자매 최홍연 집사

GHM 관리팀(6명) : 상담(2명) 박태순 집사 지나 자매

다과(2명) 황금희 집사 김선우 자매

행정(2명) 송일순 전도사 찰스 형제

위와 같은 조직에서 외국인 담당 교역자 부부는 감독이 되고 각 팀장들은 코치가 되고 나머지 부서의 사람들은 앞으로 무한히 성장하여 갈 소그룹 리더들이 되게 하였다.

나. 증보기도팀 운영

외국인 소그룹 교회 고문 목사 외 17명은 외국인 소그룹 교회 설립을 위하여 각자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넓게는 증보기도팀을 만들어 본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인 가족 친구 동료 타 교인에게까지 기도요청을 하였다. 증보기도팀은 목사님을 비롯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가능하게 하였다. 증보기도 부탁은 구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보기도카드를 작성하여 서약하고 외국인 소그룹 교회 담당 목사에게 가져오게 하였다. 이들의 이름은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 장소에 필요시 공개도 하였고, 물질과 함께 기도로 돕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진까지 공개하며 추진팀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도록 하였다.

다. 교통비 보조

주안 중앙 교회 재정부로부터 300,000원을 정기적으로 받아 외국인 근로자 및 신학생이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에 참여할 경우 매주 교통비를 거리에 따라 5,000원 또는 10,000원을 지급하고, 외국인 신학생이 적극적인 봉사를 보일 경우 매달 50,000원의 도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인원의 차이로 재정이 부족할 경우 바자회나 특별 헌금을 통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호소하는 기도를 하였다. 또한 교회 주일학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재정 후원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역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였고, 그들의 협조로 더 새롭고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매주일 참석하는 리더들에게 재정 후원을 통하여 교육되어지는 예비된 외국인 리더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점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장점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선별하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에 불을 집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는 장점을 보였다.

라. 직장 알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 내 형제 자매처럼 직장을 소개하여 준다.

고향을 떠나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하여 약 60만에 이르고 있지만 그 중에 절반이나 되는 30만의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단순한 직장을 알선하여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좀더 쉽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것은 또한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 팀으로서 아주 보람된 선교의 일부가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장 알선을 통한 복음 전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2 임신 단계(설립전)

외국인 소그룹 교회 설립을 위한 임신 단계는 홍보하여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그룹 준비 위원들은 외국인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홍보를 위하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게시판 또는 현수막을 이용한다.

가. 전도지 인쇄

외국인 소그룹 교회 전도지 인쇄의 목적은 1차적으로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소그룹 리더로 만드는 데 있다. 이 전도지는 1순위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되었다. 그것은 인천 남동 공단이나 주안 공단 그리고 각 지역의 공장 지역에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도지는 북위 10/40창문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중점적으로 배포하도록 했다. 또 이 전도지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도지의 내용은 모임 장소와 간단한 복음 제시 그리고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언제든지 소그룹 모임에 찾아 올 수 있게 하였다.

나. 안내문 게시

전도지 인쇄 배포에 이어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들과

영어와 세계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본 교회 신문과 주간지인 교차로와 교회 주보지 및 현수막을 통하여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세계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고 널리 알린다. 뿐만 아니라 길을 오가는 외국인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예배 시간을 알려 주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한다. 때때로 전도지, 현수막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알리고 상담도 하여 주고 있다. 외국인 담임 목사 부부는 항상 휴대폰을 열어 놓고 필요시 통역과 상담을 하고 소그룹 모임으로 모두를 부른다.

다. 문화 교실 운영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구청이나 백화점 또는 종교단체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문화 교실을 운영하여 왔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부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문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선교를 위하여 많은 기도의 후원자와 물질의 후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예배는 외국인만이 아니라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1) 영어 회화반: 매주 세계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 영어 회화를 목회자들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필자가 편집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경 영어 회화”⁶⁸⁾를 발췌하여 암송하고 그 곳에 나타난 영적 의미와 기초 영문법을 공부하는 유익하고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좋은 일꾼들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주안 중앙 교회 문화센터에서 매년 봄 가을로 2번 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교인들과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등록하여 12주를 공부하고 토요일과 주일 소그룹 모임에 출석시키고 있다.

(2) 종교 영화반: 한 달에 한번씩은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영어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종교 영화 상영을 하고 있다. 이때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이웃 주민들과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를 제공한다. 외국인이 함께하는 영화 관람 날짜와 시간은 본 교회 주보지를 통하여 한달 전에 광고되어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외국인 친구와 함께 부담 없이 와서 커피와 음료수를 마시는 문화 생

68) 엄복용, 바이블영어회화 (서울: 도서출판 조은, 2001).

활공간을 만들고 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인천 지역 사람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문화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도전 받는 영화의 이야기를 통하여) 재충전의 순간이 되도록 한다. 때때로 인천 문화 예술 회관에서 공연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티켓도 사서 외국인 소그룹 회원 모두가 함께 가서 관람하기도 한다.

(3) 영어 체험 학교: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4주 코스로 썸머스쿨을 운영한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서는 4주 중 3주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안 중앙 교회 문화 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마지막 주는 영어권 나라로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때 리더로 활동한 외국인 교사도 함께 문화 체험 선교 체험을 위해 동행한다. 2002년 여름 영어 체험 학교에서는 70여명의 학생들이 필리핀 마닐라를 다녀왔다.⁶⁹⁾ 이러한 체험 학교를 통하여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매년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 때에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부에서 실시한다.

라. 예배 준비와 행정

교회 설립을 위한 예배 준비와 행정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시작에 앞서 철저한 준비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홍보 분야는 매우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알려야 하고 또한 초청되어 온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고 해주어야 한다.

(1) 현수막에다 “환영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주안 중앙 교회에서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란 글을 제작하여 지역마다 홍보한다. 또는 추진팀이나 협력하는 목회자들이 직접 각종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알린다. 특히 홍보 요원의 자질에 관하여 명성훈 교수는 “인간적인 성실과 신뢰가 있어야 하고 단정한 용모와 차림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의사 소통, 친근감과 따뜻함 그리고 유머 감각과 미소가 있어야 하고 강요하지 않는 자세와 기술이 필요하다고”⁷⁰⁾ 기술하였다.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봉사를 하도록 노력한다.

(2) 행정 서류: 증보 기도 요청 카드, 등록 기록 카드 등은 외국인이 방문할 때

69) 월간 주안중앙소식, 제12호, 2002년 10월 13일자, 4 (“설만한 물가”).

70) 명성훈, 교회 개척의 원리와 전략, 219.

그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학력과 나라를 구분하고 자라온 배경도 간단하게 서술하도록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기도하여 준다. 소그룹 모임에 한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행정을 맡은 리더와 담임 사역자는 매주 한번씩 전화를 하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다.

(3) 불법복제가 아닌 OHP 복음송 및 찬송가 악보 필름을 만들어 예배를 준비한다. 이러한 준비된 예배는 더 나은 분위기와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 찬양은 눈으로 보는 OHP 활용이 아주 좋다. 악보와 자막이 없이 리더가 혼자서 부르면 예배에 모임 무리들이 즐겁지가 못하며 불편을 느끼게 된다. 영어 예배 시간에도 할 수 있으면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 재미있고 은혜롭고 쉽게 전한다.

마. 정기적 모임

외국인 소그룹 교회 추진팀은 GHM 담당 목사의 주도로 이미 조직된 고문 목사 외 17명의 리더들이 정기적 모임을 설립 예배 전 예배 즉 임시 예배를 가져 앞으로의 철저한 계획과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훈련을 한다. 특별히 성경 공부는 모든 추진팀에게 영어로 사영리 성경 공부(How to become a Christian?)를 철저히 암송시켜 성경책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다. 성경 21가지 요절 말씀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개발된 성경 공부 "사영리 성경 공부 교안(from Bill Bright, Four Spiritual Laws, Campus Crusade for Christ, 1965/부록을 보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바. 예배 도구들

외국인 소그룹 교회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물질적인 후원과 모든 도구들을 인천 주안 중앙 교회 당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부에게 요청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1) 시청각 도구인 OHP와 흰 칠판은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찬양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에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OHP필름에 컬러로 색깔을 칠하여 보여 주면 좋은 반응을 보이며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교지 방문을 하고 선교 보고를 할 때 컬러사진을 필름에 복사하여 보여줄 때 많은 감동을 받는다. 하여간 시청각 교재를 사용할 때 인간의 주의도는 81.7 퍼센트이고 강의를 할 때 인간의 주의도는 54.6 퍼센트라고 했다.⁷¹⁾

(2) 분위기 있는 예배당, 마이크 시스템, 피아노, 전자 오르간은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먼저 예배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기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배의 분위기를 인도하여 갈 음악인데 여기에는 찬양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악기가 필요하다.⁷²⁾ 우리가 악기를 준비하면 연주자를 구하여야 하고 연주자가 생기면 악기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악기일지라도 연주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 음악 리더는 미얀마에서 온 토마스 형제가 모든 예배 찬양을 인도한다. 그는 엠프 기타를 주로 사용하는데 복음송과 찬송가를 인도할 때 아주 은혜스럽다. 따라서 좋은 예배 분위기를 만들려면 많은 예배 도구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자가 미얀마와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도 원주민 교회에 다양한 악기와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들릴 수 있었다.

(3) 영어 성경(NIV)과 영어 찬양집들은 개인이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초신자를 위하여 각각 20여권을 교회용으로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총과 총알이 있어야 하듯이 항상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는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의 리더들은 한영 성경, 한영 찬송가를 20여권 준비하여 놓아서 처음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4) 친교비 및 외국인 교통비는 소그룹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예배 후에는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친교 시간이다. 친교는 미리 준비한 다과와 더불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리더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상담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 앞에 등록을

71) 월간목회 편,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프로그램 가이드북 (서울: 월간목회사, 2002), 3.

72)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228.

시키도록 한다. 또한 마지막에 귀가 시간에는 교통비를 지불하므로 그들이 교회를 찾아 올 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내 가족과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5) 차량과 운행 봉사자는 교회의 소그룹 리더들이 헌신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일이다. 우리의 단체 회원이나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길을 잘 알지 못할 때 꼭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이를 지원한다.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여 줄 때 외국인들의 마음이 다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 서울이나 먼 거리에서 전철을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소그룹 모임 후 교회에서 5분 정도 소요하는 역까지 동행을 하여 기도하여 줌으로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6) 외국 기독교 월간지 및 영자 신문 구독은 외국인 소그룹 교회 모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특히 소그룹 모임 리더들은 외국 문화를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배와 설교와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외국으로부터 온 도서와 영자 신문 월간지 등을 구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인터넷도 개방하여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준다.

3. 설립 단계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기간은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교회 설립 역시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주안 중앙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 설립은 5개월이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1년 전에 서울 오류동에서 소그룹이 모여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발상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소그룹 모임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모여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동남아 아시아 지역인 미얀마, 태국,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하여간, 설립 예배는 아이가 처음 태어나 온 가족이 기뻐서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듯이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며 소문을 내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신문기자도 부르고 방송국 피디(PD)도 불러 홍보하는 것이 좋다.

가. 장소, 시간, 초청

행사를 위하여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장소와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여 초청한다. 처음 인상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고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순서의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1) 장소: 외국인 소그룹 교회(인천 주안 중앙 교회) - 소그룹 모임 장소는 작은 교회가 아닌 큰 교회를 정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보다 장소가 넓은 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최첨단 음향 시설이 있어 여러모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큰 교회는 소문이 나 있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주차장이 넓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후원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성도들도 사귄 수 있기 때문이다.

(2) 시간: 2001년 9월 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 주일 오후 시간은 지역 주민과 축하를 하여 즐 수 있는 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주일은 공휴일인 만큼 비신자들은 누구나 가족과 함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오후 시간은 이미 점심 식사를 끝낸 상태이어서 주최측에서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부담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3) 초청: 초청장, 전단지 등은 제일 먼저 본 교회 주보지를 통하여 정식으로 광고를 하고 그 다음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구두로 또는 전화로 설립 예배 시간을 알려 준다. 마지막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우편 즉 DM 발송을 한다. 여기서 명성훈 교수는 DM 발송에 6가지 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⁷³⁾ 첫째, 목표 그룹을 정확히 설정하라. 둘째, 비신자의 관점으로 제작하라. 셋째, 가장 질 좋은 것으로 제작하라. 넷째,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라. 다섯째, 결과를 측정하라. 여섯째, 도착 요일이 최상의 시간이 되게 하라.

외국인 소그룹 교회 설립 예배 초청 대상자는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 지역 기관장

73) 명성훈, 교회 개척의 원리와 전략, 218.

들과 본 교회 교인 그리고 타 교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불신자 친구들을 초청하여 성대하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 방식보다는 개방된 열린 예배 방식을 따른다. 가능하면 이때 조그마한 기념품을 만들어 선물도 나누어 준다. 이유는 앞으로의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의 비전과 예배 시간 그리고 행사에 대하여 기억을 남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 예배 순서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다. 특별하게 순서를 정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한다. 사회는 GHM 회원이 하고, 영어 설교는 GHM 담당 목사가 하며, 특별 찬송은 GHM 회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고, 축사 및 권면은 외국인 사역에 덕망이 있는 목사가 하며 축도는 주안 중앙 교회 당회장 목사가 미리 준비한 영어 문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소그룹 리더 교육

외국인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친교로 모임을 시작하여 생활 속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 교육, 의료, 직업 정보 등을 주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나누며 헌신하도록 한다.

(1) 매주 소그룹 영어 예배와 성경 공부 및 친교 그리고 한글 학교(외국인을 위해)를 운영함으로써 좀더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 확실한 제자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한글 학교 시간은 각자가 나라와 언어 그리고 문화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모여 한글을 배워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영어 그룹을 만들 수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은 한국어를 통하여 또한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지만 시간과 여건상 쉽게 배울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미얀마에서 온 파우(Pau)라는 친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구두 회사에서 일하고 주일 아침 건국 대학교에 주일 한글 학교 반에 등록하여 3개월을 공부하였다. 그는 3개월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주일 오후에 드리는 소그룹 영어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이후로 한국말을 듣고 말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을 배우고 나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시장에서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

치는 것은 그들이 한국에 좀더 빨리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소그룹 책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 신학생과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⁷⁴⁾ 지쳐 있는 노동의 현장을 찾아감으로 그들에게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다. 고향을 떠나 온 외로운 근로자들에게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 목사님과 집사님들과 형제애를 가지게 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살피며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며 필요한 부서에서 리더로 일할 수 있게 한다.

(3)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에 찾아가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상담하여 외국인 의료보험 공제회에 가입을 주선한다. 외국 노동자 의료 공제회는 전국에 19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다.⁷⁵⁾ 의료 정보도 모르는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문제도 해결하여 준다. 외국인들은 매달 5,000원씩만 납입하면 일시적으로 외국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제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하여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치료하여 준다.

다. 증보기도

처음 시작하는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초대 교회처럼 증보기도와 성경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초대 교회의 증보기도의 결과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4절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같은 초대 교회 부흥의 이면에는 증보기도의 힘이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초대 교회처럼 부흥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74) Ralph W. Neighbour, 셀목회 지침서, 179.

75)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소식지, 2001년 3월 1일자.

라. 이름짓기

수태 단계에서 생각하여 둔 이름을 설립 단계에서는 공식화하여야 한다. 소그룹 교회 이름은 이웃이나 외국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 개척된 현대 교회의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공동체(community)”라는 이름을 꼭 붙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 “공동체”란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영어 표현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한국말로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무슨 무슨 공동체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는 극히 드물다. 소그룹 교회의 이름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지어야 한다. 오브리 맬퍼스(Aubrey Malphurs)의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⁷⁶⁾ 첫째,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싫어하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라. 둘째, 가능한 짧은 이름을 지으라. 셋째,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이름들은 주의하여 피하라. 넷째, 교리적인 선언을 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다섯째,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이름들을 사용하지 말라. 여섯째,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이름을 피하라.

요즘 주위를 보면 긴 이름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잔치가 있는 교회 또는 향유 내음 나는 교회, 은혜와 진리 교회 등 긴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름 중에서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 하나는 그의 이름이 2분 정도는 하여야 자신의 이름 전부를 말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외국인 소그룹 교회” 이름은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글로벌 하베스트 선교회(Global Harvest Ministry)”라는 이름을 지었다.

마. 리허설

리허설은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초청되어 온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어 다시 교회를 찾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리허설은 찬양이나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즉 안내, 진행, 시설, 봉사 등 다양한 전체를 실전인 것처럼 한번 연습하여 보는 것이다. 명성훈 교수는 리허설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4가지를 말하였다.⁷⁷⁾ 첫째, 준비 면에서 미흡한 것이 없는가를 살피라. 둘째, 융통성이 있

76) Aubrey Malphurs, 21세기 교회 개척과 성장과정, 흥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6), 451-453.

77) 명성훈, 교회 개척의 원리와 전략, 227-8.

는지를 살피라. 셋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인지 살피라. 넷째, 사람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열정이 있는지 살피라. 모든 행사의 성공은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한 것이다. 실수가 없는 예배는 연습과 준비 작업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설립 예배 준비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준비 없는 어색함은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는다. 설립 예배 전에 목록표를 만들어 하나 하나씩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할 것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이다.

4 성장 단계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쉬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그것은 변함 없는 비전 제시이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리더뿐만 아니라 교인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평신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성경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그들에게 실천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적 은사들, 열정, 기질 등등에 관하여 가르치고 그 다음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 자신의 위치를 찾아다니다가 본인 스스로 한 부서에 배속되어 섬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6가지 사역을 추진할 것이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우유로 시작하여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마음대로 먹듯이 건강한 리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일조를 할 것이다.

가. 예배 사역(Worship Ministry)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자리이다.”⁷⁸⁾ 스티븐 매키아(Stephen Macchia)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을 알기 위하여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설

78) 명성훈, 교회 개척의 원리와 전략, 250.

문 조사를 한 결과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성도들 전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다.⁷⁹⁾ 이사야 1장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마당만 밟고 감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는 구경꾼(window shoppers)이 아닌 주님에 대하여 민감한(sensitive) 반응을 보이는 체험의 예배를 만들 것이다.

건강한 교회로의 전환이란 전통적인 예배에서 현대적인 예배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쉽게 체험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형태의 예배를 오늘날 우리들은 열린 예배라고 부른다. 우리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는 열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비전을 보고, 성령의 임재와 진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예배로 만들 것이다.⁸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설교는 21세기의 설교라고 말하는 이야기와 예화를 사용하는 이야기체의 설교로 할 것이다. 일주일 내내 일터에서 피곤에 지치고 낙담하고 힘든 그들에게 죄에 대하여 경고하기보다 위로하는 내용의 설교가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6년 동안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민 목회를 하였다. 그 때 교인의 80 퍼센트가 식당에서 구멍가게에서 세탁소에서 노동을 하는 신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신학적, 교리적, 역사적, 과학적,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가 은혜를 주지 못한다. 설교자의 한마디의 말이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전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여 주고 위로할 때 그들에게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쁨의 얼굴이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설교는 길고 지루한 교리적 설교가 아니라 짧고 흥미로운 공감적인 설교가 필요한 것이다.⁸¹⁾

신약의 공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스넵사진들과 같다(마 5:25-26). 또 다른 내용들은 마치 연속되는 시리즈 이야기처럼 보인다(마 21:33-40; 22:2-14). 이것은 예수님이 이야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말해 주고 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새 교육 방법으로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복음서의 10의 9가 이야기 설교라고 했다.⁸²⁾ 따라서 외국인 소그룹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감동적인

79) Stephen Macchi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45.

80) Aubrey Malphurs, 21세기 교회 개척과 성장과정, 362.

81)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207-212.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나. 전도 및 선교 사역(Evangelism and Mission Ministry)

외국인 소그룹 교회 리더들은 시작부터 주님의 명령인 전도 사역을 잊지 않을 것이다.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은 전도와 선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때가 제자들이 말하는 녁 달 후가 아닌 지금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강조할 것이다. 지금이 전도할 때요 지금이 선교할 때임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수태 단계에서 언급하였던 우리 모임의 표어 “글로벌 하베스트 선교회”(Global Harvest Ministry)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불신자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1) 소그룹 리더는 한달 안에 지역사회의 사조직에 가입하도록 한다.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 단체에 가입 후 여러 날 후 가족이나 자신의 생일날 회원들을 초청하고 또 스포츠 게임이나 박물관 견학이나 쇼핑을 함께 다니며 가까운 친구로 만든다.

(2) 전도 대상자의 취미와 관심을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미리 전도 대상자의 취미와 관심을 알고 있다가 지역 신문이나 광고지에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행사를 할 때 함께 가서 시간을 보낸다.

(3)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동네 바자회나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가는 데 음식 요리를 위한 준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저녁을 함께 준비하여 서로 가족처럼 즐긴다.

(4) 자녀들을 통하여 접촉점을 많이 만들어서 이웃집 아이가 수영 강습, 영어 학습, 스포츠 훈련 등을 하면 함께 보내어 확실한 접촉점을 찾도록 한다.

(5)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고 문제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나 소그룹 리더에게 안내하여 상담을 받게 한다.

(6) 전도 대상자의 문화를 연구하여서 초청을 한다.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적을

82) 엄복용,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21가지 이야기 (서울: 참빛출판사, 2000), 175-6.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때때로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연구가 아닌 참다운 대화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외국인들 가운데는 음식 문화가 모두 다르다. 인도에서 온 친구들은 쇠고기를 금하고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은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다. 이들을 초청하여 햄이나 순대 삼겹살 스테이크로 음식을 장만하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고 매우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과 문화는 이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7) 기회가 있을 때 신혼부부를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점심 또는 저녁을 하고 나서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등을 보여 달라 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장래 삶의 청사진을 그려 주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여 준다.

(8) 회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여러분이 지닌 재능과 실력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전도할 기회를 찾도록 한다.

다. 기도 사역(Prayer Ministry)

사무엘이 가르친 교훈을 기억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삼상 13:23). 외국인 소그룹 교회 리더들은 항상 기도가 앞설 것이다. 그 무엇도 이 보다 더 앞서가는 생각이나 프로그램은 없을 것이다. 영어 예배, 영어 찬양, 영어 성경 공부 모임까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증보기도 회원 모집을 홍보하여 설립 이후 1년 뒤에는 외국인 소그룹 교회 증보 기도 회원은 1000명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 정기 회원이 되면 1달에 10명의 증보기도 회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로 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살길이요 부흥이기 때문이다.

밥로간(Bob Logan) 교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홉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⁸³⁾

(1)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증보 기도를 원하시고 필요로 하신다(마 6:10).

(2) 영적인 영역에서의 승리가 중요한데, 이는 기도로 얻어진다(흠17:8-13).

83) Bob Logan, 교회개혁론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76.

(3) 기도가 항상 교회의 선교 사역을 뒷받침하였고 확장시켜 왔다(행1:14).

(4)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영적 부흥들이 일선 선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다.

(5)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유업, 곧 열방을 얻게 해 준다(시 28).

(6) 효과적인 선교 전략들은 깊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구를 통해 온다(민 13:17-20).

(7) 기도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배가시켜 일선 선교지로 파송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이다(마 9:37-38).

(8) 기도는 막힌 문을 열어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게 해 준다(골 4:2-4).

(9) 공격적인 기도는 인종 그룹들과 도시와 열방을 지배하는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려 준다(엡 6:12).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아무리 기도를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기도 사역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호홉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므로 기도 없는 생활은 병든 생활이 될 것이다.

라. 조직 사역(System Ministry)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 조직은 한국의 전통적인 구역 조직이 아닌 소그룹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명성훈 목사는 “예배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앞문이라면 소그룹과 같은 조직은 사람들을 정착시켜서 붙잡는 뒷문이다”⁸⁴⁾ 라고 했다. 우리 교회는 확실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식 교인은 새들백 교회처럼⁸⁵⁾ 다음의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여야 한다. 둘째, 믿음의 공적인 표시로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새 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넷째, 외국인 소그룹 교회 교인 서약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메가 교회가 아닌 메타 교회⁸⁶⁾를 만들 것이다. 메가 교회는 한계점에 이르지만 메타 교회는 끝

84) 명성훈, 교회 개척의 원리와 전략, 252.

85) Ibid., 242.

86) 월드미션 (World Mission)의 홀러신학교 폴 히버트(Paul Hiebert) 교수는 ‘메타’는 메타볼

없는 변화를 통하여 제한 없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메가 교회는 코끼리형 교회에서 한계점에 이르고 끝나지만 메타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제한 없는 교회 즉 공룡 교회가 될 것이다. 공룡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부흥되어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꿈을 현실로 실현시킬 것이다. 이러한 것은 훈련된 리더가 운영하는 소그룹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의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마. 훈련 사역(Training Ministry)

훈련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처럼 제자를 삼는(make disciples) 일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비전이다.

(1)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는 리더를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활용할 것이다. 평신도 리더, 선교사, 목사 등을 훈련하여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보낼 계획이다.

(2)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는 제자 삼는(disciple-making) 일을 뛰어넘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자기 개발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성공의 85퍼센트를 차지하는 태도를 주의하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지식에 투자하고, 모든 역사를 일으킬 실천을 추진하며, 교회를 성장시키는 풍부한 기술을 활용하도록 도울 것이다.⁸⁷⁾

(3)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의 중심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small-groups)을 통하여 리더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러한 리더 양성을 위하여 주일 공식적인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 소그룹

리즘(metabolism, 신진대사), 메타모르포시스(metamorphosis, 변형), 메타피지컬(metaphysical, 형이상학적인)에서처럼 '변화'의 뜻을 지닌다.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메타노니아'(metanoia)는 '마음을 바꾸다' 혹은 '회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메타교회는 메가교회(초거대교회)와는 전혀 다르다. 이 새로운 명칭은 더 많은 교인수를 가진 교회를 가리키지만 그 초점은 변화에 있다. 즉 목회방식에 대해 목회자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교회가 주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Carl F. George, 80-81).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이다.

87) 명성훈, 교회 개척의 원리와 전략, 259.

(local small groups) 모임인 나눔방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소그룹 나눔방 모임은 때때로 외국인들의 나라별 모임 즉 중국 모임, 미얀마 모임, 필리핀 모임, 태국 모임 등이 되고 선교에 뜻이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연령별로 장년 모임, 청년 모임, 대학생 모임, 학생 모임이 되고 필요하다면 영어 수준에 따라 또는 지역 구분에 따라 구별된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안 중앙 교회 소그룹 모임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영어 회화 나눔방과 미얀마 나눔방 그리고 필리핀 나눔방과 인도 나눔방이 모여지고 있다. 각 소그룹의 특성에 따라 그들을 지원하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임을 인식시킨다.

바. 사도 사역(Apostolic Ministry)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제비뽑는 자리에서 그들의 기도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행 1:24-25)라고 했다. 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의 삶에서 아무런 기적과 표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제자들의 삶은 두려워하고 떨고 눈치보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생활이지만 사도들의 삶은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였다. 대개 평신도들의 삶은 그저 교회가 가는 대로 따라오는 삶이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평신도의 신앙생활을 교역자의 생활 즉 사도의 직무를 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사도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5. 재생산 단계

소그룹 교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라서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재생산을 위해 새로운 리더의 발굴과 인터뷰가 필수적이다. 때가 되어도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지 못하면 소그룹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해산을 생각하여야 한다. 때때로 기존의 소그룹을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보다 새로운 소그룹을 다시 조직하는

것이 낫다.

가. 재생산의 시기

모 교회(mother church)가 지 교회(daughter and son)를 개척할 시기가 언제가 좋은가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의 관심사이다. 밥 로간(Bob Logan) 교수는 그의 강의에서 “교회 개척은 보통 10가정이 십일조 드리는 금액”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모 교회 크기가 어떠냐와는 상관없이 지 교회가 개척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⁸⁸⁾ 대개 교회는 18명에서 150명으로 구성된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회가 온다면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여 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본 연구자가 관계를 가졌던 수원 새 중앙 교회는 설립 5주년 때에 주일 출석 성도가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필리핀 북부 바기오시로부터 4시간 떨어진 나나스 마을에 35명 크기의 교회를 하나 지어 현지인들을 위해 봉헌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다 제자들 교회를 하나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여 주었다. 그 외에도 국내에 어려운 많은 교회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교회의 담임 목사의 마음이 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정이 있다면 리더만 찾으면 얼마든지 지 교회는 세워 나갈 수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깥보다도 안쪽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자가 한번은 선교 보고 차 수원에 있는 A 교회 저녁 예배를 갔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본 연구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왜 우리는 우리나라 농촌 교회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어야지 남의 나라까지 가서 돈을 쓰며 복음을 전하느냐고 했다. 말의 요지는 ‘내 자식이 죽어 가는데 왜 당신은 남의 자식을 돌보고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그 자리에서 본 연구자는 그 분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집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는가?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선교할 것이다.

나. 개척자 인터뷰

개척자 인터뷰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인터뷰 과정에서 개척하려는 사람과 그

88) Aubrey Malphurs, 21세기 교회 개척과 성장과정, 537-8.

배우자와 부모들의 배경을 살펴보고 어디서 성장했고 교육 수준과 직업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본 연구자가 처음 미얀마와 태국의 치앙마이에 선교 센터를 세울 때 학교 후배를 인터뷰 없이 믿고 책임자로 세웠다. 그 후 2개월 후 그 선교사는 원주민 여자와 사랑에 빠져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고 가 버린 일이 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인터뷰를 철저히 하지 못한 잘못이다. 교회 개척의 실패 요인의 3가지는 잘못된 개척자 선정, 잘못된 장소 선정, 잘못된 팀 구성이다. 밥로간(Bob Logan)의 훌륭한 리더를 찾는 인터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⁹⁾

- (1) 자격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많이 접해 보라.
- (2) 적당한 질문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라.
- (3) 핵심적인 분야들에 대해 평가해 보라.
 - (가) 장점
 - (나) 필요한 기술 능력
 - (다) 성품 자질
 - (라) 정서적인 안정감과 결혼 생활의 안정성
 - (마) 신학적 이해
 - (바) 목회 철학
- (4) 기대하는 바를 확실히 하기 위해 업무 설명서를 다시 확인해 보라.
- (5) 후보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라.
- (6) 후보자들에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 주라.
- (7) 전망이 있는 후보자들에게는 2차 인터뷰를 실시하라.
- (8) 교회 개척자를 그에게 맞는 사역 대상 그룹과 연결시켜라.

새로운 리더를 잘 선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그 일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고 다음 프로젝트에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89) Bob Logan, 교회개척론, 21.

다. 모 교회(mother church)의 역할

모 교회의 역할은 평신도들을 훈련시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립되지 못한 연약한 교회들을 후원하는 역할이다. 이것은 나중에 지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필자가 동남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하여 보면 10명의 선교사가 가운데서 1명만이 자립하고 나머지 선교사들은 2년, 5년, 7년, 10년이 넘었어도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모 교회이다. 모 교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안내를 받아 교회를 개척하여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 교회의 증보 기도의 힘은 지 교회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우리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이제 설립되었으므로 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 선교하는 이유⁹⁰⁾

교회가 선교를 제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의 최고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것을 증거하여 주고 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다. 셋째로,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다. 넷째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째로, 교회의 자활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는 남을 살리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돕는 일이다.

마. 지(son and daughter) 교회 개척

90) 박종렬, 교회의 교회화와 신자의 제자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 대학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한국교회 2세기의 과제, 1986), 149-150.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는 건전하게 성장하여 2년, 3년 안에 모든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리더를 파송할 계획이다. 항상 우리는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 젊은 사람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지역의 교육기관이나 학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의 목표는 메가(mega)교회가 아닌 메타(meta)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소그룹 모임을 갖고 그곳에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비전 있는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가고, 복음화하고, 제자 삼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마 28:19-20; 막 16:15; 행 1:8). 리더는 때로는 넓게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편지를 보내고 전화 심방을 하여 그들의 영혼을 관리하여 나아가야 한다. 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지 교회를 세운다면 주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에 추수 때가 되어 추수꾼이 열심히 일하듯이 영혼 구령에 항상 붙타고 있어야 한다.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묘한 진리 중에 하나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에 있다. 선교를 하여야만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커진다. 선교하여야 한국 교회 리더들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힘이 있고 역동적이 된다는 뜻이다.

바. 원주민 교회 개척

누가 선교지를 갈 것인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오면 부르신다는 것을 믿는다.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 16:8-9)이라고 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 하나님이 선교지로 부르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우리에게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갈 수 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외국인 소그룹 교회 형제 자매가 된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들의 노동 계획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 마을을 찾아가 교회를 세우며 그들 마을 전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계획이다. 이것은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를 설립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미 본 연구자는 3년 전에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미얀마 양곤 시와 필리핀 바기오 시 그리고 태국 방콕시과 치앙마이 시에 현지인 중심으로 지 교회와 선교 훈련 센터를 세웠다.

하여간,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많은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칭찬받는 일을 할 것이다. 한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달려가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러한 사역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리더가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주민 교회 개척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어 가는 교회나 전통적인 교회를 갱신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⁹¹⁾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교수는 “하늘 아래서 유일하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다”⁹²⁾고 했다. 이러한 개척의 준비를 위하여서 앞으로의 우리의 바람은 증보기도 회원의 확장과 많은 리더들의 발굴하여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이라는 책의 저자 에드 실보스(ED Silviso)는 20세기 말에 성령께서 교회에 두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복음 전도라고 했다.⁹³⁾

따라서 외국인 소그룹 교회 설립의 방향은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선교지에 보낼 제자들(리더들)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첫째로,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를 통한 우리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도록 우리들의 교회를 깨우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억지로 그들을 보내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웃으

91) Aubrey Malphurs, 21세기 교회개척과 성장과정, 20.

92) Peter Wagn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Ventura: Ventura, 1990), 11.

93) ED Silviso,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서울: 서로사랑, 1994), 9.

로 동네로 마을로 해외 선교지로 달려 갈 것이다.

둘째로, 외국인 소그룹 교회 영어 예배를 통한 우리의 비전은 북위 10/40차문 지역의 복음 선교를 목적으로 하여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증보 기도 회원들과 더불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다. 능력 있는 기도는 나라와 언어를, 문화와 종교를, 인종과 지형을 뛰어 넘는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는 인천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21세기 세계 선교의 장을 열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비전들이 하나님처럼 커져서 많은 일을 하길 희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만들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사업이 지금은 온 세계에 계속해서 번져 가고 있다. 그 불길을 악의 세력들이 막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의 선교 프로젝트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 그 분이 도와 주실 것이다. 특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약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슬람교 지역, 힌두교 지역, 불교 지역에서 왔기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다. 이들과 매주일 손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다.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즉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소가 될 것이다.

제 6 절 외국인 소그룹을 통한 선교의 결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모임은 많은 선교의 결실을 가진다. 해외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마다 교회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봉사를 통하여 접촉점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증거된 복음은 외국인들을 통하여 국경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의 불모지에 전하여지게 된다.

1. 외국인과의 접촉점

외국인과의 접촉은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찾아 함께 나누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머리를 잘라 주는 일,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일, 영어 캠프를 만들어 그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는 일,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도와 준 일 등이다.

가. 이 미용 선교를 통하여

이 미용 선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 미용 자격증이 있는 성도들이 시간을 정하여 거리의 노인들을 교회로 초청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머리를 다듬고 잘라 줌으로 그들과의 이야기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다. 때때로 노인정 고아원 외국인 근로자들 기숙사를 방문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가끔씩 이 미용 선교팀은 동남 아시아 선교지를 방문하여 원주민들의 머리도 잘라 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한다. 실제적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들과 외국인 신학생들은 한국 사람처럼 자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팀은 이 미용 자격증을 가진 사람 즉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 선교의 목적을 이해시키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서로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 언젠가 인도에서 온 남녀 유학생들을 위하여 머리 잘라 주기 운동을 했다. 그 후 그들은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나. 외국인 한글 학교를 통하여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에서 매주일 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글 학교를 열어서 가르치는 시간을 계획하였다. 한글 학교 교사는 사범대 국문과를 졸업한 여 집사 2명을 세워서 주일 예배 후 1시간씩 가르쳤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2년 3월 말부터 2개월 동안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25만 6000여 명이 신고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밀입국자도 1만476명이 포함됐다고 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취업한 곳은 제조업체 9만명(35퍼센트), 건설 현장 5만6000여명(22퍼센트),

음식점 3만 5000여명(14퍼센트)으로 집계됐다. 이번 자진 신고자 가운데 가사 보조인은 9500여명, 농어업 취업자는 2400여명이었다.⁹⁴⁾ 많은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람들 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한국어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므로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한글 교실을 개강하였다. 생사와 관련된 한국어라 배우는 이들의 모습은 진지하고 열심이었다. 그들의 한국어 수업은 신실한 크리스찬 교사의 지도로 신앙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도 깊게 알아 가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

다. 여름 영어 학교를 통해서

매년 초, 중, 고등학교가 여름 방학 또는 겨울 방학을 하면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외국인 신학생을 초청하여 4주간 기초 영어 회화 그룹을 만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부를 3주간하고 나서 4주간 째는 현장 실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필리핀이나 태국 또는 캄보디아 등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온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영어 체험 학교 프로그램은 교회의 여름 성경 학교와 겹쳐지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호응이 있고 지역 주민들도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외국인 신학생들이 자기 고향으로 학생들을 인도하여 가게 됨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선교지 탐방이 되기도 한다. 이색적인 수업으로 교실 수업에서 현장 답사까지 떠나는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들을 흥분시키고 학부모까지 관심을 가지고 동반하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 성경 공부를 통하여

(1) 소그룹 리더 만들기

소그룹 리더를 만들기 위하여 모이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은 기존의 외국인 신자를 소그룹 리더로 만들기 위하여 지적, 영적으로 훈련하는 강도 높은 모임이다. 주안 중앙 교회에서도 아카데미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제자 대학 그룹은 소그룹 리

94) 국민일보, 2002년 6월 3일자.

더가 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졸업을 하여야 한다. 이 그룹을 인도하는 교사는 담임 목사, 담임 목사 사모, 그리고 부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기본 훈련 기간은 기초 과정이 1년 2학기인 운영되고 있다. 또한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원을 개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본 연구자가 지도하는 2년 과정 4학기 프로그램은 리더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35명이다. 그들은 가까운 장래에 세계 선교의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들이 될 것으로 믿는다. 분명한 것은 많은 제자를 삼는 것은 많은 리더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지구촌 인구는 60억 6500만 명이며 기독교인은 32.5 퍼센트인 19억 7900만 명이라고 한다. 아직도 지구상의 67.5퍼센트인 40억 8600만 명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⁹⁵⁾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소그룹 리더의 양육과 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소그룹 교회의 리더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매주 훈련되고 있는 리더들에게 큰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씨뿌리는 비유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 13:31-32)고 했다. 이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남기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은 사도행전 2장에서 현실로 나타나 오늘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초대 교회를 만들었다. 초대 교회 이면에는 바로 소그룹의 모임이 있었고, 소그룹 리더들의 역할이 큰 공헌을 한 것이다.

(2) 소그룹 회원 만들기

외국인 소그룹 회원은 교회의 기존 신자와 교인이 아닌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주안 중앙 교회 문화 센터에서 1년에 2차례 지역 사회를 위하여 문화 교실을 실시하는 데 이 때 영어 교실, 아트(풍선 만들기 및 종이 접기)교실, 스포츠 맛사지 교실 등을 개설하여 교인을 비롯한 지역의 불신자를 초청하여 12주 동안 교육하고 수료증을 준다. 또한 친교 그룹으로 조기 축구 그룹을 만들어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즉시 모여

95) 국민일보, 2002년 10월 2일자, 33 (“미션”).

서 1시간 정도 매일처럼 운동을 한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함께 우의를 다지며 축구 게임에 임한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축구 대회를 열어 이웃 교회의 축구팀들을 초청하여 함께 게임을 하며 친교를 더한다. 더 나아가서는 태국 선교지에 가서 친선 축구 경기를 하며 원주민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일도 하고 있다. 2002년 11월 21일 개막한 태국 전국 청소년 할렐루야 축구 대회는 17팀의 참가로 20일 동안 열렸다. 개막전 행사로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팀이 주관을 담당하였다. 태국의 청소년 축구팀과 태국 정부 기관의 장관들과 연예인 그리고 태국 축구 국가 대표들이 참여하는 현장 선교의 장이었다. 이 때 우리 선교팀은 좋은 소그룹 리더를 찾았고 많은 정보 교환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소그룹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공헌하는 것이다.

마. 외국인 후원을 통하여

주안 중앙 교회는 여러 종류의 후원 그룹이 있다. 그 중에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는 소그룹이 바로 상조부다. 매월 오천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가족들이 소천하였을 때 대 화환을 보낼 뿐 아니라 위로금도 전달하고 상을 당한 집을 찾아가 모든 일들을 돌보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불신자들의 가정일 경우 모든 장례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일 경우 고향에 갈 수 없으니 외국인 소그룹 모임에서 고인의 빈소를 만들어 주고 예배를 드려 주면 먼 이국 땅에서 가족을 잃은 아픔이 많은 위로가 된다.

주안 중앙 교회는 18년 동안에 급성장한 교회이므로 주위의 개척하는 교회나 해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안 중앙 교회는 선교 위원회가 있어서 선교 후원금은 전액 농어촌 교회나 해외 선교지 선교사를 돕는데 쓰여지고 있다. 선교 위원회 모임은 매달 모이며 해외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고 기도하고 교세가 확장된 지역을 위하여 교회 건축을 지원하기도 한다. 주안 중앙 교회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소그룹 리더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또는 선교지를 정하여 떠나갈 때 주안 중앙 교회 해외 선교부와 연결을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의 후원과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

2 훈련받은 외국인 리더의 선교 실제

한국에 와서 훈련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3D업종에서 일한 경험들이 있다. 3D 업종의 일은 말 그대로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하고, 쉬운 일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그룹 리더들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자신들을 헌신하게 된다.

가. 미얀마

복음의 불모지라고 부르는 불교의 나라 미얀마는 우리들에게 어색하지 않는 나라이다. 본 연구자가 한국에 근로자로 온 미얀마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도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언어만 다를 뿐 생활 습관이나 문화 예의 범절이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은 쉽게 선교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1) 종교적 배경

미얀마에 처음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은 미국 침례교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이다. 하지만 1966년에는 모든 선교 단체가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 추방되는 일이 있었다. 현재 미얀마 전역에는 100만이 넘는 불교 사원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국교를 따르는 불교인들은 87.8퍼센트이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는 5.2퍼센트에 불과하다. 많은 부족들이 불교의 영향 아래서 정령숭배를 하고 있다.⁹⁶⁾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본 연구자가 운영하는 IMHA(International Mission Help Association)는 1999년 1월부터 지금까지(2002년) 쉬지 않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다. 1999년 1월에 본 연구자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에 순종하여 캐나다 이민 목회를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인천 남동 공단과 경기도 용인 수지 모내 가구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미얀마 친족인 하우 형제를 만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미얀마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약 1년 과정의 외국인 훈련소라고 말할 수 있는 안디옥 신학교는 직장을 잃고 잠시 쉬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나누

96) Patrick Johnstone, 세계기도정보, 죠이선교회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3), 241.

어 성경 학교 수준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일대일로 훈련을 하였다. 그 후 훈련된 리더들을 그들의 나라로 보내기 위해 6개월 동안 주일 저녁마다 한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선교 보고와 함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선교 후원의 밤을 가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원 새 중앙 교회에서 하우 형제를 전도사로 임명하여 복음의 불모지 미얀마로 파송을 하였다.

(2) 현지 교회들

현재 IMHA를 통하여 미얀마에 세워진 원주민 교회는 바나바 선교 교회(탕목사), 미얀마 신성한 교회(통몽목사), 필라델비아 교회(토카망목사), 제자들의 교회(요셉전도사), 빛나는 별 교회(강복목사), 새하늘의 교회(하탕목사)를 세웠고, 미얀마 안디옥 신학교(하우목사)와 미얀마 펠로우십 교회(파우목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들은 미얀마 현지에서 하우 목사가 IMHA의 프로젝트 아래서 행정을 관리하고 있다. 모든 교회들이 생동감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앞으로 미얀마 정치적 안정을 고려하여 가까운 장래에 선교 센터를 위한 교회 자체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3) 정기적 훈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길러 내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후원 교회 목사님들과 뜻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미얀마 현지에 가서 영성 세미나를 진행한다. 한 주일간 진행되는 세미나는 밤에는 부흥 집회로, 낮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여 현지인들에게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심어 주고 목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강의 내용은 목회자의 신앙 관리, 효과적인 소그룹 조직, 은혜로운 설교 전달 방법 그리고 리더와 평신도들의 기도 생활 그리고 소그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이다. 특히 강의 방법은 미얀마 사람이 아닌 외국인일 경우 영어 소통이 가능한 신학대학 교수나 목회자들이 일주일 동안 미얀마 신학교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집중 코스로 가르쳐 한 과목씩 강의하고 있다. 교양 과목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중 고등학교 시험기간에 컴퓨터나 영어 학원 수업을 휴강하고 선교에 관심 있는 강사들이 일주일 휴가를 내어 미얀마 현지에 가서 한 주간 강의를 하고 온다. 이 같은 수업과 세미나는 그들에게 많은

정보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여간 미얀마 근로자 한 사람이 한국에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받아 자신의 나라인 미얀마에 가서 많은 후배를 양성하고 있다. 그는 미얀마 여러 지역에서 많은 리더를 찾아내어 지금은 10명의 담임 목사와 수십 명의 예비 목회자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4) 선교 사역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된 한 사람이 미얀마 양곤 시(Yangon)와 도시 근교 노으스 다곤(North Dogon)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선교와 부족 선교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하우 목사는 남녀 80여명의 신학생을 훈련시키고 있고 2002년 전반기에 10여명의 학생을 이미 졸업시켰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외국인 목사와 교수들로부터 훈련받은 학생들은 미얀마 전역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부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2001년) 정수기를 미얀마 선교지에 가져갔는데 한 신학생이 간증하기를 수도 시설이 없는 곳이라 물을 잘못 먹어 10여명의 학생들이 장티푸스에 걸려 2주간 동안 고생하였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1년을 기도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도 빗물을 받아 놓고 요리를 하고 있다.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눈물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지면이 모자라 쓸 수 없음을 고백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우리의 동역자 하우 목사와 파우 목사는 도시 선교를 위하여 양곤시에 미얀마 선교 센터를 세웠고 현재는 200여명이 모이고 있다. 지금도 계속하여 그들은 도시 곳곳에 소그룹 모임 즉 가정 교회를 만들고 추진 중에 있다. 그들은 신학교와 선교 센터에서 훈련된 복음의 군사들을 지역으로 내어 보내서 마귀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다. 황금의 나라로 불리는 미얀마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 사역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가고 있다.

나. 필리핀

필리핀 선교는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 온 한 필리핀 근로자 때문에 이루어

졌다. 본 연구자가 외국인 소그룹 교회 초창기에 일터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직업 소개를 하면서 복음으로 훈련시킨 외국인 소그룹 리더가 자신의 고향에 교회를 세우고자하는 거룩한 욕심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

(1) 종교적 배경

필리핀은 73개 지방에 7,250개 섬이 있다. 그 중 700개 이상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며, 그 중 가장 큰 섬은 북부의 루손 섬과 남부의 민단나오 섬이다. 1995년도 통계로 인구는 약 69,922,000명이다.⁹⁷⁾ 필리핀은 구교와 개신교를 합한 신자가 90퍼센트이다. 하지만 진정한 개신교 신자는 7.5퍼센트이다.⁹⁸⁾ 한국 교회들이 중국 다음으로 필리핀 지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선교 후원을 하고 있다.⁹⁹⁾ 하지만 IMHA는 좀 다른 면을 선택하여 필리핀 북부 바기오 지역 칸카나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소그룹 영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 필리핀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다. 6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선교의 꿈을 나누는 가운데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근로자로 온 코스미(Cosme) 형제가 칸카나이 부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의 형 호제(Hose) 전도사를 소개함으로 칸카니아 부족에게 복음 전달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필리핀 형제 코스미의 기도가 필리핀 바기오 바란가이면 나나스 마을에 거주하는 부족들을 복음화할 수 있었다.

(2) 부족 교회 건축

칸카나이 부족 교회 건축은 수원 새 중앙 교회 해외 선교 위원장 박성국 집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 내었다. 건축되어진 교회의 지리적 위치는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비포장으로 4시간 짜푸니(집차)로 가서 다시 걸어서 계곡을 지나 45도 경사의 산기슭 오솔길 밀림을 헤치고 3시간을 걸어 내려가면 나나스 마을이 있다. 하늘을 찌를

97) Online: <http://www.newheavenschurch.com/philippin.html>.

98) Patrick Johnstone, 세계기도정보, 603.

99) 명성훈, 월간 목회 종합 정보지: 교회성장 선교비전학교 제6강 선교와 세계관, 2002년 11월, Vol.113, 교회성장연구소, 32. 한국 선교사가 가장 많은 10개국은 중국(781), 필리핀(527), 일본(463), 러시아(359), 독일(288), 태국(233), 인도네시아(216), 미국(183), 인도(160), 우즈베키스탄(138) 등이다.(출처: 한국 통계-KRIM, 한국 선교핸드북 CD 2001-2002).

듯한 대나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곳은 외국인으로 태국 매짬 지역과 마찬가지로 필자가 처음 들어간 곳이다. 1차 사전 답사와 한 주간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말씀(마 13장) 공부는 나나스 마을에 살고 있는 칸카나이 부족들에게 큰 비전을 주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본 연구자는 나나스 마을을 답사하고 돌아오자마자 필리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원주민 교회 건축을 위한 거리 바자회를 열었다. OO 구두 회사 영업 부장의 헌신적인 선교 후원으로 구두 500족을 기증받았다 이것은 약 500만원을 만들었고 결국 나나스 마을에 40여 평 정도로 한국 교회의 지 교회로 나나스 새 중앙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 건축하였다. 놀라운 것은 건축 지원은 자재비만 제공하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원주민들이 노동력과 대지와 모래와 자갈 등을 제공하였다. 자동차도 다니지 않는 곳에 원주민들은 바기오 시로부터 시멘트와 철근 그리고 모든 건축 자재를 그들의 인력으로 나나스 마을까지 운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였다. 현지의 산을 타고 3시간 또는 4시간을 가 본 사람만이 건축된 성전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나나스 마을을 방문하고 45도 경사의 산을 올라 갈 때 전신 마비가 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 때 시간은 밤 9시인데 밀림 속은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이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암송하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시간 이상이나 밀림 속에 갇혀 있을 때는 하루를 갇혀 있는 느낌이었다. 결국 칸카나이 부족 추장 아들이 우리를 발견하여 운반 기구를 만들어 도와 줌으로 밀림을 탈출할 수 있었다. 너무나 산세가 험하여 물건은 커녕 빈 몸으로 외국인으로서 걸어 들어가고 걸어서 나오기 힘든 밀림 지역을 그들은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여 교회를 건축하였다.

(3) 훈련 사역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 출석하는 김광한 전도사가 1년간 IMHA 선교회에서 일대일 리더 훈련을 받고 필리핀 바기오 순복음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면서 나나스 마을 원주민 교회를 현지인 호제 선교사와 함께 관리하게 되었다. 현지 원주민 호제 전

도사와 김광한 전도사와의 협력 사역은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년 기회가 될 때마다 선교팀들과 함께 1월과 8월경에 필리핀 현지에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 비전을 확인하고 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나나스 새중앙교회는 현지 리더들에 의해서 잘 훈련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1박 2일 정도 세미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그룹 개척을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가 계속하여 넓어지는 야베스 기도를 소개하며 칸카나이 산족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여 주는 것이다.

다. 태국

선교사 후보생들이 세계지도를 펴 놓고 선교지를 찾아간다면 동남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태국이라는 나라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태국의 방콕은 많은 항공기가 거쳐 가는 지점이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환승하는 지점이다. 한마디로 해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항공기가 거쳐 가야만 하는 정거장이다. 본 연구자는 동남아시아 선교를 위해 미얀마를 오갈 때 수없이 방콕을 거쳐 갔다. 따라서 불교의 나라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할 대상국이다.

(1) 종교적 배경

태국 선교는 광복 후 처음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지로 택한 곳이다. 따라서 태국 선교는 우리 선교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5천 9백6십만 명에, 165년의 선교 역사가 있지만 기독교인은 약 0.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¹⁰⁰⁾ 태국은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불교가 99.4퍼센트이다. 태국의 기독교는 1퍼센트이지만 실제적으로 개신교는 0.4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¹⁰¹⁾ 이러한 복음의 불모지 태국에 하나님은 IMHA를 통하여 치앙마이 지역의 원주민 선교를 가능케 하셨다. 본 연구자가 미얀마를 가기 위해 방콕을 여러 번 오가는 가운데 한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답사 차 한번 방문한 것이 인연이 되어 치앙마이에 선교 훈련소를 만들고 교회를 세웠다. 처음 1년 간은 정규 학교에 갈 수 없는 원주민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모집하여 성경과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모든 사람들이 불교와 정령숭배의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100) Online: <http://sunflower.singnet.com.sg/~koreanch/theory/mt001-03.htm>.

101) Patrick Johnstone, 세계기도정보, 547.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듯이 태국인들의 마음을 열었고 복음은 산족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도시까지 전파되어 가고 있다.

(2) 현지인 교회

IMHA는 세계에서 가장 마귀의 세력이 강한 영적 전투 지역이라 말할 수 있는 태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이러한 이유는 태국이라는 나라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결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두운 세력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의 배경에서 자란 시골의 젊은 학생들을 치앙마이 도시로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는 임마누엘 성경 학교를 세웠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말하는 꿈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리더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IMHA는 태국의 도시 선교와 부족 선교를 동시에 할 것이다. 그래서 도시 선교를 위해 치앙마이 만민 교회(All Nations Church)를 세웠고 또한 부족 선교를 위해 치앙마이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까렌족(Karen people)이 살고 있는 매썸(Maesem)지역에 만민 교회를 2002년 1월에 건축하여 헌당하였다. 우기철에는 들어 갈 수 없는 외진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부족들을 사랑하셔서 35평 대지 위에 2층을 올렸다. 성전 봉헌 예배 때에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었다. 2차 방문 때(2002년 10월 7일)에는 120여 명이 모여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한국인으로 처음 본 연구자가 방문한 지역이다. 선교팀이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한 여인이 열흘된 아기를 안고 예배에 참여하였다. 이불에 쌓인 아기는 머리에 하얀 비듬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함께 간 선교팀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함께 간 중학생도 대학생도 어른도 눈물을 말없이 흘렸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건축된 성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산족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태국의 도시 선교를 위한 협력 사역 또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콕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라크라방(Lat Krabang)지역에 가지 교회(Branch Church) 부속 건물을 건축하여 주었다. 슈라차이(Surachai) 목사가 담임하는 이 교회는 8년 동안 20여명의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주 작은 도시 교회이다. 부엌도, 친교할 방도, 사무실도 없는 교회이다. 하지만 IMHA를 통하여 2002년 여름에 건축을 완료함으로써 가지 교회는 눈부시게 부흥하고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도시 선교를 더 한

층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태국 청소년 할렐루야 전국 축구 대회를 열어 2002년 11월 21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태국에서 전국 대회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복음의 불길을 당기라는 신호인 줄 알고 모든 대회의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태국 사회에 변화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지위가 높은 기관장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게 되었다. 가지 교회 평신도 선교사 김경주씨는 태국 여인과 결혼하여 10여 년 동안 태국 할렐루야 축구팀을 이끌고 있다. 김경주 선교사와의 협력 사역은 태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3) 훈련 사역

IMHA는 태국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보내고, 후원을 하고 우리가 세운 원주민 교회 개척을 후원하는 일을 한다. 한국의 신실한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원주민 교회를 연결시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지 목회자 제자 훈련을 계속하는 일이다. 그 동안 IMHA는 태국에서 도시 선교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산속들을 먼저 복음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시 선교의 길을 열어 주셨다. 정규적인 사역으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1년 2차례씩 대형 호텔을 빌려서 원주민 리더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50명의 원주민 리더들을 초청하여 훈련시키는 비용은 2박3일 동안 진행할 때 한화 약 3백만 원이다. 이 때 IMHA는 훌륭한 리더를 통하여 많은 사역을 준비하는 기회로 만든다. IMHA에서 세운 치앙마이 만민 교회가 원주민 리더들의 복음 사역을 위한 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을 기회로 치앙마이와 방콕을 연결시킨 스포츠 행사를 통하여 도시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2002년 11월에 태국에서 전국 청소년 할렐루야 축구 대회를 가진다. 물론 청소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태국의 기관장들과 스포츠에 관련된 리더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역은 태국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신학생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예배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양육하는 외국인 리더들은 우리가 세운 베이스 캠프(Base Camp)에 가서 사역할 수 있고 그

들을 지원할 수 있다. 베이스 캠프는 소그룹 교회 즉 가정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본 연구자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몸을 불사르며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바울의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되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제 7 절 평가

외국인 소그룹의 비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향 마을에 십자가를 세워 준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마 28:19)고 한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외국인 소그룹 성장 과정에서 소개한 수태 단계, 임신 단계, 설립 단계, 성장 단계, 재생산 단계는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재생산 단계는 외국인 소그룹에서 훈련된 리더를 통하여 미얀마, 필리핀, 태국에 교회를 세웠고 인도와 캄보디아도 교회를 세울 준비가 되었다. 이러한 결실은 선교의 불타는 외국인 소그룹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고 봉사하고 후원하고 기도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존 네비어스(John Nevius) 선교 전략 원리를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다. 네비우스 원리는 루퍼스 안더슨(Rufus Anderson)의 이론으로 자전, 자치, 자립의 토착 교회 설립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중심을 강조한 것이다. 초창기 한국에서 활동하던 언더우드(Underwood) 선교사는 이 원리를 네 가지로 요약한다.¹⁰²⁾ 첫째, 현지 지역 중심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미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에서는 현지 원주민들을 위하여 교회를 설립하였고 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속하여 현지 교회 설립을 돕고 있다. 둘째, 현지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전도 방법과 교회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지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제안하였다.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은 너무나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할 때 그들은 편안하고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이것은 전도 방법의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현지인들 스스로 소그룹을 동네마다 만들고 훈련된 리더를 선

102) 민경배, 한국 기독교 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1), 191-196. Online: http://www.goodnews.co.kr/abraham/asp/board_read.asp?p=data&num=7.

발하여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지인으로 리더를 세우고 책임지는 것이다. 자민족은 자신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직접 현지에 파견될 소그룹 리더를 후원했다. 넷째, 현지인들 문화에 맞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최대한 그들의 문화에서 편안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들이 원하는 양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하고 보내는 일은 이 시대에 넘을 수 없는 성을 넘는 일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을 가는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하여 죽어 가는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제 6 장

소그룹을 통한 원주민 부족 선교의 방향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는 2002년 10월 27일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 포럼”을 열고 관문 도시를 통한 미전도 종족 사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날 전호진 박사는 1만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교회는 선교의 방향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¹⁰³⁾ 선교 사각 지대로 일컬어지는 북위 10/40차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는 전체의 47.7퍼센트로 미전도 종족 선교와 개척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¹⁰⁴⁾ 선교의 열정이 넘치는 한국 선교사들은 지금까지 현지 원주민 부족들을 훈련하고 리더로 삼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디딤돌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선교 사역은 많은 재정적인 후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오늘날은 좀더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바로 현지인을 불러들여서 훈련시켜 리더로 세워 다시 보내는 것이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자 공장들이 한편으론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나아갔고 또 한편으론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들여 싼 노동력으로 일을 시켰다. 놀랍게도 이 근로자들이 북위 10/40차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한국 땅에 오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비전 있는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103) “미전도종족선교 활성화 방안 모색,” 기독교연합신문, 2002년 10월 27일자, 17면.

104) 하용조, “한국, 세계 5위 선교 대국,” 국민일보, 1996년 9월 10일자, 12. 목회 시사정보 스크랩, 1996년 10월호, 86에서 재인용.

제 1 절 파송하는 목회

외국인 소그룹 목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택하여 가르치고 제자 삼아 보내는 것이다. 소그룹 목회는 예수님의 방법이다. 그는 공생애의 시작은 소그룹으로 시작하였다. 이것은 메타 교회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예수님은 소그룹 목회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예수님의 소그룹 목회를 7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⁰⁵⁾ 첫째, 예수님은 소그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였다(마 4:18-22; 10:2-4; 눅 6:13-16). 둘째, 예수님의 목회는 소그룹과 대그룹 모두를 포함한다(마 26:6; 요 6:1-15). 셋째, 예수님의 대그룹 목회는 소그룹으로부터 출발했다(마 3:7). 넷째, 예수님은 소그룹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다섯째, 예수님의 소그룹과의 관계는 그의 목회의 중심적인 방법이었다. 여섯째, 예수님은 소그룹을 통하여 영적인 지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가르쳤다. 일곱째, 소그룹은 리더십 훈련을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

소그룹 목회의 장점은 서로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양과 목자가 가까이 있을 때 서로를 잘 알 수 있다. 서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서로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태국 선교지 치앙마이 만민 교회 근교에 유일하게 코끼리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코끼리 캠프가 있다. 본 연구자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태국인의 소개로 그곳을 방문하였다. 그 때 안내하는 사람이 이 코끼리 캠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태국에서 코끼리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분이 코끼리 보호 협회 회장이라고 했다. 그녀는 코끼리가 아파 누우면 코끼리와 함께 잠을 자면서 돌보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동물 애호가요 코끼리 보호 협회 회장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동물들과 함께 아파하고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하여 보면 얼마나 그 코끼리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회원들과 함께하고 아파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길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아들을 찾는 심정이어야 한다. 우리가 훈련하여 파송하는 리더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뿐만 아니라 소그룹 회원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럴 때 파송받은 리더는 다시 자신과 같은 리더를 훈련하여 파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5) Neal F. McBride, How To Lead Small Groups, 16-17.

제 2 절 선교하는 목회

소그룹의 모임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소그룹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소그룹은 주님이 주신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4-40).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이중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과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다. 계명에 이어 주님은 지상 명령을 주셨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소그룹의 최종 목적은 복음 전파 즉 선교하는 것이다. 좀더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과 명령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1. 국내 선교

한국 교회들마다 "선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선교사를 돕지 않는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도 형식상 선교를 한다. 교회가 비대하여 갈수록 많은 선교 현장에서 도와 달라는 손길을

뻔치므로 외면할 수 없다. 주안 중앙 교회도 20여 교회를 정규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후원하는 교회들은¹⁰⁶⁾ 우계 교회, 안디옥 교회, 춘천 시민교회, 열리는 교회, 영광 성결 교회, 산이 중앙 교회, 구암 장로 교회, 벨엘 교회, 천안 솔 만한 교회, 무지개 교회, 열린 교회, 신실 교회, 찬양 순복음 교회, 선한 교회, 하은 교회, 내동 교회, 소망 교회, 평강 교회, 증가 교회, 하늘 시민 교회 등이고 이외에도 기관 선교로 인천 경찰청, 인천 구치소, 극동 아세아 방송, 인천 해안 부대, 크리스찬 TV(동양위성), 석정 여고 테니스부, 세계 성신 클럽, 기독교100주년 성회, 소리글 센터, 나야커뮤니케이션, 터미널 선교회, 석정 초등학교 탁구부 등이고 장애인 선교로는 좋은 소리 선교와 밀알 선교회 그리고 소녀 소년 가장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한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국내 선교는 해외 선교만큼이나 중요하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사명은 지역 주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이러한 국내 선교 사역은 소그룹 모임의 리더와 그룹 회원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선교하는 일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기 때문이다.

2 해외 선교

주안 중앙 교회는 해외 선교부가 있다. 해외 선교부는 외국인 소그룹 교회에 출석하는 외국인들과 유대 관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일부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부는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책임 맡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 한국 교회 내에 있는 해외 선교회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선교회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선교 단체는 구멍가게식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선교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크림(KRIM) 선교회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선교 단체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979년도에 21개, 1990년도에 74개, 1998년에 127개, 2000년 말에 136개라고 하였다.¹⁰⁷⁾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해외 선교부는 전문 선교사의 조언을 받지 않고 교회의 당회장 목사가 모든 선교 기관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 있

10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안 중앙 교회 주보, 18권 19호, 2002년 5월 12일, 5.

107) "무분별한 선교회 난립 대책과 전망," 기독교연합신문, 2002년 10월 27일자.

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해외 선교는 해외 선교 정책에 밝은 사람이 운영하여야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주안 중앙 교회는 위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와 함께 앞으로 10년 안에 10/40차문 지역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다.

3. 외국인 근로자 선교

오늘날 최고의 선교는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자원들을 활용하는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먼저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와 문화와 언어와 피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관찰한 결과는 제자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새신자를 잘 섬기고 외국인들 또한 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어가 좀 부족하여도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운 사람은 최고의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예배를 통하여 각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소그룹 영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30분에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며 세계 선교의 꿈을 심어 주고 있다.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여지리라 믿는다.

가. 타문화 선교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 비전은 먼저 제1차에서 제2차까지를 이루고 다음은 제2차에서 제3차까지 이루는 일이다. 1차는 외국인 근로자 복음 전파이고 2차는 외국인 근로자들 제자 양육이고 3차는 소그룹 리더 훈련과 파송이다. 마지막으로 4차는 국경을 넘어 원주민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다. 한국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이다. 양육된 리더를 현지에 파송하면 그 다음 단계는 현지인들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복음화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한

국 선교사가 인종과 언어가 다른 민족 전체를 복음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많은 정보와 비전 제시는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하여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리더로 만들어 자신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한국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는 것은 타문화 선교 실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민간 외교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나. 이중 계명 실천

우리의 사명은 사랑의 이중 계명과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일이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잘 섬기고 있으면서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때때로 몇몇 교회들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일천만의 교인 그리고 오만이 넘는 한국 교회들이 약 60만의 외국인들을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선교 사역이다. 중국을 가는 것보다 동남 아시아를 가는 것보다 아니 중앙 아시아를 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한 사역이다. 두 번째 단계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삼았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11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교회는 정체되고 만다. 선교 또한 소그룹 리더를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다. 우리의 사명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다. 복음의 네트망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모임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단 지역에서 또는 개인 회사 공장에서 일하는 복위 10/40창문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과 학원이나 대학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다. 외국인 소그룹 모임은 소그룹 사역에서 언제나 리더를 찾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명성훈 목사는 목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면 사람을 세우는 것은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이다.¹⁰⁸⁾ 외국인

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서 복음의 훈련을 받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복음의 네트망을 설치하고 기도의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게 하는 일을 한다. 텔레비전 뉴스라인은 세계에 퍼져 있는 뉴스라인을 통하여 크고 작은 사건을 본부에 전달하여 신속하고 빠르게 뉴스를 온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외국인 소그룹 선교는 여러 외국인들을 통하여 접수된 정보를 수집하여 적당한 곳에 교회를 세워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빠른 복음 전달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라. 복음 전도

외국인 선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이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다.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하셨다. 오늘날 수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여러 교회들과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 대표와 협력하여 외국인을 초대하여 문화 축제를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문화 축제에 초대되어 온 외국인들에게 소그룹을 만들어 친교를 하면서 성경 공부도 조금씩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 만약 근로자들이 신학 공부를 원하면 즉각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해외 선교 위원회에 부탁하여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선교 단체와 연결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로 만드는 데 최대한 도움을 준다.

서로 만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의사 소통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어 보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훈련이 마치는 날 그들 각자 그들의 선교지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은 서로 간의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타문화를 접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특히 장래 선교사 지망을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시간에 선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고 강도 높게 외국인과 함께 언어 훈련을 하게 되고 현지에 그들을 따라가서 함께 사역할 수도 있다.

소그룹을 통한 외국인 선교 사역은 좁게는 서로를 알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넓게

108) 명성훈, “셀그룹 목회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월간목회, 통권 312호, 2002년 8월호, 51.

는 먼 장래에 각 나라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이미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인도, 필리핀, 미얀마, 태국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한 달에 한번씩 이메일로 현지인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복음 전파에 대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과거 4년 동안 본 연구자가 관리하는 선교 단체 IMHA와 GHM에서 미얀마 필리핀 태국에 집중적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를 하였다. 그것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e)은 로잔 마닐라 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¹⁰⁹⁾ 국가라는 영역 속에 존재하고 있는 종족의 숫자는 12,000개,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50퍼센트 이상인 종족의 숫자가 6,000개, 활력 있는 자생적인 교회가 여럿 있는 종족이 3,000개, 활력 있는 교회는 없지만 선교 사역이 진행 중인 종족이 1,800개,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자생적인 교회도 없는 종족이 1,200개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결국 12,000여 개의 종족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미전도 종족은 현재 약 10,000개의 그룹이 남아 있다고 보고되어 진다. 무슬림 그룹이 4,000개, 힌두 그룹이 3,000개, 부족 그룹이 2,000개, 불교 그룹이 1,000개 정도이다. 이 보고는 랄프윈터(Ralph D. Winter)와 브루스 코크(Bruce A. Koch)의 보고를 반영한 것이다. 하여간, 현재 세계 기독교 선교사의 약 74퍼센트는 자생적인 교회가 활발히 전도된 지역에서 일하고 있고, 오직 26퍼센트의 선교사만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¹¹⁰⁾ 따라서 미전도 선교는 외국인 소그룹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불가피한 것이다.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선교 사역의 일부로 많은 후원을 필요로 한다. 소그룹 교회에서 훈련되고 헌신되어 리더가 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비행기 티켓을 비롯하여 교회 개척 자금까지 지원한다.

IMHA를 통하여 교회가 완전하게 개척된 곳은 미얀마와 필리핀 그리고 태국이다. 미얀마의 교회는 건축의 어려움이 있어서 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 교회들이다.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미얀마 정부의 강한 반대로 어렵게 되었다. 두 교회는 건축하는 것 대신 주택과 상가 건물을 사서 예배의 처소로 삼았다.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경비는 도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외곽 지역을 선

109) 임종표, Mercy Ships(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선교 선박) (머시쉽 홍보부; 2000년 5월 1일), 2.

110) Online: <http://www.bit.or.kr/mission/mission1.htm>.

택해서 임대할 경우 미화 1,000불(약 백이십만 원) 정도이다. 약 30평 정도 2층 주택을 임대할 경우 일 년 임대료가 미화 240불(20불X12개월=미화 240불)이고 현지 목회자 생활비 미화 260불과 목회 일 년 경비 미화 500불이면 적당하다.

제 3 절 효과적인 선교 후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다양한 선교를 하고 있다. 발전하는 모 교단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선교 후원 창구를 만들어 일괄적으로 현지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을 일정하게 돕고 있다. 또한 많은 선교 단체에서도 그들의 선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돕고 있다. 본 연구자는 주안 중앙 교회 소그룹을 통한 외국인 선교를 담당하고 있기에 개 교회 선교 후원의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회 예산으로

보통 교회들은 일년 예산안에서 매달 선교비의 지출을 결재한다. 이러한 방법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여 온 방법이다. 그래서 당회가 구성이 된 규모 있는 교회는 예산에 없는 선교비는 지출하지 않는다. 지출하려면 당회가 소집되고 모두가 가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은 거의가 부결되고 다음 해 때 고려하는 예가 많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사역하는 해외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후원 때문에 매년 10월, 11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대형 교회를 방문한다. 그 이유는 새해 예산에 선교비 약속을 받아 내기 위해서이다. 교회 일 년 예산에서 지출되는 선교비는 교회와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이해 관계가 없는 선교사는 후원 받기가 쉽지 않다.

교회 예산으로 선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하게 보이지만 효과적인 선교 후원 방법이 될 수 없다. 교회에서 해외 선교회를 만들고 교인들의 선교 헌금을 매 주마다 적립하여 놓고 있지만 때때로 투명하지 못하고 선교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몇몇 의식있는 성도들은 선교 헌금을 직접 현장 선교사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가끔씩 선교 헌금을 운영하는 교회 책임자가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졌을 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경

우이다.

2 개인적인 현금으로

위와 같이 교회 재정에서 후원하는 방법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현장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는 예산에 따라 움직일 수 없다. 후원받은 만큼 일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교회 책임자들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개인보다 교회가 더 안전하다는 것과,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모두가 협력하여 일하자는 것이다. 모든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고 물질의 사용권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누구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 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주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많은 선교 후원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며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된다.

3 교회 소그룹 연보로

요즘 많은 소형 교회들이 구역마다 소그룹을 만들고(일명 목장 또는 나눔방이라고 부름) 소그룹에서 모아지는 현금은 교회 재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선교지로 보내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대형 교회보다도 소형 교회들이 더 빨리 받아들여 일선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제도 개선은 앞으로 좋은 효과를 보여 주게 될 것이다. 매 주마다 소그룹에서 모아지는 현금은 소그룹 자체적으로 선교지로 보내게 된다. 이것은 소그룹 회원들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됨으로 교회적으로 선교 후원의 부담을 덜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구역의 모임이 활성화된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아가 있는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교회적으로 선교를 할 때는 담임 목사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선교 후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교회 중앙 집권 체제에서 소그룹 체제로 바뀌어지면서 소그룹

회원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그룹 회원들 자신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소그룹 활동을 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물질보다도 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심은 소그룹을 발전시키고 기존 교회도 자연적으로 부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제 7 장

요약과 결론

제 1 절 소그룹 리더의 필요성

21세기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소그룹 모임을 통해 리더들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부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치적인 발전, 교육적인 발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전 세계 5대륙 32개국 1,000교회들을 대상으로 만든 연구 보고서에서¹¹¹⁾ 큰 교회들은 모두 소그룹 조직이 강하다는 것을 NCD 8가지 특성 중에 하나인 “전인적 소그룹”에서 증명하고 있다.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샌디에고시에 위치한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존 맥스웰 목사)와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에 위치한 뉴 호프 커뮤니티교회(데일 켈러웨이 목사)는 6백 개 이상의 소그룹이 조직되어 있는 교회로 1천명이 넘는 평신도 리더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다.¹¹²⁾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소그룹 리더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에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로부터 새로운 리더십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장정 60만, 다시 말해서 여자와 아이 그리고 노비들을 다 합쳐 약 250만의 무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약 60만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잘 섬기고 가르치고 제자 삼아 리더로 만들면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111)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7.

112) “주목받는 외국교회들 성장비결,” 국민일보, 1997년 3월 17일자, 23. 목회시사정보 스크랩, 1997년 4월호에서 재인용.

들이 일어날 것이다. 죠지 뢰필드(George Whitefield)는 존 웨슬레(John Wesley)와 동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다. 두 사람을 비교하여 볼 때 죠지 뢰필드는 18세기에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이라고 불리었지만 그의 흔적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존 웨슬레는 지금도 그의 후예들이 감리교 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결국 죠지 뢰필드는 “웨슬레는 그의 양들을 우리에게 가두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¹¹³⁾고 했다. 존 웨슬레는 소그룹 리더를 세워 많은 소그룹을 만든 것이 오늘날의 감리 교단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한국 교회의 리더들은 인력과 재정 손실이 많은 복위 10/40창 문 지역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 선교하고 후원하기보다는 - 우리 이웃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여야 한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코 밑에 있는 외국인들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 영혼을 얻게 되는 일이다. 이 한 영혼이 고향을 찾아가는 날 자연 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리더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밥 로간(Bob Logan) 교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열쇠는 리더십이라고 했다.¹¹⁴⁾ 많이 추수하면 많은 리더를 세울 수 있고 적게 추수하면 적은 리더를 세울 수 밖에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리더가 적은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다”(마 9:37)고 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마 9:38)고 하였다. 이것은 리더의 부족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장애의 요인이 된다는 말이다.¹¹⁵⁾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을 찾고 훈련하고 계속 세워 나가야 된다고 믿는다.

113) Willian Beckham, 자연적 부흥, 이병헌, 박경은 역 (서울: NCD 출판사, 2000), 199-200.

114) Robert E. Logan and Tomas T. Clegg, 교회의 NCD 잠재력을 풀어놓아라, 311.

115) Ibid., 311.

제 2 절 연구 결과 및 과제

본 연구자는 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김세운 교수의 성경 신학 강의를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바울의 비전과 영혼 구원의 열정은 너무나 감동을 주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한 말에 대하여 김세운 교수는 바울이 "한 원형의 지도를 머리 속에 그리면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 원의 일부, 곧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포함하는 로마 제국의 동반부에서 자기의 사도적 선교 사업을 다 마쳤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말했다"¹¹⁶⁾고 했다. 본 연구자와 함께 하는 IMHA(International Mission Help Association)와 GHM(Global Harvest Ministry)에서는 앞으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을 통하여 리더의 훈련을 마친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로 동남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한국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를 보내는 일보다 한국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을 훈련시켜 파송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한국인이 선교사로 갈 경우 많은 어려움이 부딪치고 있다. 언어 문제, 물질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 문제 등은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서간 우리 선배들은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 장로교 신학대학원, 헛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많은 복위 10/40창문 지역에 살고 있는 리더의 자질이 있는 현지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고 있다. 그들이 배우는 신학과 목회에 필요한 공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기 나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리더 수업을 받는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1만 3511개의 언어와 3만여 개의 방언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구약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383개이고 신약만 번역된 언어는 987개, 부분적으로 번역된 언어는 891개이며 현재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언어는 672개이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야 40퍼센트에 불과하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 번역은 60퍼센트가 남았다.¹¹⁷⁾ 남은 사역을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

116) 김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388.

117) 국민일보, 2002년 10월 2일자, 33 ("미션" 섹션).

는 북위 10/40차문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다.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들이 외국인 신학생들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 그들의 나라로 파송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는 소그룹 구조를 통한 리더 발굴과 리더 훈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역을 토대로 3가지로 이 연구의 결론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남긴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갖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공단 지역에 모여 있는 중소 기업체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명절이나 공휴일이 되면 특별히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수십만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기존 교회들은 이들을 위한 전도 계획이 없다. 단지 외국인 선교에 관심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현지 선교지에 보내고 있지만 눈앞에 있는 우리 선교의 대상자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논의되어 온 이야기이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한 영혼을 찾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타문화 선교에 경험이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설교나 세미나 때에 교인들의 선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아야 하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선교가 해외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돕는 것만큼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자.

6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주안 중앙 교회 외국인 소그룹 교회 비전은 제1차에서 제2차까지를 이루고 그 다음은 제2차에서 제3차까지 이루는 일이다. 1차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 전파이고 2차는 외국인 근로자들 제자 양육이고 3차차는 소그룹 리더 훈련과 파송이다. 마지막으로 4차는 국경을 넘어 원주민 교회를 개척하고 후원하는 일이다. 우리의 임무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을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자로 삼을 경우 우리는 현지에 가지 않아도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많은 경비도 줄일 수 있다. 기존 교회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

자들을 제자로 삼고 보내게 될 때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 쉬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선교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자 삼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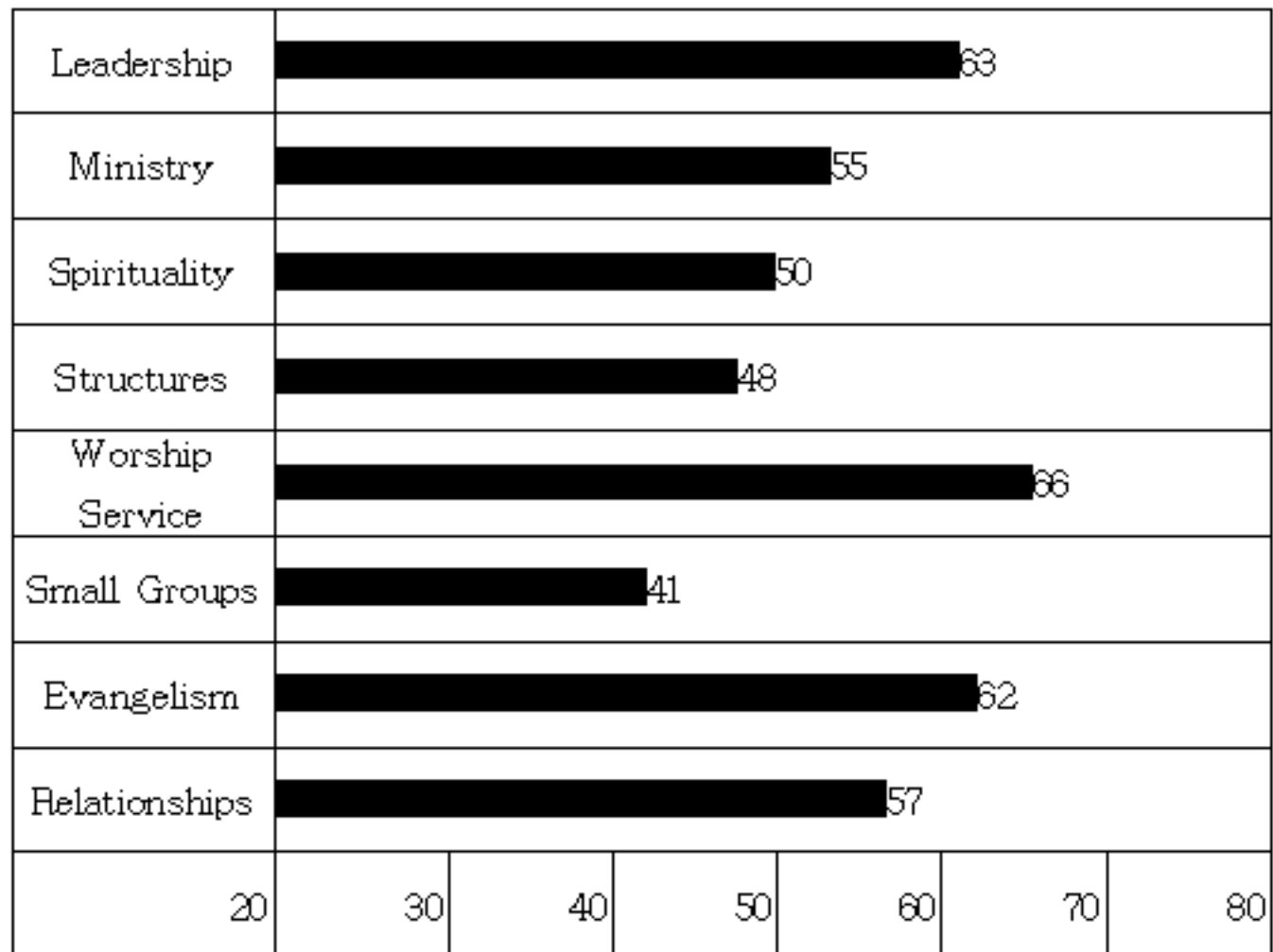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문 사역자에게 맡기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기존 교회는 없다.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동기 유발이 일어나 우후죽순으로 외국인 선교회를 만들고 많은 외국인들을 교회로 불러모으고 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가면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로 서로간의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된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한 젊은 부부라 할지라도 처음 결혼 생활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것은 20년 이상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해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선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인내 없이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할 수 없다. 이러한 많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문인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필요한 언어도 할 수 있고 타문화권에서 살아 본 경험이 있고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인 사역자를 세우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효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과제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전문인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준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열심이(사 9:7)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가 외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사 60:22)는 비전은 21세기 선교의 열정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확신 있는 꿈의 날개가 될 것이다.

NCD(자연적 교회 성장) 설문지 결과

주간 중앙 교회



평균:55

은사 발견 설문지¹¹⁸⁾

다음의 135개의 질문은 당신의 영적 은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의 생애에서 경험한 부분을 지적하는 데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라. 여기에서 4부분으로 나뉘는데 3은 많은 경험이고 2는 조금 경험이고 1은 아주 작은 경험이고 0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이다.

135개의 질문의 답을 마치면 수평적으로 숫자를 계산하여 총 점수를 취한다. 아마 만점은 15점이 될 것이다. 나에게 나타난 은사는 27개가 될 것이다. 어떤 부분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어떤 부분은 낮은 수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여간에 얻은 수치를 가지고 마지막 페이지 영적 은사로 가서 자기에게 약한 은사가 무엇이고 강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부족한 부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한 부분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 3,2,1,0 네 숫자를 가지고 다음 질문에 답을 하라.

1. 나는 어떠한 정치적 위험에서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한다.
2. 나는 크리스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책임감에 기쁨을 가진다.
3. 나는 크리스찬 신앙의 기초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4.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일 중에 헌금 부분에서 성숙을 보인다고 말한다.
5.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느낌을 통해 아는 경험을 가진다.
6. 나는 말로서 실망한 사람이나 고난에 있는 사람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7.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때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다.
8.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서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믿는다.
9. 나는 사람들의 목회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도와 주는 일을 기쁨으로 한다.
10. 특별히 나는 육체적인 고뇌와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관심을

118) 이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토론토 틴데일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영성 과목을 수강할 때 신학과 교수와 함께 저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다.

가진다.

11. 나는 다양한 문화에 쉽게 적응한다.
12. 나는 불신자들과 자유롭게 복음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13.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대접할 마음을 가진다.
14. 나는 불신자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15. 나는 특별한 성경적인 목적을 향해 군중들을 움직인다.
16. 나는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사람들을 중요하게 이용하는 면이 있다.
17.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기적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경험을 했다. 이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었다.
18. 나는 종종 병든 사람들을 위한 책임을 느낀다.
19.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끔씩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받는다.
20.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그들의 기도를 이해한다.
21. 나는 다른 크리스찬과 비교해서 어떤 권위감을 가진다.
22.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즐겁다.
23.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종종 시간을 잃는다.
24. 나는 확신 있는 믿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느낀다.
25.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만난다면 그 일로 기쁨을 갖는다.
26. 가난과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
27.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적인 능력(작가, 요리, 화가, 연극 등)을 사용한다.
28. 나는 종종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29. 나는 실패와 성공 안에서 장시간 동안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30. 내가 영적으로 가르칠 때 사람들은 살아난다.
31. 때때로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순간에 놀란다.
32.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순간에 놀란다.
33. 나는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다.
34. 하나님은 나를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35. 나는 성도들이 십일조보다 더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볼 때 강한 느낌을 가진다.
36.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안내, 타이핑, 서류 정리, 청소, 도움을 주는 목회를 좋아한다.
37.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볼 때 긴급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38. 나는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39.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
40. 나는 집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41.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하나님께 받았다.
42.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안다. 그리고 나는 다른 크리스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을 본다.
43. 나는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 시간, 아이디어, 사람들, 재료들을 잘 조직할 수 있다.
44. 나는 우리가 현재 행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날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45. 나는 치유 목회를 위하여 기꺼이 연구와 훈련을 할 것이다.
46. 공적으로 내가 방언의 메시지를 받을 때 나는 그것을 통변한다.
47. 나는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훈, 훈계 또는 위안의 결과로 나타나도록 통변한다.
48. 나는 황무지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좋아한다.
49. 나는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
50. 나는 다른 사람의 기도요청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
51.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면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52. 나는 교회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53. 굶주린 사람의 곤경은 나에게 너무 충격을 주기 때문에 때때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54. 잠재적으로 나는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한다.
55. 때때로 하나님께 귀기울일 때 그분의 감각과 소리를 듣고 그분의 메시지가 그림으로 나타난다.
56. 나는 영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7. 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설명할 수 있다.
58.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다.
59. 단체에서의 고통을 나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동반한다.
60. 나는 어려운 일 닦칠 때 사람들과 편안하게 생각한다.
61. 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
62. 나는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할 때 심한 갈등을 한다.
63.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
64. 나는 병 문안 또는 양로원 방문을 좋아한다.
65. 나는 타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린다.
66.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67. 나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회사에서 남달리 처음 보는 사람을 잘 사귀다.
68. 나는 내가 가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참 뜻을 아는 경향이 있다.
69.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도와 동기를 주는 것을 좋아한다.
70. 나는 사람들의 능력 즉 은사를 찾아주는 일을 할 수 있다.
71.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개입한다.
72.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
73. 공식적으로 내가 말하는 방언을 통변할 수 있다.
74.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방언한다면 나는 통변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75. 내가 교회 일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동의하여 주는 것을 느낀다.
76. 나는 주의 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독신이기 때문이다.
77.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영적 훈련 중에 하나이다.
78. 나의 생명을 내건 믿음이 나에게 악한 일을 방지하는 것으로 느낀다.
79.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만족하게 느낀다.
80. 나의 재산 전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리면 그렇게 하겠다.
81. 나는 나의 재능(음악, 연극, 시, 글, 그림 등)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쁘다.

82. 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직접적인 대화를 원한다.
83. 크리스찬들은 권면과 인도를 위하여 나를 찾는다.
84. 나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태도, 그리고 가치와 행동을 바꾸어 주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
85. 그룹에서 미래를 위하여 나의 의견이 요구될 때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다.
86. 때때로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나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87. 나는 고통과 실망에 민감하다. 따라서 이 같은 처지의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
88. 나는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인간으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89.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이시다. 따라서 나의 삶 전부를 그분에게 드린다.
90. 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할 때 행복하다.
91.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을 좋아한다.
92. 나는 해외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93.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94. 나는 교회나 회사나 또는 집에서 편하게 외인을 대접할 수 있다.
95. 나는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 그분의 특별하신 뜻을 확실히 느낀다.
96. 그룹에서 내가 기둥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하기를 원한다.
97. 나는 모든 일에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98. 나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된다.
99.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의 영적, 육신적, 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나를 기도하게 한다.
100. 나는 방언과 통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메시지와 은혜를 주는 것을 때때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101. 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과 같은 통변을 한다.
102. 나는 개척 교회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
103. 나는 독신이다. 하지만 성적 욕구가 조금 있다.

104.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105. 가혹한 핍박에서도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다.
106. 나는 모든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다.
107. 가난과 함께 살기로 맹세한 성 프란시스는 나에게 큰 매력을 주었다.
108. 나는 본질적으로 예수를 위하여 아름답게 나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109. 나는 경우에 따라서 희망과 경고 또는 심판에 말씀을 준다.
110. 나는 쓰러지고 믿음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준다.
111.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는 크리스찬을 좋아한다.
112.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방향이 불확실할 때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
113. 나는 어떠한 상황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
114. 사람들은 내가 그들 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수정을 바란다.
따라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나는 그 문제를 도와 준다.
115. 나는 거짓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
116. 나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의 생활 수준을 평균 이하로 한다.
117. 나는 교회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일로 쓰임 받고 있다.
118. 나는 외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119. 나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 즉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보기를 갈망한다.
120. 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픈 마음을 가진다.
121.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나의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
122. 나는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123.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기쁘다.
124. 사람들은 종종 나를 체계적인 사람(교육, 조직, 사업에 능통한 사람)으로 본다.
125. 나는 병원에서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병도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이다.
126. 나는 종종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가진다.
127. 나는 방언 기도에 민감하다.
128. 매시간 나는 방언을 통변한다. 성령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129. 나는 여러 회중들 가운데서 편안함을 느낀다.

- 130.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자된 바울을 이해할 수 있다.
- 131. 내가 사람들을 의지한 이후로 그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기도하고 싶었다.
- 132. 나는 순교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
- 133. 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다.
- 134.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생활을 희생할 수 있다.
- 135. 나는 나의 재능을 인정한다(화가, 작가, 요리사, 미장이, 음악 등).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싶다.

은사 발견 설문 문답지

Rows	Value Of Answers					Total	Gift
Row A	1	28	55	82	109		A
Row B	2	29	56	83	110		B
Row C	3	30	57	84	111		C
Row D	4	31	58	85	112		D
Row E	5	32	59	86	113		E
Row F	6	33	60	87	114		F
Row G	7	34	61	88	115		G
Row H	8	35	62	89	116		H
Row I	9	36	63	90	117		I
Row J	10	37	64	91	118		J
Row K	11	38	65	92	119		K
Row L	12	39	66	93	120		L
Row M	13	40	67	94	121		M
Row N	14	41	68	95	122		N
Row O	15	42	69	96	123		O
Row P	16	43	70	97	124		P
Row Q	17	44	71	98	125		Q
Row R	18	45	72	99	126		R
Row S	19	46	73	100	127		S
Row T	20	47	74	101	128		T
Row U	21	48	75	102	129		U
Row V	22	49	76	103	130		V
Row W	23	50	77	104	131		W
Row X	24	51	78	105	132		X
Row Y	25	52	79	106	133		Y
Row Z	26	53	80	107	134		Z
Row ZZ	27	54	81	108	135		ZZ

외국인 소그룹 리더 교육 교안
How to become a Christian?

(1) First Man, Adam(Gen.1: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2) Sin(Isa. 59:1-2)

Surely the arm of the LORD is not too short to save, nor his ear too dull to hear,
But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will not hear.

(3) Sinner(Rom. 3:23)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4) Death(Rom. 6: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5) Judgement(Heb. 9:27)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6) Eternal Death(Rev. 21:8)

But the cowardly, the unbelieving, the vile, the murderers, the sexually immoral, those who practice magic arts, the idolaters and all liars--their place will be in the fiery lake of burning sulfur. This is the second death.

(7) Men's ways

1) Wisdom(1Cor. 1:21)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through its wisdom did not know him, God was pleased through the foolishness of what was preached to save those who believe.

2) Law(Rom, 3:20, Jas, 2:10)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his sight by observing the law; rather,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sin.

For whoever keeps the whole law and yet stumbles at just one point is guilty of breaking all of it.

3) Good Works(Tit, 3:5, Isa, 64:6)

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All of us have become like one who is unclean, and all our righteous acts are like filthy rags; we all shrivel up like a leaf, and like the wind our sins sweep us away.

(8) Our Savior

1) One Mediator(1Tim, 2:5)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2) the Cross(Rom 5:8)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3) the Way(John 14:6)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9) Eternal Life

1) Hear/ Believe (John 5:24)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10) Christian's Benefits

1) the Children of God(John 1:12)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2) the Life(1John 5:11-12)

And this is the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He who has the Son has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3) Clean(1John 1: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4) Safety(John 10:28)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hand.

5) Caring(Rev. 3:20)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6) the Gift of Salvation(Eph. 2:8-9)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Good relationship with God(Gen. 1:26-27)

After that Sin came(Isa. 59:1-2)

Man		God
1. Sinner(Rom. 3:23)	Wisdom(1Cor. 1:21)	
2. Death(Rom. 6:23)	Good Works(Isa. 64:6; Tit. 3:5)	
3. Judgement(Heb. 9:12)	Law (Jas. 2:10; Rom. 3:20)	
4. Eternal Death(Rev. 21:8)		

Man		God
1. Sinner	Jesus Christ (1Tim 2:5)	John 5:24 Hear/Believe
2. Death		Life
3. Judgement	Rom. 5:8	Salvation
4. Eternal Death	the way (John 14:6)	Eternal Life
		Christian's Advantages
		1. (Eph. 2:8,9)
		2. (1John 5:11,12)
		3. (John 10:28)
		4. (Rev. 3:20)
		5.(1John 1:9)
		6. (John 1:12)

(11) Prayer is talking with God

"Lord Jesus, I need You. Thank You for dying on the cross for my sins.

I open the door of my life and receive You as my Savior and Lord.

Thank You for forgiving my sins and giving me eternal life.

Take control of the throne of my life.

Make me the kind of person You want me to be." In His name. Amen.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강신권, 21세기를 향한 리더십, 서울: 콤란출판사, 1995.
- 국민일보, 2002년 6월 4일자, 25면 (“사회” 섹션).
- 김동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도전략,” 기독교 대학, 1997년 12월호, 2-5. 두란노 목회시사정보스크랩, 1998년 1월호.
- 김만홍, 21세기 교회사역의 비전: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세워라, 부천: 도서출판 가족사랑, 2002.
- 김명훈, 리더십론, 서울: 대왕사, 1979.
- 김순규, 크리스찬의 리더십, 서울: 세무교육정보센터, 1987.
- 김용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교회 지도력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1990.
- 김기제, 21세기 리더십을 계발하라, 서울: 도서출판 햇볕, 1998.
- 고용수, “교회 지도력 개발의 이론적 기초,” 교회교육, 1984년 3월호.
- 김세윤, “크리스찬 리더십의 모델로서의 바울,” 목회와 신학, 2000년 8월호.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 _____, 요한복음 강해,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1.
- _____, 신약성경신학 I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 김해철, “교회성장 유형과 그 사례 연구,” 월간목회, 1991년 6월호.
- 나겸일, 새벽기도와 교회성장, 인천: 도서출판 샘물, 1993.
- 두란노 편집, 전도방법론 철저분석,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 동아 출판사 백과 사전부, 동아 원색 세계 대 백과 사전, Vol. 16, 서울: 동아출판사, 1993.
- 명성훈, 교회 개척의 원리와 전략, 서울: 국민일보사, 2000.
- _____, 소그룹 리더학교, 서울: 서울말씀사, 2002.
- _____, 소그룹 리더학교: 평신도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 13,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2002

- _____.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_____. 성경속의 리더십 마스터키, 서울: 국민일보, 2002.
- _____. 월간 목회 종합 정보지: 교회성장 선교비전학교, Vol. 113 (2002), 제6강 선
교와 세계관.
- 문교수, 평신도 소그룹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 대학원, 1994
- “미전도종족선교 활성화 방안 모색,” 기독교연합신문, 2002년 10월 27일자, 17면.
- 민경배, 한국 기독교 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1.
- 박영철, 모든 교인을 사역자로 개발키 위한 셀그룹 교회모델, 대전침신 신학대학원,
1995.
- 박응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안 중앙 교회 주보, 18권 19호, 2002.
- _____, 주안 중앙 교회 실업인선교회 요람, 인천: 청림인쇄, 2001.
- 박종구, 세계선교 그 도전과 갈등, 서울: 신망애 출판사, 1994.
- 박종렬, “교회의 교회화와 신자의 제자화,” 한국교회 2세기의 과제, 연세대학교 연합신
학 대학원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강의집, 1996.
- 백도응, “평신도 지도력 개발연구,” 월간목회, 통권 76호, 1992.
- 백운형, 개척에서 성장까지, 서울: 지평서원, 1996.
- 변재창, 작은 목자훈련,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 실만한 물가, 월간 주안 중앙 소식지, 제 12호, 2002년 10월13일.
- 엄복용, 바이블 영어회화, 서울: 도서출판 조은, 2001.
- _____,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21가지 이야기, 서울: 참빛, 2000.
- _____, 꿈에서 주님을 만나라, 서울: 엘멘출판사, 2000.
- _____,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흥이 오고 있다, 서울: 엘멘출판사, 2000.
- 오태균, “21세기 교회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목회와 신학, 통권 127권, 2000년
1월호.
-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과, 서울: 청년의사, 2001.
-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도서출판 규장, 1998.
-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서울: 신망애 출판사, 2002.

- 이원설, 박종구, 21세기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서울: 신망애 출판사, 2001.
- 이정근, 교회를 성숙시키는 성숙한 교인, 서울: 콤란출판사, 2000.
- 임종표, Mercy Ships(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선교 선박), 머시쉽 홍보부, 2000년 5월 1일.
- 정병관, “소그룹 훈련에 중점을 두는 교회.” 월간목회, 제 228권, 1995.
- 조병찬, 목회지도자론, 안양: 성결대학교 출판부, 1997.
- 채이석,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와 목회 15,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특집/ 셀그룹 목회를 말한다.” 월간목회, 통권 312호, 2002년 8월호.
- 하용조, “윌로우크릭 코치 핸드북.”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 하용조, “한국, 세계 5위 선교대국.” 국민일보, 1996년 9월 10일자, 12면, 목회 시사정보 스크랩, 1996년 10월호, 86에서재인용.
- 하해룡, 평신도 지도자 양성,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세미나, 1984.
- 한국대학생 선교회, 순모임, 이렇게 한다: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법, 서울: 순출판사, 1988.

2 번역서적

- Beckham, William, 자연적 부흥, 이병헌, 박경은 역, 서울: NCD 출판사, 2000.
- Beker, J. Christian, 사도 바울, 장상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 Castellanos, Cesar, G-12 리더십, 서효정, 홍주연 역, 서울: NCD 출판사, 2001.
-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서울: NCD 출판사, 2001.
- Donahue, Bill, 윌로우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0.
- _____, “윌로우크릭 교회의 소그룹 인도 지침서.” 두란노 목회자료큰백과,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 Engen, Van C,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운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 Galloway, Dale,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 이야기, 서울: 요단출판사, 2001.

- Garrison, David 비거주 선교사, 김창영, 조은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George, Carl F. 성장하는 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 _____,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박종훈, 정종현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Hasteners, Roberta, 소그룹을 위한 성경연구 지침서, 김의원, 조남수 공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0.
- Hickey, Marilyn 구역장의 기본 은사, 이해규 역, 서울: 서울서적, 1991.
- Hull, Bill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8.
- Hunter, George G.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 Hybels, Bill And Mittelberg, Mark,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한기응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 Johnstone, Patrick 세계기도정보, 죠이선교회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3.
- Kaiser, Walter C. 성경에 나타난 신앙부흥의 영적인 원리들, 서울: 나침반사, 1991.
- Logan, Bob, and Clegg, Tomas T. 교회의 NCD 잠재력을 풀어놓아라, 정진우 역, 서울: NCD 출판사, 2002.
- Logan, Bob, 교회개혁론,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 Macchia, Stephen,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 Malphurs, Aubrey, 21세기 교회개혁과 성장과정, 서울: 예찬사, 1996.
- Neibour, Ralph W.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1990.
- _____, 셀리더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NCD 출판사, 1996.
- Paul, Cedar, 섬기는 지도자, 김성웅 역, 서울: 도서출판 햇빛, 1992.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NCD, 1999.
- _____,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오태균, 이준영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Setiawan, Obaja Tanto, 세계교회는 G-12로 간다, 임종혁 역, 서울: NCD 도서출판사, 2002.
- Silvoso, Ed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서울: 서로사랑, 1994.
- Stott, John R. W.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김기영 역, 서울: 엠마오, 1987.
- Towns, Elmer L.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김흥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Wendt, Harry,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 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서울: 월간목회사, 2001.

Wilkinson, Bruce, 야베스의 기도,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1.

3. 외국서적

Alton, T. The New Compact Bible Dictiona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7.

Beasley-Murray, George Raymond,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86.

Bright, Bill, Four Spiritual Laws, Campus Crusade for Christ, 1965

Bloede, Louis W., The Effective Pastor: A Guide to Successful Minist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Callahan, Kennon L., Effective Church Leadership: Building on the Twelve Keys,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0.

Chaney, Charles L., Church Planting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Wheaton: Tyndale House, 1991.

Covey, Stephen R.,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Powerful Lessons in Personal Change, New York: A Fireside Book, 1989.

Egan, Gerard, Face to Face: The Small-Group Experience and Interpersonal Growth, Montere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73.

Fausset, Andrew Robert, Home Bible Study Dictionar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7.

Gangel, Kenneth O., Feeding & Leading: A practical Handbook on Administration in Christian Organizations, Wheaton: Victor Books, 1994.

Gardner, Paul D., The Complete Who's Who In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5.

Griffin, Em., Getting Together: A Guide for Good Groups, Downers Grove:

- InterVarsity Press, 1982.
- Horton, Harold The Gifts of the Spirit, London: Assemblies of God Publishing House, 1966.
- Icenogle, Gareth W.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onal Approach,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4.
- Kim, Seyoon Paul and The New Perspective: Second Thought on the Origin of Paul's Gospe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 Lawrence, Brother,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USA: Whitaker House, 1982.
- Long, Jimmy, Small Group Leader's Handbook: The Next Gener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5.
- McBride, Neal F. How to Build a Small Group Ministry, USA: Navpress, 1995.
- Mead, Loren The Once And Future Church: Reinventing The Congregation For a New Mission Frontier, Washington D.C.: An Alban Institute Publication, 1994.
- Mims, Gene, Kingdom Principles For Church Growth, USA: Convention Press, 1994.
- Moyes, Golden, How to Grow an Australian Church, Sippingrale: Vital Publication, 1982.
- How to Lead Small Group Bible Studies, USA: Navpress, 1982.
- Sherbino, David Foundations Of Christian Living, Toronto: Church material, 1997.
- Smith, Oswald J. The Man God Uses, Ontario: Welch Publishing Company Inc., 1984.
- Sorge, Bob, Exploring Worship: A Practical Guide to Praise And Worship, USA: Oasis House, 1987.
- Turnbull, Ralph G.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Compay, 1976.
- Wagner, C. Pet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Ventura: Regal

Books, 1990.

Warren, Rick. The Purpose Drive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5.

Webber, Robert E. Worship is a Verb. Peabody: Hendrikson Publishers, Inc., 1992.

Vita of
Bog Yong Eom

Present Position

Missionary of Incheon Ju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cheon,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 February 25, 1962

Birthplace : Chung Chong Buk Do, Korea

Marital Status : Married to Jae Soon Joo

Home Address : 52-4 Juan Dong, #303 Joo Young Topsvill, Nam-Ku,
Incheon, Korea

Denomination : Jesus Korean Sung Kyul Churches

Ordained : May 2, 1990

Education

Th.B. : Sung Kyul Christian University, Anyang, Korea, 1986

M.Div. : Tydale Theological Seminary, Toronto, Canada, 1998

D.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3

Ministerial Experience:

1/1999 to present : Missionary and English Worship Preacher

of Incheon Ju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and East and
South Asia

1/2000 to present : Director of International Mission Help Association and Global
Harvest Ministry

6/1995 to 12/1998 Senior pastor

of All Nations Korean Church, Toronto, Canada